

ISSN 1226-637X

The Chungnam Review

열린 충남

제23호

2003. 6

여름

- 인터뷰/정충환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 충남의 재발견/충남방문의 해, 관광활성화 방안
- 역사테마기행/ 서해안 역사기행
- 해외사례/ 일본관광목장의 운영현황

열린 충남

Chungnam

인터뷰

- 2_ 정종환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충남의 재발견 5

충남방문의 해, 관광활성화 방안

- 5_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한 관광 활성화 방안 / 정강환
14_ 서해안의 관광거점을 위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방향 / 이인배
25_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육성방안/ 송두범
40_ 부여 관광기념품 개발 방안/ 권영현

연구원 논단

- 58_ 농촌문화·지식자원의활용방안/ 이해준
64_ 충청남도 백제 문화재의 관리현황과 활용방안 / 강종원
74_ 충청남도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 이훈

열린 충남

2003. 여름 | The Chungnam Review |

역사테마기행 ⑥

86_ 서해안 역사기행/ 오석민

94_ 충남도의회소식/ 편집부

100_ 칼럼/ 오계직원장 신문칼럼

해외사례조사

104_ 일본관광목장의 운영현황/ 박철희

충남의 전설⑤

114_ 이몽학전설/ 충청학연구부

116_ 연구원소개/ 충청학연구부

120_ 연구원소식



93



109



114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정 종 환

Q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소감과 공단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A 제가 제6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고속철도와 참으로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짓는 일을 교통부의 과장으로서 참여했고, 20년 만에 고속철도의 1단계 마무리를 하게된 인연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으로는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며, 2단계 경주 신설건설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공단의 위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교통 영역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개통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민원 등이 제기되어온 2단계 사업도 몸을 던져서 열과 성을 다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하루 빨리 정상궤도를 찾아 공사를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의 구조개혁이란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도의 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철도의 운영을 경쟁력 있게 효율적

으로 경영하여야 된다는 전제 하에 철도구조개혁이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리 공단이 확실한 비전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장래의 구조조정의 불안에서 해방되어 열심히,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혜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아주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서, 현장에 있는 의견이 최고경영진에게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각 기능간에 벽이 무너져 서로 전체를 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며 벤치마킹하는 자세로 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언제든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고속전철 개통구간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통시기는 언제인지요.

A 경부고속철도의 제 1단계 개통시기는 당초 서울~대전구간이 금년 12월, 서울~부산 전구간은 내년 4월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현재의 서울~대전구간의 공정은 98.2%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



나, 2회에 걸친 고속철도 개통을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대전구간의 개통을 서울~부산 구간 개통과 통합하여 내년 4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된 이유는 이원화된 개통시기로 인하여 불과 4개월 사이에 열차시각표를 4회나 변경해야 하므로 고속 열차 이용객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두 번에 걸친 개통행사로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도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고속열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고속차량의 시운전 기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04. 4월 대구이남 기존선을 이용한 서울~부산구간을 1단계로 개통한 후, 완전 개통을 위하여 2단계 구간 공사를 200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대구이남 구간 중 대구~경주간 6개 공구는 활발히 시공 중에 있으나, 경주~부산 구간은 천성산·금정산 구간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훼손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와 환경단체 공동으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본 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 중 노선 재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므로 노선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통시기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호남고속철도 분기를 놓고 대전, 충남, 충북의 입장이 다른데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A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01. 5월부터 금년 9월 완료예정인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노선, 정차역 및 분기역, 사업비, 건설기간 등의 조사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이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현황조사와 노선 및 정차장 그리고 말씀하신 천안, 오송, 대전의 분기역에 대한 각 대안별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입지 검토 시 고속철도 분기역이 중요한 요

소가 되므로 분기역 결정은 신행정수도 입지 검토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행정수도입지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와의 관계는,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과 충청지역과의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요.

A 고속철도 개통 시 서울~대전구간은 현재 기존 새마을 열차로 1시간 42분 소요되던 운행시간이 50분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교육 및 산업시설 등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도도 더욱 높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 입지 선정시도 전국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아주 중요한 입지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정부 고속철도노선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등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고향이 충남 청양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지역민에게 한 말씀 하시지요.

A 앞으로 11개월 후인 2004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대전에서 천안까지는 16분, 서울·대구까지는 50분정도가 소요되므로 통근·통학이 가능해질 것이며, 부산이나 목포까지도 2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므로 충남·대전지역 발전에 우리 고속철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시간거리의 단축은 필연적으로 문화, 경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므로 충남·대전지역 주민께서는 고속철도의 개통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방문의 해, 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한 관광 활성화 방안 / 정 강 환

서해안시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촉진 방안 / 이 인 배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육성방안 / 송 두 범

부여 관광기념품 개발 방안 / 권 영 현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한 충남관광 활성화 방안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원장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소장
정 강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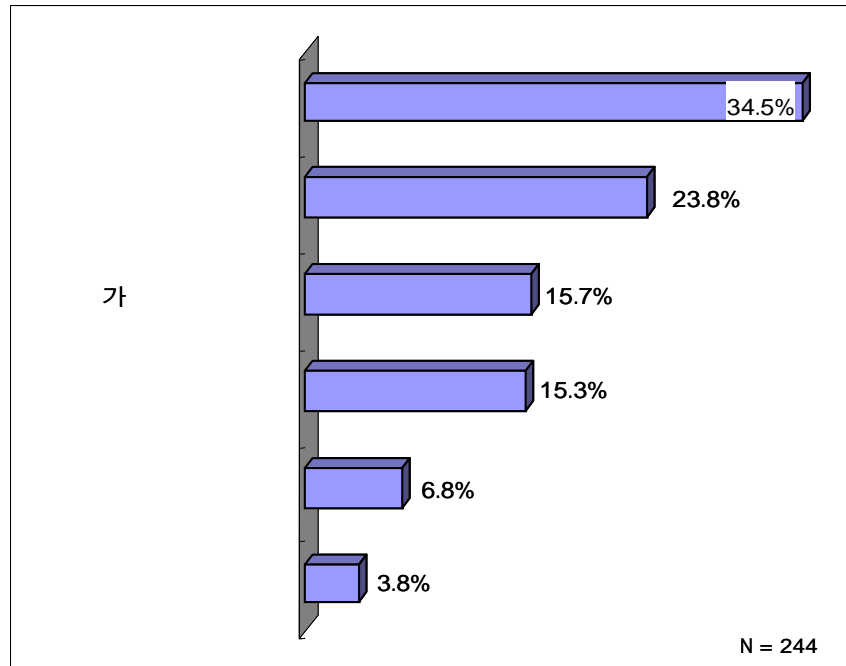
지방화시대에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지방상품 개발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도 최근에 경쟁력과 고품격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2차적 노력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의 경우에는 2003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등 매력성이 높은 지방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고품격 관광문화 창조를 주제로 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 개발 움직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우선 첫째로, 충남의 관광상품이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열풍이 불고있는 건강관광, 바이오(Bio)관광으로서의 전국적인 잠재성을 지닌 곳이 ‘충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산의 인삼은 건강관광지의 메카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7년간 금산인삼축제를 통한 인삼 관광상품화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인삼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금산의 인삼관광지로서의 성공은 경상북도 풍기나 충청북도 증평 등이 모범모델로서 벤치마킹하려는 성공사례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금산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약초 판매액이 약 500억에 이르고, 국제 인삼교역전을 통해 인삼상품홍보 및 인삼상품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는 점은 건강관광지의 발전 증거를 일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에는 그밖에도 아산의 온양온천, 보령 머드축제(머드화장품), 청양의 구기자와 생수, 태안의 소금 등의 건강, 미용(바이오)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효과적인 네트워킹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충남을 건강이 있는 바이오(Bio)관광지로서의 부각을 시도할 때 투자대비 높은 효율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충남은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국가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잠재적인 생태관광지로 서산의 천수

만 철새 도래지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잠재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1>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방문객들의 방문동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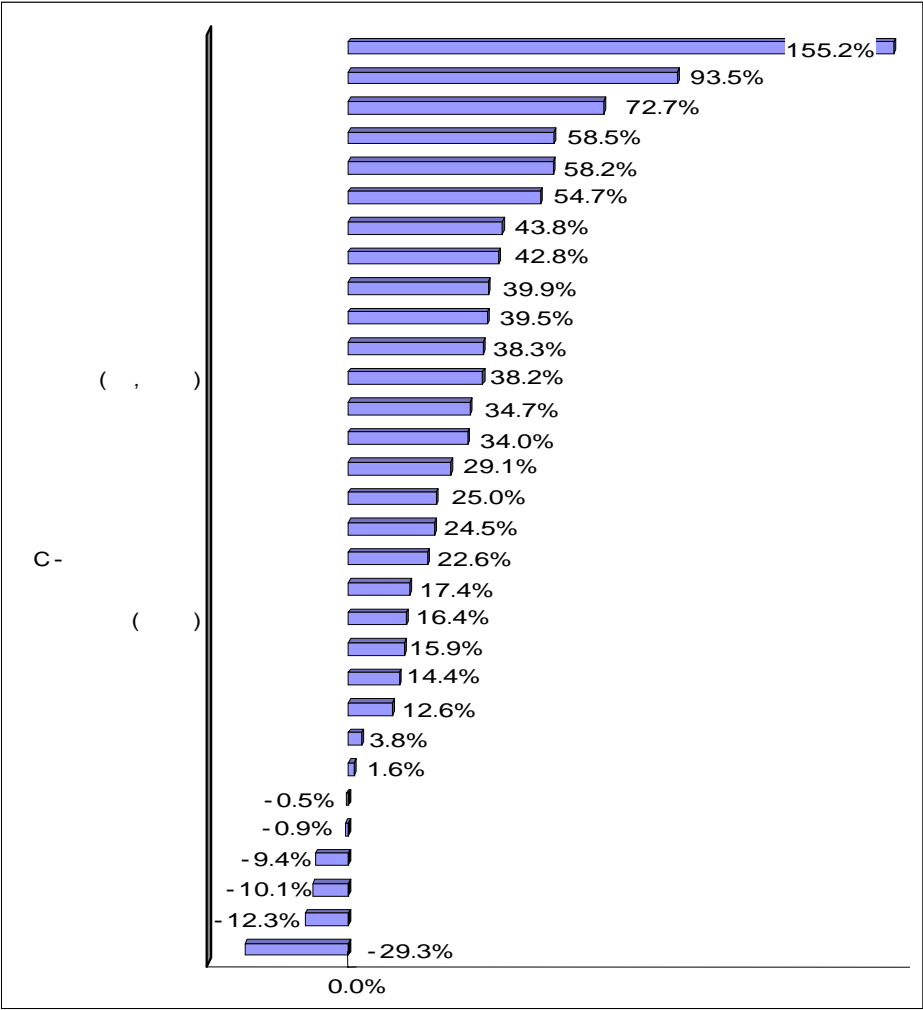


<자료> 서산시청,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2003.

이러한 철새를 통한 생태관광은 차세대 유력한 관광패턴으로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인터넷 예약 등으로 관광객 수를 통제하고 또 생태관광지역을 핵심 지역 또는 전이지역 등으로 나누어 생태관광자원의 보존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거나 경제력이 있는 관광객 그룹들을 유치해서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관광의 세부분야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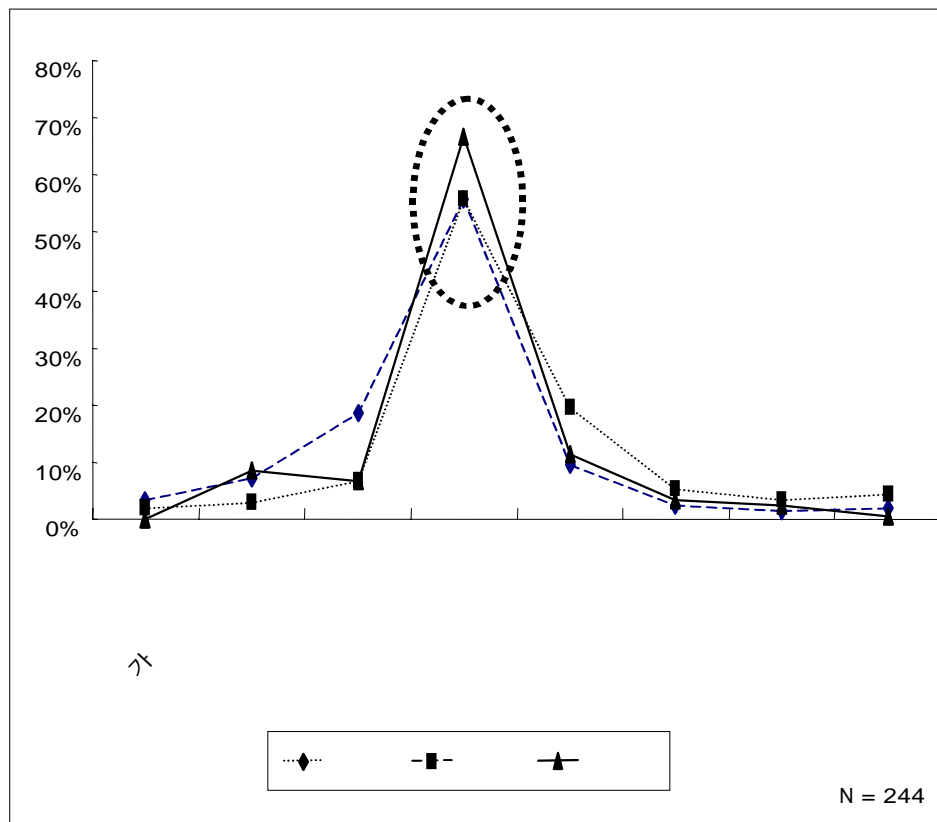
이에 우리 충남은 경남 창녕의 우포지역이나, 강원도 철원 지역에 버금가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이 증명이 되어 충남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림 2>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추이: 1982~3년과 1994~6년 비교



자료: ABA,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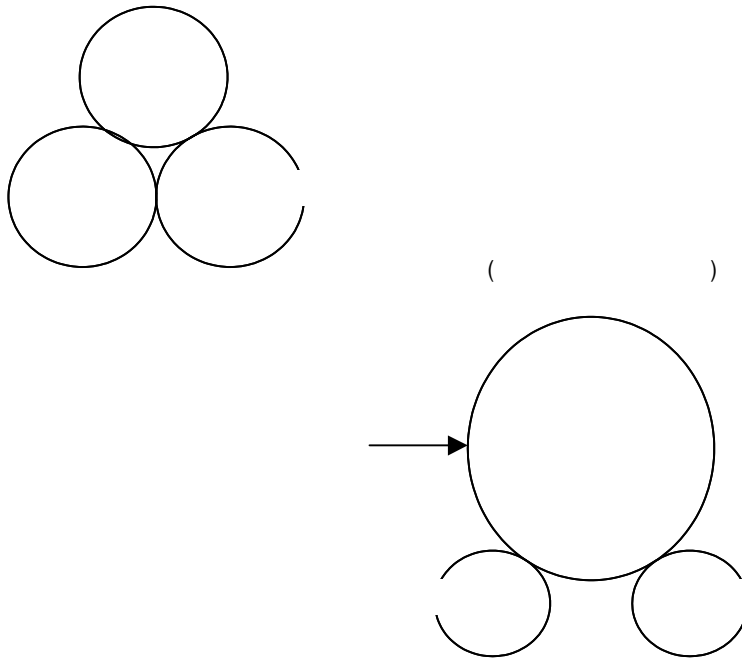
<그림 3>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자료> 서산시청,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2003.

둘째로, 올해 ‘충남 방문의 해’라는 기회를 통해 각 시군이 잠재성있는 관광요소들을 특정시점으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관광적인 관점에서 평상시 경쟁력이 미약한 요소들일지라도 많은 요소들을 특정 시점에 집중시킬 때 기대되는 관광과급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충남 홍성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산재해 있지만은 금산 인삼처럼 어느 특정한 아이템(Item)이 크게 부각되어있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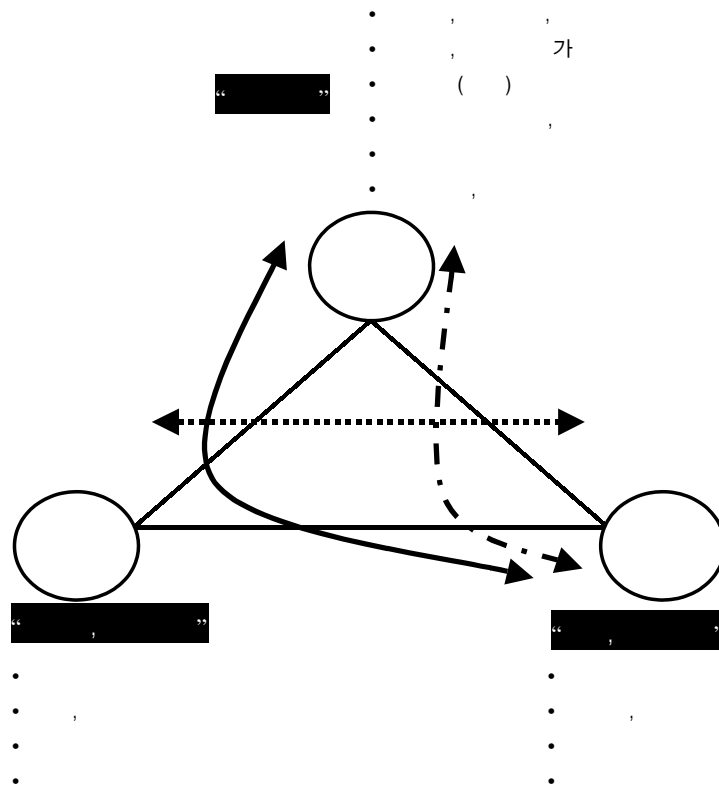
()



<자료> 홍성군청, 「홍주향토문화축제 개발연구」 2003.

그러므로 충남 홍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토굴 새우젓 축제, 한용운 선생을 테마로 한 만해제 등의 지역축제를 2003년도 ‘충남방문의 해’에는 10월 한달에 모두 집중시켜 ‘홍성 방문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최소의 예산을 들여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월 ‘홍성방문의 달’의 준비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자면, 세 개의 축제 중 8월에 개최되고 있는 ‘만해제’만을 10월로 이전시키면서 이미 10월에 개최되고 있는 남당리 대하축제와 광천토굴새우젓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프로그램 구성이 풍성하게 짜여져 있다는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축제 예산을 활용하여 홍성방문의 달을 활용하므로 이벤트 기획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림 6> 2003 10월 홍성방문의 달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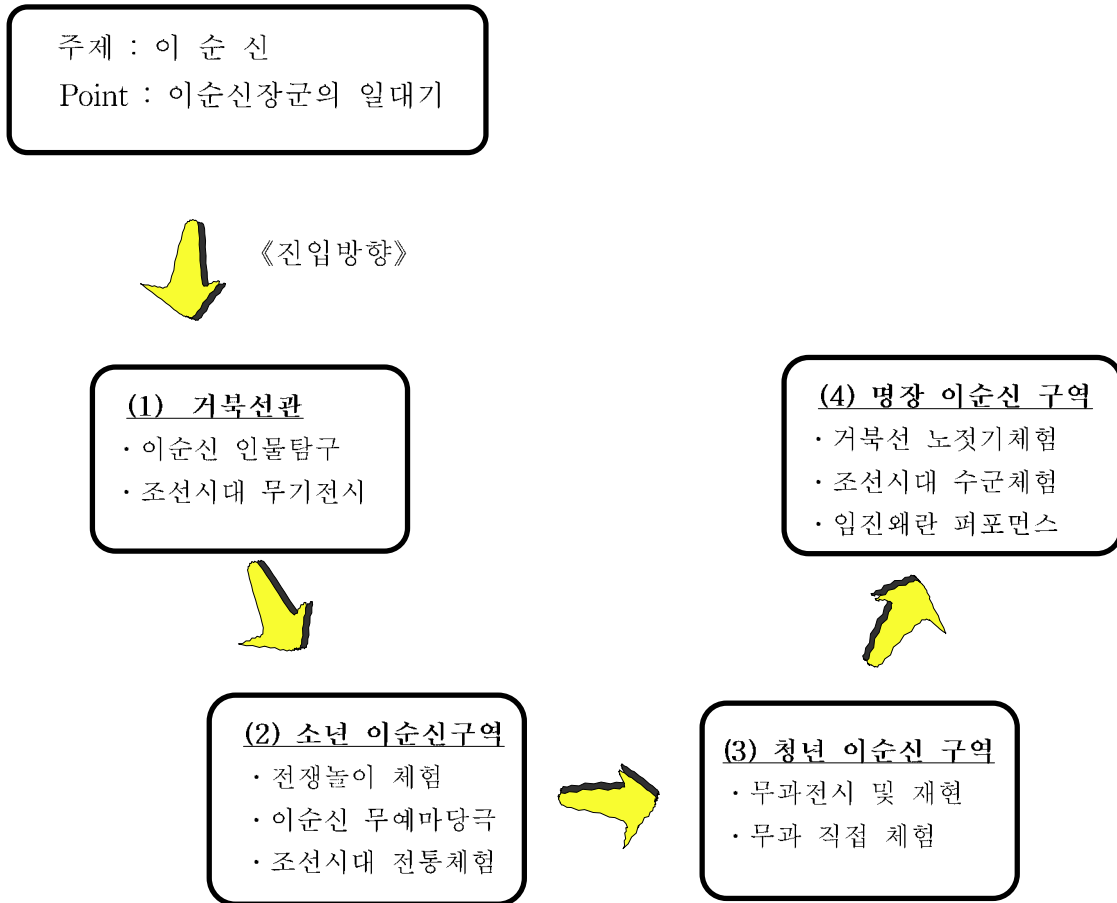


<자료> 홍성군청, 「홍주향토문화축제 개발연구」 2003.

셋째는, 충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낸 곳이고, 그러므로 역사 인물의 관광자원화 잠재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역사인물들의 문화유적화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관광자원화를 하지못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다시말해서 기존의 인물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상품화 노력은 아직 미비하고 그 이전단계인 문화유적(생사지복원, 기념비, 기념관건립)을 세우고, 추모식이나 제례식을 하는 등의 주로 엄숙한 부분의 문화화하는 접근노력으로만 시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정체되어있는 역사인물 문화유적지 방문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 있어서도 성인들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층들이 역사인물들에 관심을 가지도록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등을 한다거나, 인물관련한 교육관광이벤트를 구성하는 등의 인물관광 관광마케팅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충남 아산지역만 보더라도 성웅 이순신 장군은 물론, 청백리로 유명한

고불 맹사성 선생,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 선생, 토정 이지함 선생 등이 관련돼 있는 역사인물관점에서도 관광잠재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잠재성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아산의 ‘온양문화제’의 경우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축제이면서도 지금까지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노력이 미진하였다. 그러나 올해 제42회 온양문화제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온양문화제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고 이순신 장군의 인물 스토리메이킹 기법을 시도하여 교육관광축제로의 발전잠재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토리 메이킹 방식은 축제장을 축제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돌면서 인물들의 일대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편하고 즐겁게 보고, 즐기고, 체험하도록 구성된 기법으로서 온양문화제의 경우 이순신장군과 관련한 4개의 스토리메이킹 (Story-making)지역을 구성하였다. 첫째로 축제축제장 입구에 주제관을 설치하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물탐구, 조선시대의 무과, 무기의 소개 등으로 인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세 개의 테마구역(소년 이순신구역, 청년 이순신구역, 명장 이순신구역)으로 나눠 운영하였다. ‘소년 이순신 구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어린시절을 묘사한 ‘이순신 무예마당극’, ‘전쟁놀이 체험’, ‘조선시대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하였고, ‘청년 이순신 구역’은 이순신 장군이 무과 급제를 한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무과전시를 재현하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무과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명장 이순신 구역’은 신비한 거북선을 체험할 수 있는 ‘거북선 노젓기 체험’, ‘조선시대 수군체험’을 구성하였고, 조선시대 관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버리는 장면을 이벤트화한 ‘임진왜란 전투퍼포먼스’ 등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전체 네 개의 구역을 돌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각 시대별 이벤트관람을 통해 저절로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구성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장영실, 맹사성, 이지함 선생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주제로 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위의 사례를 활용한 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제42회 온양문화제 스토리메이킹(story-making) 개념도



<자료>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2002.

네 번째, 충남지역의 관광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개발 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관광상품화가 가장 잘된 관광패키지 라인은 서울-경주-부산으로 연결되는 경부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부라인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관광 패키지 라인을 충북 오성 바이오-대전 유성온천-충남 금산인삼- 전북 무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부권의 '건강관광벨트'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잠재성 있는 패키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개의 건강 바이오 관련 테마들은 각기 다른 네 개의 광역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어 관광패키지

로의 연계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광역 지자체간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연계 협력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관광 매력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업계에서도 충남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발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통한 1인이 다(多)역할 수행(Multi-role play)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부분의 경우 관광종사원들은 특정한 단일 업무 수행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 비수기나, 경제불황에 따른 인력감축과 관광성수기에 효과적으로 수요대응을 하는 큰폭의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어느 호텔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역할수행교육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다역할수행교육으로 인하여 일본 미야기현의 한 호텔의 관촉지배인은 관촉업무 이외에도 공항영접 업무, 야간 쇼핑안내, 객실 안내 업무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관광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종사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1인 다(多)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성 있는 인력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번째로 충남지역은 1994년, 2001년 한국방문의 해가 그러했듯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소자본을 투자하여 다양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벤트관광전략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한정된 자본으로 투자대비 다양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역축제 개선 및 문화관광자원화’가 시도되면서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소비적이고 예산낭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지역개발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벤트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이벤트관광의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충남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가 충남지역에는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강경갯갈추제, 온양문화제 등 5개나 지정되어 있어 전국의 최다지정 사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성공사례의 하나로 간주되어진다. 금산인삼축제는 올해 2005년 금산인삼엑스포로 가기위한 준비토대를 쌓아야 한다. 보령머드축제는 머드체험랜드라는 대형 하드웨어시설 도입으로 중요한 발판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서천모시문화제는 모시특색화를, 온양문화제는 이순신장군의 인물 스토리메이킹 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지정축제를 9개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하고 평가하고있는 점은 또하나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충남은 올해에도 적극적인 이벤트관광전략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독특한

지역문화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또한 지역 내부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제42회 온양문화제 기획에 관한 연구」 2002.

홍성군청, 「홍주향토문화축제 개발연구」 2003.

서산시청,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2003.

American Birding Association,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추이: 1982~3년과 1994~6년 비교, 2002.

서해안의 觀光據點을 위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방향

기획조정팀장 이 인 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인간의 관광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3차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과 온천을 연계한 국민휴양관광지 확충, 백제문화권의 관광자원개발 지속 추진, 농·산·어촌 및 해양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충청남도, 2002).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내 관광지 지정수는 2001년 현재 23개소에 13.195km²로 전국 면적 148,550km²의 11.7%로 해당하며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해안형 등 다양한 자원유형별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 지정된 관광지중에서 구드래, 태조산, 각원사, 곰나루, 금강하구둑 등 몇 개의 관광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60%이하로 개발이 추진되거나 관광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하기도 하고, 개발이 중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안면도에도 관광지를 지정하여 국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안면도관광지는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개최로 73만명 목표에서 164만6천명이 방문, 22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공적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급증 등 서해안의 관광환경의 변화는 서해안의 태안해안권에 거점 관광지를 조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안면도 관광지는 접근이 양호해지고 이미지가 제고되어 관광지 개발조건이 양호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장의 활용과 안면도 관광지구의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가 지연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립 등이 제약조건이 되어 관광지 개발의 촉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지 개발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촉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한다는 인식에서, 거점관광지 개발에 대한 제반이론을 고찰하고, 해안관광지 개발의 과제와 기존에 수립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관광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한 거점관광개발 이론의 검토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의 정의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의를 증진시켜 관광자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한 관광개발과 관광지 관리보다 더욱 균형있는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이 요구된다. 즉,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은 관광개발의 대상지역부문, 관광개발상의 공간관계, 그리고 관광지역의 발전형태(발전단계)는 세 가지로 요약되며, 이들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한다(前田勇, 1984).

특히,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형·분산형 공간배치로 양분되는데, 관광공간분포의 집적정도에 따라 관광공간체계가 달리 형성된다.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분산전략(dispersion strategy), 그리고 조합전략(combination strategy)으로 나눌 수 있다(P. E. Murphy,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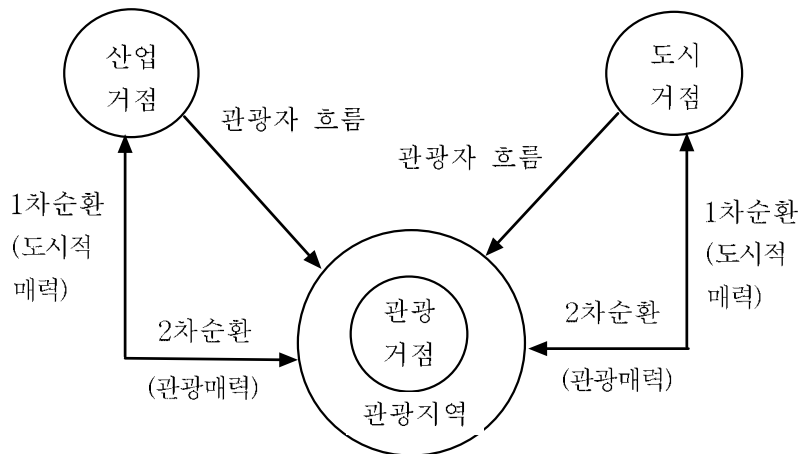
집중과 분산전략을 위한 거점관광개발에서 거점(centre ; pole)은 관광자 및 관광대상(관광자원과 관광시설) 집중으로 관광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누릴 수 있는 관광중심지를 의미한다(S. Smith, 1983). 따라서 거점관광지 개발의 의미는 광의로 거점관광개발대상(관광단지, 위락단지, 그리고 도립,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등)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이고, 협의로는 거점관광개발대상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현재보다 나은 지역관광자의 여가·관광욕구의 충족,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수행(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등), 그리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은 ‘장소정체성(place-identity)’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관광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장소정체성은 친숙한 환경에서의 추억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유지의 매우 능동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발전함으로써 결국 거점관광개발은 관광공급대상에 부여된 상징으로서의 관광자원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지역이 특정관광상품에 의해 특화되는 과정은 비교우위론적 입장에서 설명되어진다. 우선 거점관광개발지역이 다른 관광지역보다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 사이에서 지역관광활동이 능동적으로 조화·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점관광개발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집단, 그리고 민간부문이 각각 또는 조합적으로 그들의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적절히 확정된 관광지역 내에서 새로운 관광활동을 창출함과 동시에 관광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점관광개발에서 조화·조정 과정은 관광자의 흐름이 여러 관광지역 또는 관광지구로 이루어진다. 관광수요시장도 여러 도시를 형성하며, 관광공급대상지역도 역시 여러 관광거점(tourist poles)을 가지게 된다. [그림 1]은 단일거점으로 단순화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광자들은 물리적 또는 문화적 재균형을 위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전형적인 관광지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1]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거점의 조화·조정관계



한편, 거점관광개발은 관광지역에서 관광거점 자체가 가지는 내부적인 지역관광 성장 기능과 관광성장을 다른 관광지역으로 파급하는 외부적인 관광지 연계기능이 있는데, 두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관광성장을 유도하고, 관광성장잠재력을 다른 관광지로 확산시킨다. 둘째, 관광성장을 지속하는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공간적, 자원적 집적효과를 가진다. 셋째, 관광지의 고밀도 이용은 가격인하의 한 요인인 동시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적인 관광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전체 관광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더욱 빠른 관광성장률을 가진다. 다섯째,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매우 높인다. 여섯째, 지역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지역 관광이미지를 특화 시킨다. 끝으로 관광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관광지 마케팅전략을 수용한다.

한편, 관광개발형태별 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관광단지형은 개발목표로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등이 강조된다. 즉, 관광단지형은 개발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개발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개발목표의 설정도 단순한 관광자원개발적 접근보다 지역발전적 효과에 초점을 둔 특화적 관광자원개발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의 관광단지형은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및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등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강구되어야 한다(김홍운·김사영, 1996).

관광단지형의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제3섹터방식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공급요인과 관광시설의 적합성요인이 매우 중요시되며, 관광수요 시장요인은 여행동기와 여행거리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관광단지형은 개발접근방법상 개발기간이 장기적이고 개발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개발대상면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간구조론적 접근에서는 배치론적으로나 발전론적으로 매우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공간배치론적으로 집중전략을 따르지만 단지내에서의 관광대상 배치는 분산입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자원이나 매력물은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있기보다는 모여 있거나 연계되어 있을 때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나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지역별 관광지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기간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에서 반영하고, 지역내 전반적인 관광지 관리기능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관광지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간 협동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광역관리체계 하에서는 각 관광지는 개발정도나 이용도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져 과도한 관광지의 지정이나 단위 관광지별 개발경쟁을 억제할 수 있어 환경훼손이나 시설의 사업성 증대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 관광시설의 개발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 측면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 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근의 세도나이가 전지역에 걸쳐 인접지역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1) .

관광개발에 있어서 집중과 분산전략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집중개발에 기초한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은 규모의 경제 이점 및 확산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반면에 분산전략은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

에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공간입지의 관광개발을 통해 특정 관광공급대상지역과 여타 외곽관광지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조합전략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안면도와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에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거점관광개발에 의한 접근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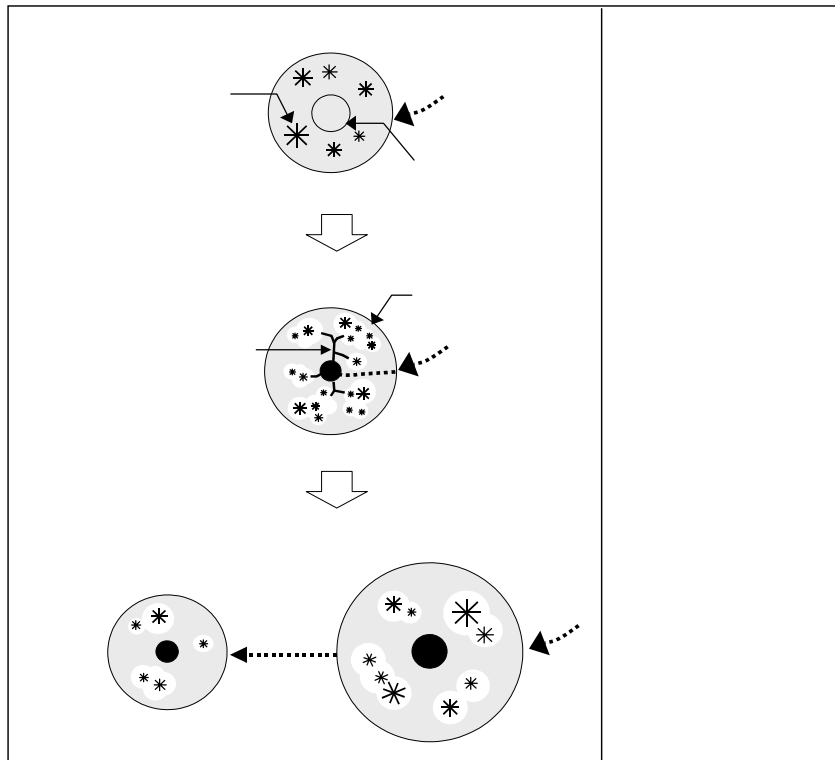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의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에서는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 관광지 중심의 시설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다한 시설개발로 관광객 저조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기존 관광지 투자의 기회는 물론 신규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비 등의 분산지원으로 공공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는 계절성, 요일성 등으로 단순히 성수기를 중심으로 시설개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시 현재의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다한 시설계획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거점 지역에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절성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반면, 거점지역 또는 거점관광지 이외 지역에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만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의 도입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개발 방식에 있어서 거점지역의 선정은 반드시 관광지일 필요도 없으며, 인근에 도시가 있는 경우 도시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관광지에서는 비수기로 인한 시설의 遊休化를 방지할 수도 있다(국토연구원, 2001). 이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안면도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꽃지지구를 중심으로 국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고, 주변에는 각종 민박형 숙박시설과 휴양시설들이 관광개발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의한 관광지 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게됨으로써 국제관광지 조성지구를 집중지구로 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하는 허니포트형(honey-pot)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꽃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지가 관광핵심 거점이 되고 주변의 관광자원간의 연계망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간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를 설정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역자원 특성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광개발의 접근개념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거점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 선정 절차도



자료 :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2001.

3. 안면도 국제관광지 촉진 방안

안면도 관광지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개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은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4계절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촉진의 기본방향은 관광개발과 관광지 계획이론과 해안관광지 개발이론,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분석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1) 안면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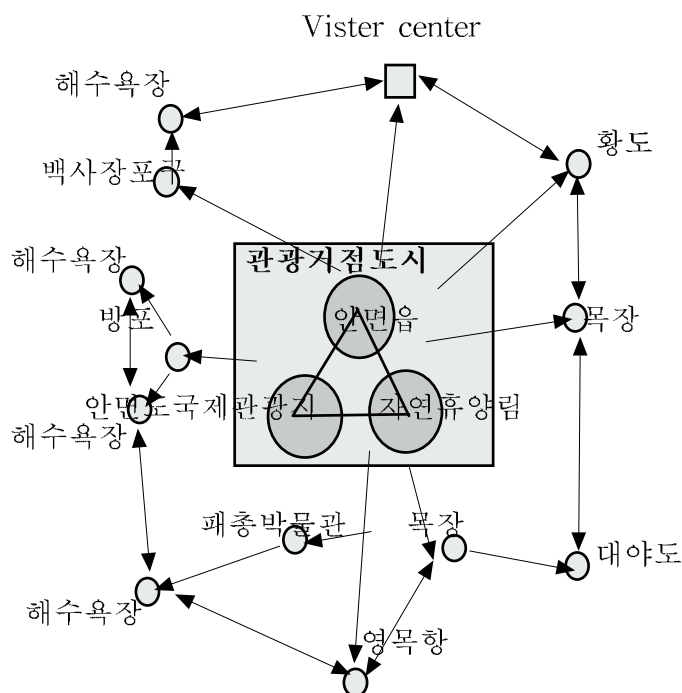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안면도 전체지역을 하나의 관광대상지로서 접근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안면도의 주변과 기능을 연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안면도의 관광시장에 적합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인근의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 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①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다한 시설개발에 의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여 집중과 분산을 조화시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3]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따라서, 안면도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꽃지지구를 중심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으므로 국제관광지 개발지를 집중지구로 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하는 허니포트형(honey-pot) 관광개발을 추진한

다. 특히, 안면도종합발전계획(1999)에서도 제안하고 있는바와 같이, 꽃지를 중심으로 한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관광핵심 거점이 되고 인접해 있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안면읍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안면도 관광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항포구와 해수욕장, 목장, 갯벌, 섬, 문화유적지 등의 관광자원간의 연계망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간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를 설정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면서, 송림과 해안에 있는 지역특성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관광상품화하여 마케팅 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 이미지를 제고하는 개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안면도의 관광이미지 제고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화훼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전시참가 32개국 178개 업체가 참가하고, 관람객은 72만명 목표에서 164만6천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익은 217억원에 화훼수출 4,617천불을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는 꽃박람회의 성공을 연례적으로 지속화하면서 꽃과 자연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관광지 개발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중 꽃지지구를 식물중심의 테마파크 지구로 개발하고, 여기에서 미니꽃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광장과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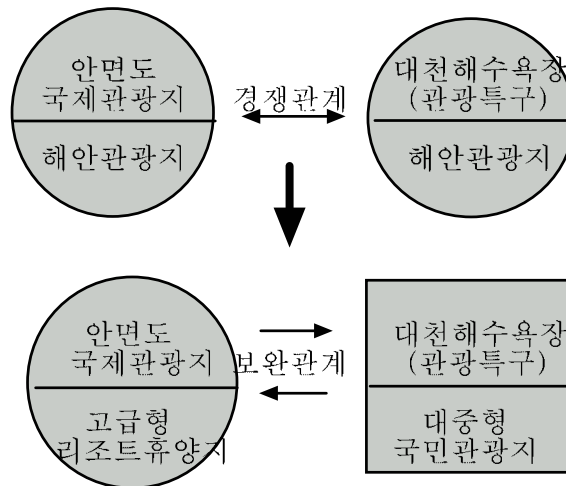
③ 안면도에 적합한 표적시장의 선정과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

최근 서해안권의 시·군별 관광객수에서는 보령이 14,104,100명 태안이 8,799,488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권에서 충청남도의 거점관광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곳 관광지가 동일한 해안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로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합한 표적시장에 의한 고급형 리조트휴양지로서 차별화된 관광지로 보완관계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령-안면도간에 연육교가 건설될 경우 상호간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관계로 보령의 대중형 관광지와는 관광객 표적시장을 달리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는

고급형 리조트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고, 보령은 대중형 국민관광지로서 개발하여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의 차별화 된 관광지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④ 안면도 다양한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와 이벤트 상품개발

안면도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자연휴양림, 항포구, 해수욕장, 기념물, 먹거리, 목장, 특산물, 섬, 등 다양한 관광상품과 꽃박람회, 대하축제, 황도붕기풍어제, 여름시인학교, 홍송축제 등의 이벤트 상품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현재는 개별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 꽃 이벤트와 민속 및 자연자원 테마별로 거점관광지와 연계시켜 관광코스과 이벤트 상품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해안관광지로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방향

① 공공의 공간을 중시한 개발방식과 사업추진

국내에서의 해안관광지 개발패턴에서와 같이 해안관광지내 기존 국·공유지나 해안매립 또는 공유수면해제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민간에게 전부를

매각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과 상호협력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공영개발의 사업방식보다는 높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안부의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통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관광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민이나 지역관련단체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당해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개방성을 중시한 해안환경과 경관보존형 관광지 개발

대천해수욕장 1지구와 같은 해변의 사유화에 의한 접근성 제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시킨 뒤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건축한계선을 해안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해변의 사유지내 건립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1층 평면부는 공공 공간화 하거나 오픈된 형식의 건축물을 권장토록 하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변토지 이용과 연계하여 규제토록 해야 하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도 일정간격 이상을 띄우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안의 과밀정도와 인공화를 예방토록 하고 그 간격을 시각통로로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안면도 관광지 계획에서 수립된 각 개발지구별로 해안선을 따라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해안선과의 거리를 고려, 완충녹지대로 방풍림지대를 조성하여 개발 추진 시 환경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③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지 개발지구의 도입기능 채택

해안관광지내에도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들(도서관, 전시 및 박물관, 중소규모의 의료시설, 수족관 및 휴식공원 등과 같은 문화·복지시설 등)을 도입·개발한다면 외래방문객만을 위한 관광지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버타운지구의 이주민단지와 마린월드지구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위락 및 공공 자원기능이 일체화 된 혼합용도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안관광지내 도입되는 시설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안면도 해안지역의 특성과 배후시장의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생태관광, 농어촌체험관광, 문화·역사관광, 노인휴양 및 회의산업과 같은 주제를 개발대상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킨다.

④ 지역특성과 연계하고, 환경특성을 중시한 토지이용계획 추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시 해안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개발지구, 유보지구, 개발금지지구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안지역의 환경의 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해안 환경보존을 특별해변지구와 개발이 가능한 일반해변지구로 구분·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꽃지해수욕장의 제방과 내륙으로 연계되는 사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 해변지구로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해안관광지로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 도입시설을 해변 안쪽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 해안선의 해수욕장은 제방설치에 의한 모래유실의 방지 및 복원 방법을 모색하고, 해안변에 사구가 형성된 지역에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3)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제도적 추진방향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 환경문제, 지역주민 참여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조례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적인 추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실천적인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한다.

①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 추진

안면도 관광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사업참여에 관한 사항,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

업주체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가칭「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에 외자유치에 관한 내용과 같이 합하여 통합하여 추진한다.

②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서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안면도 전체적인 지역개발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가칭「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로 설립·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단체와 주민, 환경단체, 지역관광협회 등이 참여되도록 한다.

이 단체에서는 안면도 지역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의 추진과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③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 작성

안면도 관광지와 주변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민자 및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를 작성하여 모든 관광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이는 가칭「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의 세부적인 실천지침으로 이러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추진할 경우 외자 및 민자유치에 의한 상호간의 계약과 이윤배분 등을 사업별로 협상하여 사전에 투자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5. 맺음말

문화관광의 시대에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관광거점 지역으로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로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의 접근 개념과 개발의 추진방식의 전환과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안면도는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객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안면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곳인가에 집중된 관광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중과 분산을 위하

여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보령과 차별화된 리조트 휴양지 형태의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면도의 전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개별 관광자원을 분산시켜 관광상품화를 시도해야 환경이 보전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서해안의 거점관광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맞고 있는 개발의 좋은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계획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여건과 앞으로의 변화에 적합한 개발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홍운·김사영 공저, 관광개발론-지역개발적 접근, 형설출판사, 1996.
2. 문화관광부, 2001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3. 이인배,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개발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0.
4. 임주환외, 관광지개발론, 백산출판사, 1998.
5. 윤양수,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 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6. 조재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변경, 1997.
8. 충청남도,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1999.
9. 충청남도,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2002.
10.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993
11. 前田勇(編), 觀光概論, 東京 學文社, 1984.
12. 除野信道, 觀光社會經濟學, 東京 斗南印刷所, 1985.
13. Clare A . Gunn, Tourism Planning. 1988
14. P. E. Murphy, *Tourism :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 Metheun, 1987.
15. S. Simith, *Recreation Geography*, London Longman, 1983.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육성방안

송 두 범(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장)

1. 서론

인구감소·고령화·부녀화로 공동화되고 활력을 상실한 우리 나라 농촌에게 던져진 핵심 화두는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어떻게 보전하며, 농촌주민의 소득을 어떻게 증대하고, 농촌다운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농촌-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농촌·농민이 안고 있는 입체적 어려움을 농촌 스스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하여 인구과소로 폐쇄화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대표적인 것으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농어촌발전특별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은 그린투어리즘 태동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¹⁾

그러나 지금까지 그린투어리즘을 대표하던 관광농원과 농어촌휴양단지 등으로는 농업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라는 측면을 담아낼 수 없다. 때문에 국토와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은 낙후된 농업·농촌을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와 복지향상’,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유희농지활용’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시범마을 중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및 농가단위 그린투어리즘 현황 및 문제점, 추진실태를 분석한 다음,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2.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²⁾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지역, 연구자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어 또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2001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73.

2) 녹색관광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린투어리즘으로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는 용어로 농촌관광(rural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인간적인 관광(human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³⁾

영국(1997)⁴⁾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할 경우 ‘그린(green)’은 단지 ‘푸름(綠)’이나 ‘자연(自然)’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명의 존중, 자원의 적정이용, 다양함의 평가, 또는 모든 생물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린’개념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여러 가지 대상(예를 들면, 농업이나 환경 등)의 이해, 자기행동의 도덕성, 나아가 문제의 접근방법까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치관, 자세, 규범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박광순(1998)⁵⁾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연(자연성과 고장의 생활문화)이야말로 그린투어리즘의 무대요 자원(자산)이다. 둘째, 외부자본에 의한 대대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역민(혹은 자본)에 의한 자연의 재생산 법칙을 해치지 않는(친환경적) 범위내의 소규모 개발이다. 셋째, 도시인과의 교류(방문자의 농림어업의 체험과 호스트와의 개인적인 교분-리프트-정주)가 핵심이다. 넷째, 단체로 몰려와서 보고 스쳐가는 주유형(周遊型)관광이 아니라 가족 혹은 소집단이 머물면서 체험하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다.

이호철(2001)⁶⁾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우리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농업형태이다. 즉, 농업행위 그 자체를 상품화하여 하나의 장소에 고도로 집적한 형태로 농사체험과 농업환경까지도 스스로 상품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청(1999)은 광의의 그린투어리즘은 친환경적, 환경보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며, 협의의 그린투어리즘은 주로 농산촌지역에서 일어나는 관광, 즉, 농촌관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2001)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도시민은 여유 있는 휴식·휴양공간, 새로운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농촌주민들은 농산물판매(1차 산업), 가공사업(2차산업), 숙박·음식물서비스(3차 산업) 등 소득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농업관광과 농촌관광을 포함할 뿐 아니라 생태관광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강신점·김정연, 녹색관광, 1997, pp.27~28.

4) 강신점·김정연, 위의 책, p.27.

5) 박광순, 위의 논문, p.168.

6) 이호철, 앞의 논문, p.172.

7)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3. 그린투어리즘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그린투어리즘 정책 현황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취업이나 농업외의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기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앙정부 주도 농촌관광 관련정책의 주요사업은 <표 1>과 같다.

<표 1> 중앙정부주도의 농촌관광 관련정책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특 징	사업비	비고
농 립 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2억 18개마을	공모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	1억 9개마을	공모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15~20억 9개마을	공모
환 경 부	생태우수마을	생태우수마을 홍보	없음	공모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마을	어업 및 일상생활체험 및 지역주민과 교류	20억원 57개소	공모
산 립 청	산촌종합개발 사업	마을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특색있는 개발	14억원 240개마을	지정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대표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순창군과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 등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관광개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자치단체에 한정된 경향이다.

2)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문제점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문화관광개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고 대신 농림부(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관광정책은 첫째,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소홀하였고, 둘째, 농촌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의의를 살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⁸⁾고 할 수 있다.

4.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사례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농협의 팜스테이 등을 실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름마을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전통테마마을은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팜스테이는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등 4개 마을이다.

조사도구는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단위 및 농가단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마을단위는 체재시설, 체험, 교육, 생산 및 판매, 홍보, 네트워크,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농가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도입, 운영,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은 마을단위 체크리스트는 리장이나 그린투어리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지도자, 농가단위인터뷰는 그린투어리즘이나 팜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결과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마을단위⁹⁾ 및 농가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을단위

첫째, 대부분의 마을들은 기존농가에 부속한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음식물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방문객이 원할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편의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도시민들을 위한 농작업체험이 가능했으며 고추따기, 벼수확, 인삼파종 및 캐기, 배수

8) 박시현·송미령,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13.

9)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구단위로 지정되지만 편의상 마을단위로 정의하기로 한다.

확 등이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밤줍기, 매뚜기 잡기, 고기잡기, 고사리채취, 버섯 채취 등 마을특성을 고려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하여 마을지도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린투어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회 구성은 미흡하였으나, 대부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넷째, 대부분의 마을들은 외부에 자랑할만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방문객들을 위해 직접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 농축임산물 생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대도시 백화점등과 농산물을 계약재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마을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내 개별농장단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마을을 소개하는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이 미흡하고,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안내책자, 팸플렛 등도 발간하지 않고 있었다.

여섯째, 모든 마을은 군청·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과는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마을과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단체 등과 직거래 및 도농교류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일곱째, 대부분은 마을은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이 연구 및 자문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2) 농가단위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단위의 비즈니스이고 농가민박이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농가민박도입은 도시민들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이 계기가 되었으며, 창업시 법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나 민박내 음식물 제공 등의 경우 마을내 음식점과 갈등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창업시의 재원은 자체충당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가부업형태로 창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름철에 한정되는 계절적인 특수성과 농산물 판매와 연계가 어려웠으며, 단독농가 단위로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농가민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농가에서는 인터넷이나, 방문한 도시민들에 대한 환대 등을 통해 제방문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가민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경영교육은 선진지 현장체험을 통한 인식전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가민박에 대한 강의, 농가민박에 참여하는 농가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결성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가민박 홍보를 위해서는 농가 및 회원농가 단위 홈페이지, 농협, 행정기관, 방문자들에 대한 홍보 등의 수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농가민박을 이용하는 외부방문객들에게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농가민박에 대한 실천경험의 교환을 위해 농가민박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주들이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모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의 경우 우선,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는 농가민박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 등이었다.

3) 사례조사결과 문제점

충청남도 농가민박현황,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및 농가민박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연구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마을지도자나 민박경영자 등의 경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농가민박, 농촌전통자원 등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농촌활성화 운동으로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다.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농가민박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교육 등이지만, 아직까지 농가민박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곳보다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중관광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농촌체험 및 교육보다는 숙박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민박의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농작업체험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안내자를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이 마을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농촌지역에는 향교, 서원, 전통놀이문화, 문화재 등 유무형 전통문화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그린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대상마을 중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교육시설은 홍동면 문당리의 환경농업교육관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작목반과 유사한 형태로 농가민박을 실시하는 농가주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민박이 반드시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홍도마을, 수통리, 합전리 등의 일부 농가에서는 환경농특산물, 지역농특산물, 농특산물 가공품 등을 인터넷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있으나 농산물 직거래는 일부 선도농가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인터넷홈페이지구축, 홍보책자, 마을안내판 등의 홍보방안이 시급하다. 현재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홍도마을과 수통리 등에 농협홈스테이 마을지정안내판을 제외하고는 외부방문객이 지정여부를 알 수 있는 홍보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대부분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부전문가들로부터는 자문 등을 받고 있었으나,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과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홉째, 농가민박경영자들은 여름철에 한정된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투자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여름휴가철에 집중됨으로써 시설가동률이 낮은 겨울 등의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농가민박에 대한 투자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가민박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은 몇몇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방이나 빈집을 이용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인함으로써 일반가정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주변의 환경 및 경관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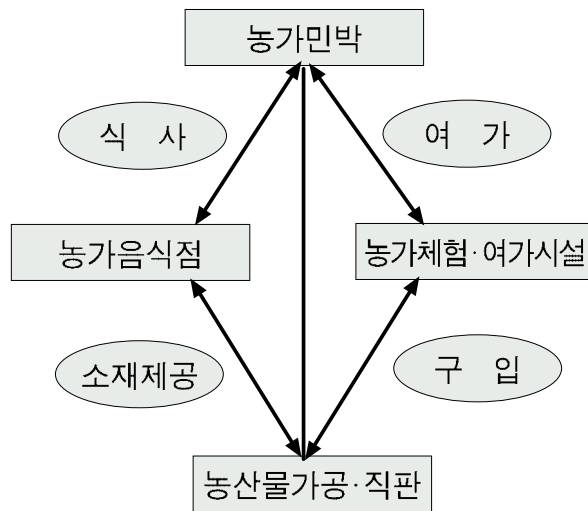
5.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1)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기본전제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농림업, 농지 및 임지의 보전과 진흥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며, 주민의 문화나 생활기반을 보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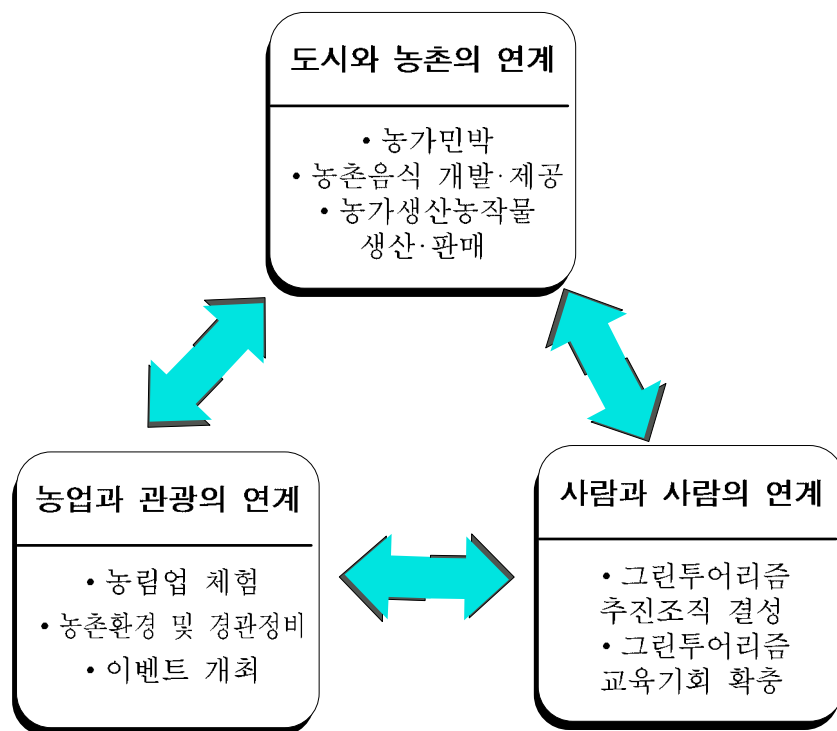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농림업에 매력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업·농촌’을 재구축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되, 그 목표는 ‘농촌다움의 창조’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주체가 된 민박, 농가음식점, 농가에 의한 체험·여가시설의 운영, 농축산물이 가공·직판이라는 4개 부문이 하나의 지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0) 산림청, 앞의 책, p.131.



[그림 1] 그린투어리즘 추진전략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도시와 농촌의 연계, 둘째, 농업과 관광의 연계, 셋째, 사람과 사람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 그린투어리즘 추진방안

2)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1) 도시와 농촌의 연계

① 농가민박

농가가 기존주택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이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가민박경영주의 환대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농촌전통체험활동, 농특산물의 직접판매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독세대, 노령부부세대 등의 거주하지 않는 빈방을 이용하거나, 시·군마다 산재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농가민박으로 개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되 숙박기능만 제공하고 음식은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방문객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농가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2003~2005년)로 농가민박실태 및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민박수용능력을 조사하고, 민박의 공급량을 판단한 다음, 민박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민박 및 지원조직을 결성하고, 민박경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방법, 체험프로그램 및 향토요리 등을 개발하며, 실시간으로 홍보·예약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2단계(2005년 이후)는 유럽과 같이 민박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충청남도 농가민박연맹(가칭)’의 가입기준과 등급결정기준 설정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해 민박서비스 품질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박단체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지원단체에 의한 자문·연수교육 등 민박경영자 육성, 민박정보 및 예약서비스확대 등 민박네트워크 확대, 자금지원 및 세제상 우대조치 등 민박경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농촌음식의 개발 및 제공

농가민박에서 일정인원의 범위 내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만약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법제화하여 농가민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유형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민박이라면 유럽에서처럼 민박소개책자나, 안내판 등에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표식을 하는 것도 도시민들을 위한 배려하고 판단된다.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향토음식이 분포하고 있어 농가민박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농가고유의 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모든 가구가 음식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숙박을 여러 곳에서 하되, 음식물은 한곳의 농가민박에서 제공하는 형태(예, 홍도마을)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③ 농가생산 농작물 생산 및 판매

마을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농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재방문률은 높일 수 있다. 또한, 농가민박경영주는 농산물을 방문객 및 인터넷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업과 관광의 연계

① 외부방문객의 농림업 체험

마을 내에 공동농장을 마련하여 도시민들을 위해 분양하는 주말농장형, 또는 그린투어리즘 농가에서 도시민들이 농작업을 체험하는 농장체험형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농작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말농장형의 경우는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입지한 농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농장체험형은 한 두 번 만의 방문을 통해서도 부담 없이 농작업을 체험할 있다는 점과 농촌에 체재하면서 농촌 및 농작업을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방안이다. 이러한 농작업체험이 환경농업과 결부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농촌환경 및 경관정비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농업경관은 매우 중요한 상품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경관 그리고 복원 및 창조해야 할 경관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형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환경 및 경관은 마을공동의 자산으로서 개별농가가 제공할 수 없는 농촌다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둔 마을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③ 이벤트 개최

그린투어리즘에서의 이벤트란, 농촌과 관련되어야 하며 농촌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을내에 이벤트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여부를 떠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주민들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이벤트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중인 마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개발에 노력하되, 특별한 특성이 없는 마을의 경우 그린투어 농가들의 학습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통한 이벤트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3) 사람과 사람의 연계

①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은 반드시 군·면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마을단위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그린투어를 추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를 중심으로 기존작목반을 활용하거나 학습회나 연구모임 형태로 구성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조직은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나 마을내 자치조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농가민박의 경우는 주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을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되, 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 추진조직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린투어리즘 교육기회 확충

농가민박 등 경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농가비즈니스적인 사고나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에는 그린투어리즘의 편익,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린투어리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방법,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환경질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책자(문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활용)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개최하는 방법, 그린투어리즘과 마을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농가민박 등의 경영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경영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사항과 고객확보 등의 마케팅, 접객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및 세금 등을 교육하거나 그린투어리즘의 실천경험을 상호교환하는 것이다.

3)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추진과제

(1)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농가민박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농가민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박업 대상자에 대한 규칙 제정시 현재 1년 이상 거주농민에 한정된 것을 현지 거주농민 외에도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박업 연합체 등이 고품격 농가민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등급지정 및 서비스수준 등 심사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규정하여, 민박농가의 발전을 유도하고, 농가민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농가민박뿐 아니라 농촌환경 및 농촌경관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규에는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 공원, 녹지 및 녹지대, 주차장의 설치, 방범등의 설치, 소방용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급수시설, 지하수의 채취, 도로, 우수 및 생활하수, 오수처리시설,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재 보전, 일조의 확보, 공해방지, 건축물의 기준, 옥외광고물의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의사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청남도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나 “○○시·군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구성, 농촌자원의 보존에 대한 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농가(민박농가)나 마을에 대한 재정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결성, 빈집의 활용, 농가민박이나 레스토랑의 등급구분 및 품질인증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기법 개발

농가부업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영하는 농가민박에서 벗어나, 농업과 관광을 어떻게 결합하고, 숙박시설이나 농가음식점업 운영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자리매김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을을 단위로 하여 지역전체에서의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소위 지역마케팅기법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는 농가민박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여행사·관광단체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생산자 단체·농업기술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등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우선 농가민박을 함께 하는 농가들과 횡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그룹들과의 종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주체의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담당자는 순창군의 경험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도나 시·군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은 농림수산물 농정유통과의 소관사항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을 위한 도차원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군의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는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이 가장 큰 시·군을 선정하고, 그린투어리즘을 구성하는 농어촌 민박실태(민박수용능력, 민박 및 팜스테이 실시농가, 향토음식개발 등), 농촌 및 농작업체험프로그램 등에 기초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또는 농가를 지정한 다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충남도의 그린투어리즘은 태동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 시책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조건이 있다. 시범마을·농가 지정을 통해 시행착오와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산과 등이 소관부서이고 충남도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 및 시·군 자체조사 결과 그린투어리즘을 시·군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할 경우 도계획과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을 분석한 다음 역량을 지닌 마을과 개별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도 및 시·군 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충청남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방안 모색,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및 농가민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례제정,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의 지원,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 합의도출,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시설의 정비 및 확충, 그린투어리즘 홍보를 위한 마을홈페이지 구축, 특색 있는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그룹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 그린투어리즘 실시마을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개별농가에서는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민박시설 확충,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능력 확보, 농가

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현장 확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의 정보교류, 그린투어리즘 관련 연구회 등에 가입, 그린투어리즘 관련 세미나·학술회 등에 참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 분	시책방안
충청남도 시·군자치단체	① 그린투어리즘 창업지원단(창업컨설팅그룹)의 구성 ② 충청남도 및 시·군 농가민박연맹 창립지원 ③ 농가민박인증제 및 등급제도 도입 ④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⑤ 도 및 시·군 차원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⑥ 그린투어리즘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⑦ 그린투어리즘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운영 ⑧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개발 경진대회 개최 ⑨ 그린투어리즘 추진센터 설립
마을공동체	①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 합의 도출 ②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 ③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시설의 정비 및 확충 ④ 마을홈페이지 및 안내판 등 홍보수단 개발 ⑤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 ⑥ 그린투어리즘 추진마을과 교류협력
개별농가	①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능력 확보 ② 농가민박시설의 정비 및 확충 ③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농장 확보 ④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의 정보교류 ⑤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및 학술회 등에 참가 ⑥ 개별농가 고유의 음식개발 및 제공 ⑦ 환경농법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와 시·군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을 위해서는 3자간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즉, 도와 시·군자치단체-마을공동체-개별농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린투어리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3자간의 연대는 처음에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어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차 마을공동체나 개별농가가 연계·협력하여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강신겸·김정연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 경성전문대학 관광농업연구소, 「관광농촌마을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 1995.
-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17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 김범수·이주희,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 농림부, 「그린투어리즘을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보도자료, 2001. 6. 14.
- 박광순,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九州北部地域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1호,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1998.
- 박시현·송미령,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산림청,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1999.
-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7. 5.
- 순창군,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1999.
- 유승우·최동주,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2001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이동기,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지방자치발전 및 행정개혁,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 임득춘,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아름다운 지역매력 부각,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2제2호(2001 여름), 2001.
- 정안성,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 전북 무조, 진안,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한국산림휴양학회, 2001.
- 조계현 외 공역, 녹색관광, 누리예, 2000.
- 행정자치부, 「21세기 새로운 농촌 만들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01.
- Dernoi, L. A., Prospects of Rural Tourism; Needs & Opportuni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0), 1991.

Gunn, Clare A., *Tourism Planning*, New York : Taylor & Francis, 1988.
Hill, Brian J., The Future of rural Tourism, *Park & Recreation*, September 1993.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http://www.milenium.pe.kr/ustour.htm>
山崎光博・中村攻・井上和衛,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 1996.

부여 관광기념품 개발 방안: 공예품 품목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The Strategies of Developing Tourist Souvenirs in Buyeo : Focused on Diversifying the Items of Handicraft Works

권 영 현*
Kwon, young hyun

I. 서론

고도의 산업 정보화 된 사회는 재화의 대량생산과 유통, 신속한 정보의 전달로 인간의 욕구충족이라는 가시적인 목적은 달성한 반면 소수가 간직한 다양한 개성은 도외시 된 채 산업·경제·지식·기술·예술 등 모든 분야가 획일화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디지털과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활용은 인간의 사고영역의 한계를 극대화시켰지만 인간미의 상실이라는 공허함을 가져다주었고 우리는 그 여백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을 갈망하게 되었다.

세계의 지구촌 화(Globalization)는 지구의 오지라 할 수 있는 티벳 에서도 본고장 맛과 재료의 햄버거를 맛 볼 수 있는가 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를 동시에 관전할 수 있는 놀라운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균등화와 지구촌 화는 초기부터 문화라는 이질적일 수 있는 파트너를 동반 했었고 급기야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문화적 측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위해 자아를 타인과 구분 지어주는 동기에 관심과 비용을 지불하며 만족을 느끼게 된다.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최근 시작되고 있는 토요일무제는 이러한 양상을 가속화시키며 대중의 여가선용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관광이야말로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리터렐은 그레 번과 스미스의 '행동론적 유형'에 기초하여 관광유형을 ① 민족체험형 관광, ② 역사형 관광, ③ 도시오락형 관광, ④ 야외스포츠형 관광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광의 유형이 이렇듯 휴식이나 즐기는 것 외에도 지역방문이나 역사 유적지, 박물관의 방문을 우선 꼽은 것은 역사적 문화요소가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해 줌과 동시에 이상적인 관광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여(사비)는 고대 백제(百濟) 성왕 때인 서기 538년 두 번째 수도인 웅진(공주)으로부터 천도하여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군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부여의 수도였던 지역이다. 금강가에 위치하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부여지방은 방어에도 적합했을 뿐 아니라 더욱이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으로 비친 고장이다(백제의 역사1995). 병영도시라 할 수 있는 협소한 웅진을 벗어난 사비는 원대한 꿈을 다시 펼치려는 의지였던 것이다. 백제는 삼국 중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백제보다 앞서 형성된 고구려는 대륙과 접하여 문물의 교류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잦아 북방세력과 남쪽 국가간의 완충역할을 하였고 후발국인 신라 역시 한반도의 한쪽 끝에 위치하여 문물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백제는 그 위치 상 중국대륙의 선진문물과 불교문화를 수입하는 해양통로의 관문이었으며 여러 기록과 발굴된 유물로 미루어 완숙하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수준은 1971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462~523)의 능이 발견되며 발굴 된 2,900점에 달하는 진귀한 유품으로 입증을 받았으며,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금동대향로(금동 용봉봉래산 향로)가 출토되면서 백제인의 고고한 정신세계와 절묘하고 세련된 감각과 솜씨를 재차 인정받았다.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의 가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산업 분야 중에서도 백제의 이미지나 정서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을 들 수 있는데 현재의 개발 사업은 부여가 간직한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유산, 그리고 잠재력에 비해 시도가 미흡했으며 마케팅 이론에 기초한 체계적인 상품개발이나 확고한 판매전략의 과정이 생

락된 채 상품화되고 있다. 이렇게 출시된 관광기념품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안목이 높아진 내국인 관광객의 기대와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과 현실 속에서 관광기념품의 수요자와 시장에 접근한 현실적인 연구와 개발방향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기념품 개발에 있어 일반 상품개발과 같은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나 시장의 이해, 소구자의 구매행동의 파악이나 홍보활동이 개발 주체인 제조업체의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태의 원인은 관광기념품 제조기업의 영세성과 신제품 개발능력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값싸고 조악한 품질과 디자인의 제품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음에 따라 고도의 문화적 상징제품으로서 관광기념품이 갖는 고유성이 왜곡되거나 감소 될 수 있다는 것이다(류지운, 1996). 둘째,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역사적 이미지나 정서와 같은 소재를 발굴 다용도로 활용하지 못해 정작 상품화해야 할 요소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소재를 토대로 다양한 계층과 취향을 지닌 관광객의 안목과 수준에 적합하며 활용성을 지녀 관심을 갖고 선택하여 구매라는 최종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매력을 끄는 상품군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여의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위하여 먼저 관광기념품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광기념품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살펴본 후 지역의 관광기념품의 유형을 분석하여 현재의 경향과 품목별로 다양한 상품군이 구비되었는 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부여 관광기념품만의 독특한 개발방법을 정립하여 실제 상품개발에 지침이 되어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 관광기념품의 영역과 요건

1. 관광기념품의 영역

관광기념품의 영어표현으로는 'Gift' 또는 'Souvenir'라고 한다. 타인에게 증정하는 선물의 의미는 'Gift', 자신이 간직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Souvenir'를 사용하는데 구매목적에 따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으며, 관광기념품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도나 목적의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광기념품을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지닌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지에서 구입 또는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라고 함축적이며 적절하게 정의하고 있다.

관광 기념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관광 토산품과 관련 용어로는 ·기념품 ·토산품, 향토산품 ·공예품, 전통공예품, 산업공예품 등 ·민예품, 민공예품(민속공예품) ·특산품, 농림축림산 특산품, 향토 특산품 등이 있는데 서로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주체 마다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광 기념품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 의미와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관광기념품이란 공예품, 민예품, 토산품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관광지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고 관광지에서의 추억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기념품으로서 관광객이 취득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관광연구원, 1997).

〈표1〉 공예품과 민예품의 품목 비교표

공예품의 종류	품 목	민예품의 종류
인형, 수예품, 민속의상, 매듭, 실크 가방, 자수 등	섬 유 (纖維)	인형, 수예품, 민속의상, 매듭, 실크 가방제품, 자수 등
목각 (인물, 동물, 용기, 장신구) 가구 (고전가구, 화각공예) 등	목 (木)	목각 (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 (고전, 화각) 등
나전칠기, 건칠 공예 (화병류, 합류, 상류, 쟁반류, 용기류) 등	칠 기 (漆 器)	나전칠기, 건칠 공예 (화병류, 합류, 상류, 쟁반류, 용기류) 등
토기, 토령, 민속 도자기 (청자, 백자, 분청), 공업 도자기 제품 등	도 자 (陶 瓷)	토기, 토령, 민속 도자기 (청자, 백자, 분청), 공업 도자기 제품 등
석각제품 (화병, 용기, 석등, 동물상, 장신구 등), 베틀 등	석 (石)	석각제품 (화병, 용기, 석등, 동물상, 장신구), 베틀 등
옥, 휘석, 귀석, 산호, 수정 등의 장신구, 양식 진주제품 등	보석 (寶石)	금, 은, 동 합금, 칠보제품, 모조 장신구류, 금속 및 비금속류의 실내장식 용품 등
금, 은, 동 합금공예품, 칠보제품, 모조 장신구류, 금속 및 비금속류의 실내장식 용품 등	금속 (金屬)	
유리 세공품, 구슬백, 인조진주 등	초 자 (硝 子)	유리 세공품, 구슬백, 인조진주 등
죽세공품, 부채 (합죽선, 태극선 등) 돛자리 등	죽 세 (竹 細)	죽세공품, 부채 (합죽선, 태극선 등) 돛자리 등
인초, 오나초, 옥초, 수세미, 맥한, 갈저,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 등	초 경 (草 莖)	균초, 완초, 옥초, 수세미, 맥간, 갈저, 사초벽지, 저마제품 등
우피, 양피, 사피, 만피, 인조 피혁제품 등	피 혁 (皮 革)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 피혁제품 등
한지, 지공예품, 조화, 지등, 지우산 등	종 이 (紙)	한지, 지공예품, 조화, 지우산 등
휘장, 우모, 수각, 패각, 부착화 (보석, 콜크, 석화), 수실 인쇄물 등	기 타 (其 他)	휘장, 우모, 수각, 패각, 부착화 (보석, 콜크, 석화), 수실 인쇄물 등

자료: 한국공예협동조합 연합회, 중소기업청, 1996.

위의 표는 한국 공예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규정한 공예품의 종류 (왼쪽)와 중소기업청에서 규정한 민예품의 종류 (오른쪽)를 비교 제시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품목임에도 공예품과 민예품이라는 구분되어지는 용어로 호칭하고 있다. 공예품이란 ‘기능공이나 숙련공이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공작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① 생산지역의 전통적 예술적 특징과 ② 가내 수공업적 특징 및 ③ 장식적 특징을 가진다(공예협동조합 연합회 자료, 1996).’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예품과의 민예품과의 차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왕골을 재료로 농가에서 농촌 일감의 방편으로 돛자리를 짰다면 이것은 민예품의 범주라 할 수 있으며, 직업적인 장인이 다듬고 디자인하여 화문석을 완성했다면 이는 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숙련된 장인에 의해 예술성이 가미되어 제작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중세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명되어지던 초기 ‘신기술’을 활용한 음성적인 돈벌이 중 하나로 인쇄된 양피본을 마치 필사본 인양 현혹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서적판매상들이 활동하던 적이 있었다. 당시 고가 품이라 아

무나 쉽게 소장하기 어려운 양피 필사본(Codex)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이런 류의 현상이 부단히 반복되고 있다. 공예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공 공정과 제작기계의 발전은 장시간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단품(單品)을 만들어내던 수공업 형태의 공예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량의 복제품을 생산하게된 산업공예로의 체계 변화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존립과 계승이 어려웠던 공예업 종사자들에게 활로를 주게 되었고 일반 대중들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문화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産業公예품과 手公예품이 엄격히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명확히 구분 지을수 없음에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手公예품이라 하더라도 제작 전과정을 手작업 만으로는 완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특징이 되거나 비중이 있는 공정은 반드시 手작업을 통해 완성해야만 함에도 기계가공을 남발하여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産業公예품이 手公예품에서만 볼 수 있는 미묘한 특성까지도 살려 제작하기 때문에 그 구별이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속이나 목공예는 물론 도자 공예품을 구매 시 일반 관광자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수공예품이 점차 입지를 잃어가면서 관광자의 상품 선택의 폭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완전 手公예품은 그 제작이 어려운 만큼 그 가치는 보장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확고하게 그 시장영역이 형성되며 모든 공예품의 대표성을 지녀야한다.

아래는 관광기념품의 영역을 간략하게 잘 설명하며 품종과 종류를 구분해 놓은 표이다. 다만 공예품을 産業公예품과 手公예품의 양분에 그치지 말고 중간 성격의 ‘반수공예품’ 영역을 첨가하면 공예품의 그레이드의 인식이 확실해져 구매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선택이 용이하며 합리적인 가격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표2〉 관광기념품의 종류

품 종		종 류
공예품	산업공예품	모형틀 (디자인 원안)에 의한 대량생산품
	반수공예품	주요 공정은 수작업에 의한 다량 생산품 (첨가)
	수공예품	장인에 의한 생산품
일상용품	공산품	의류, 신발류, 피혁제품, 문구류, 보석류, 완구 장신구, 생활용품, 신변잡화 등
	식품	인삼, 민속주, 한과 등 과자류, 농수산물 가공품 등

자료: 문체부, 1996

2. 관광 기념품의 개발 유형과 요건

관광 기념품을 분류에는 외형적 분류보다는 표적시장(Target Market)을 겨냥하고 이루어지는 구매의 목적 유형에 따른 분류가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이 다른 순수미술과 구별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합목적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처럼 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개발방향을 설정하면 개발과정이 체계적이고 순조로운 진행으로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목적에 따른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訪韓 外來 觀光客에 의한 구매 ② 國民 旅行客에 의한 구매 (內國人) ③ 外國 訪問 旅行客이 선물용으로 구매 ④ 外國으로 수출하는 용도로 나눌 수 있다(한국관광연구원, 1997).

첫번째는 방한한 외국관광객에 의한 기념품의 구매로서 한국, 지역적 특성이 충실히 표현되어야 하며, 일상

용품 보다는 오랜 기간 간직할 수 있는 고급 또는 적합한 소재의 상품이어야 한다. 관광기념품은 고유성을 지닌 가시적 증거물로서 관광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고유성에 관련된 상징물로 기념품을 구입한다. 관광기념품은 여행경험을 증명하고 기념품을 통해 사람들은 여행경험을 대리 체험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류지운, 1996). 또한 선박, 항공기의 탑승과 원거리 이동과 세관통과에 따른 휴대의 용이성과 상품 자체 또는 포장구조 또한 견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내국인을 위한 관광기념품의 특징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라는 행동유형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이 경우에는 다소 부피가 부담스러운 식품류나 자기류도 무난 할 수 있다. 세 번째 외국 방문 여행객의 선물용으로, 부피가 적어 휴대에 간편하고 토속성 이나 지역 색채가 강하면서 가격은 저가 수준의 가격대인 개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용은 현지 에이전시가 구축 여부를 감안하여 방한 외래 관광객이 부피나 파손의 부담으로 구매하지 못했던 품목이 적합할 것이다. 도자기류, 부피나 중량이 있는 공예품과 식품류도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격대는 고가와 중가격대의 다양한 가격대로 선택의 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에 따른 구분 외에 기념품 자체의 성격이나 용도로써도 구분될 수 있는데

① 시각적 이미지 기념품(Pictorial Images)

가장 일반적인 기념품 형태로서 그림엽서가 대표적이며, 스냅사진(Snapshot), 사진, 도록(Illustrated Books), 특별한 장소의 기념물이 그려진 카드, 스케치, 등이 포함된다.

② 자연물 기념품(Piece-of-the-Rock Souvenirs)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재로서 대평원의 잔디, 해변가의 조개껍질, 소나무숲의 솔잎, 사냥을 통해 얻은 짐승 노획물, 자연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물들은 원래의 장소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나 일상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기념품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③ 보편적 상징기념품(Symbolic Shorth and Souvenirs)

일반적 제조품으로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환기를 야기 시키는 문자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프랑스의 에펠탑의 미니어처 같이 특별한 장소의 상징적 기념물이나 실제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④ 표상기념품(Marker)

그들 자체로는 특정장소나 사건과 관련이 없으나 특정시간과 장소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포함된다. 티셔츠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나 특정장소의 이름이 적힌 경우 좋은 기념품이 된다. 관광지의 그림이나 이름이 적힌 볼펜, 라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⑤ 지방특산 기념품(Local Product Souvenirs)

토속음식과 토속음식에 관련된 용기 및 소품류, 민속주, 민속의상, 민속공예품 등 지방 고유의 전통이 담긴 기념품이 포함된다.¹⁾

관광기념품이 다른 상품과는 차별력을 보이며 개발과정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대표적인 성격의 하나로 바로 고유성을 들 수 있다. 고유한 기념품(Authentic Souvenir)이란 대량 생산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상표만 바꾸어 판매하는 복제품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진품'을 뜻한다.

리터넬은 1933년 미국의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3개 주의 1,964명의 관광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의

1) Beverly Gordon, "The Souvenir: Messenger of the Extraordinary",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20, No.3, 1988, pp140-143을 재인용

고유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²⁾ 이 조사에서 나타난 관광기념품의 고유성에 관한 정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독특성과 창조성 (Uniqueness and originality)

독특성과 창조성을 고유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받았으며 '모조품, 복제품,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닐 것'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장인정신 (Craftsmanship)

대부분의 응답자가 장인정신을 고유성의 개념으로 꼽았다. 장인정신은 '손으로 만든 것', '정선된 원료', '오랜 제작기간', '섬세한 마무리'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세련된 기교와 정선된 원료를 소재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작업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관광기념품의 장인정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③ 역사성·문화성 (Culture and Historic Integrity)

고유성의 개념으로서 역사성과 문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는 '디자인과 모티브가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것', '그 지방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 '지역성이 있는 것'을 고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심미성 (Esthetics)

심미성은 개인적 취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통적 디자인 색채'를 고유성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⑤ 기능성과 실용성 (Function and Use)

고유성의 개념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관광자의 경우 여행경험이 풍부하며 가정소득이 상위권의 젊은 계층이 대부분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기념품이 갖추어야 할 고유성에 관한 항목은 시공간이 다른 현재의 우리 관광기념품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광기념품이 갖추어야 하고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는

- ① 한국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반영한 것
- ② 감각이 있는 것
- ③ 지방산업과 결부된 것
- ④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이 무난한 것
- ⑤ 운송이나 휴대가 용이한 것
- ⑥ 부패성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관광연구원, 1997).

관광기념품이 갖추어야 할 고유성과 특성에서 양쪽 모두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인 지역적 특색을 언급하였으며 심미성과 감각이라는 요소도 들었다. 독창성과 미적 수준 지역의 특징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특성의 표현과 지역산업의 활성화, 물류성과 관광자의 행동유형에 적합한 형태를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2) M.A.Littrell, L.F.Anderson and P.J.Brown, "What makes a Craft Souvenir Authentic?".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0, 1993, pp. 197-215를 재인용

III. 실증 사례연구

1. 충남공예협동조합 관광기념품 분석

공주에 위치한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전시·판매되고 있는 관광기념품 중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재나 가공방법과 같은 외관상의 특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적으로 부여지방만의 기념품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소재나 품목의 제한 등 어려움 점이 있어 공주관광기념품인 공예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주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의 도시이며, 충청남도 지역의 관광공예품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관광기념품의 경향과 현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상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표3〉 충청남도 공예품 전시장 기념품 분석표

구분	품 목	구 분	부여기능		실제활용	재료가치성			지역특성			운반성			가격대		
			장식	중용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고	중	저
1	한국인의 미소	産業금속공예	●		장식용		●				●	●					●
2	양반, 부네	産業목공예	●		"		●				●	●				●	
3	얼레빗	手목공예		●	"		●				●	●					●
4	스프링 눈메달	産業금속공예	●		"			●		●	●						●
5	벼루	手식공예		●	실용, 장식	●			●			●				●	
6	연적	手도자공예		●	"	●			●				●			●	
7	머그잔 1	"		●	실용	●				●				●		●	
8	촛대	"		●	실용, 장식		●			●				●		●	
9	쌍용문양촛대	手목공예		●	"	●						●			●		
10	등잔	手도자공예		●	장식용	●				●				●	●		
11	항아리 1	"		●	"	●				●				●	●		
12	노리개	手섬유공예		●	실용, 장식		●				●	●				●	
13	타이핀 세트	産業금속공예		●	실용			●	●			●					●
14	향로	手도자공예		●	실용, 장식	●				●				●	●		
15	주병세트	"		●	실용	●				●				●		●	
16	차상	産業목공예		●	"		●				●	●				●	
17	병합통	"		●	"			●		●		●					●
18	접시	手도자공예		●	"	●				●				●		●	
19	항아리(달마)	手목공예		●	장식용	●					●	●				●	
20	항아리(만수무강)	"		●	"	●					●	●			●		
21	항아리(무심)	"		●	"	●					●	●				●	
22	항아리(용)	"		●	"	●					●	●			●		
23	무령왕관식	産業금속공예	●		"		●		●			●				●	
24	무령왕비관식	"	●		"		●		●			●				●	
25	쌍합 보석함	手목공예		●	실용		●				●	●				●	
26	목걸이(은제)	産業금속공예		●	"		●		●			●				●	
27	향꽂이	手도자공예		●	"	●				●			●			●	
28	청동제필통	産業금속공예		●	"	●					●	●			●		
29	다기세트 1,2	手도자공예		●	"	●				●				●	●		
30	영락잔세트	"		●	"	●			●					●		●	
31	탑조명	手목공예		●	"		●		●					●	●		
32	새동팔찌	産業초자공예		●	"			●	●			●					●
33	청동항소	産業금속공예	●		장식용		●				●	●			●		
34	휴대폰줄	産業기타공예		●	실용			●	●			●					●

큰 구분은 품종을 産業공예품과 手公예품으로 나누고 종류로도 구분하였다. 부여기능은 본래의 용도가 장식적인 기능인지 실용적인지로 구분했고 실제 활용되는 기능을 알아보았다. 재료의 가치성은 반드시 고가 재료의 사용보다는 해당 품목에 적합한 재료인가와 공정의 난이도를 살펴보았다. 지역 특성에서 충남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형상화 하였거나 소재나 공법 또는 브랜드에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의 정도를 나타냈다. 운반성은 휴대하기 편리한 구조나 포장 또는 파손되지 않는 견고성의 정도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가격대는 제품에 따른 절대적 가치보다는 10,000원 이하는 저가, 10,000~100,000원대는 중가, 그 이상은 고가로 나타냈다.

전시 판매되는 기념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자공예가 30%로 집중되어 있는데 계룡산 일원이 분청사기제작의 중심지인 점도 있지만 제품개발비의 부담이나 불안정적인 유통구조의 시장수요에 대한 손쉬운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手목공예 역시 특별한 설비투자나 몰드제작 비용없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금속공예부문은 몰드나 설비가 요구되는 상재적으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상품군의 형성보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내용 다음과 같다.

품목	手도자공예	手목공예	産業금속	産業목공예	手섬유	手석공예	産業초자	産業기타
빈도수(비율)	11 (32.4%)	8 (23.5%)	8 (23.5%)	3 (8.8%)	1 (2.9%)	1 (2.9%)	1 (2.9%)	1(2.9%)

〈표4〉 충남 기념품 전시장 품목 분포

용도	장식용 6 (17.6%)	혼용 4 (11.7%)	실용 24 (70.6%)
재질 및 공법수준	고급 17 (50.0%)	중급 12 (35.4%)	저급 5 (14.7%)
지역이미지	충분히 표현 10 (29.4%)	보통 11 (32.4%)	미흡하게 표현 12 (35.3%)
운반 및 견고성	양호 12 (35.3%)	보통 10 (29.4%)	미흡 12 (35.3%)
가격대	고가 10 (29.4%)	중가 17 (50.0%)	저가 7 (20.6%)

〈표5〉 충남 기념품의 분석종합표

부여기능에서 70% 이상이 공예품의 본래 목적인 장식성의 기능보다는 실용기능을 부여한 품목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기능에서는 장식과 실용을 겸한 상품은 6개, 장식용은 13개 품목으로 부여된 기능이 실용성을 띠더라도 실제로는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용되는 재료나 공법의 수준은 양질의 재료나 공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특성이나 이미지 표현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이미지나 문화유산의 표현보다는 한국이라는 보편적인 이미지나 분청이나 토기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특성을 전달하기에는 표현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운반성 및 견고성은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자기류의 경우 운반성과 파손되기 쉬운 특성으로 견고성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특히 외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 소량·경량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격대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가격대가 품목 중 절반을 차지하고 고가에 이어 저가의 순으로 나타나 매우 이상적인 구조로 보일 수 있겠지만, 브랜드화 된 명품이나 소형이면서도 고가인 경우보다는 크기와 가격대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주지역은 무녕왕능에서 출토된 유물을 주제로 하여 1998년 ‘문화상품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충남지역 기념품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관광 문화 기념품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34개의 표본으로 전반적인 구조나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상품군이 다양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생산업체의 영세성이나 유통체계의 미비, 시장의 파악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앞장에서 언급한 가장 핵심이 되는 구매목적

에 의한 4가지 유형의 표적시장 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 충청남도 관광기념품공모전 출품작 분석

2002년 6월28일 충청남도에서 주최한 제 4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출품작중 입상작 38품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공모전이 충남의 특징을 잘 표현해야 하는 성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징이나 정취가 잘 나타나며 품목은 공예품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과 기준은 앞서의 공예품 분석과 동일하다.

	품 목	구 분	부여기능			실제기능	재료가치성			지역특성			운반성			가격대		
			장식	중	실용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고	중	저
1	한산소곡주세트	식품(민속주)			●	실용		●		●					●		●	
2	왕자시리즈	手석공예			●	"	●			●			●				●	
3	주방목공예품	産業목공예			●	"	●					●	●				●	
4	주석장신구	産業금속공예		●		실용, 장식		●		●				●			●	
5	거북선 키드	"			●	실용성		●		●			●				●	
6	페이퍼나이프	"			●	실용, 장식		●		●			●				●	
7	삼죽다기세트	手도자공예			●	실용	●			●					●		●	
8	대나무용품	手죽세공예	●			장식용			●			●	●					●
9	지게, 쟁기	手초경공예	●			"			●			●	●				●	
10	고려인삼절편	식품(인삼)			●	실용	●					●		●			●	
11	필기구함	産業목공예			●	"	●					●	●					●
12	추사채봇통	手목공예		●		장식용	●					●		●			●	
13	생활용품	産業금속공예			●	실용			●	●			●					●
14	서해돌김	식품(수산물)	●			"		●			●			●			●	
15	장고, 북	産業목공예			●	장식용	●				●				●		●	
16	진통옹기제품	手도자공예			●	실용		●				●			●		●	
17	백제금동대향로	産業금속공예	●			장식용		●		●			●				●	
18	페이퍼나이프	産業금속공예			●	실용		●		●			●					●
19	구기자된장	식품(농산물)			●	"	●			●					●		●	
20	칠갑산국수	"			●	"		●			●			●				●
21	한과	식품(한과)			●	"	●				●			●			●	
22	서천김	식품(수산물)			●	"		●			●			●				●
23	가야곡왕주	식품(민속주)			●	"		●		●					●		●	
24	남포연	手석공예			●	실용, 장식	●			●			●				●	
25	백제의 역사	"	●			장식용	●			●				●		●		
26	모시제품	手섬유공예			●	실용	●			●			●				●	
27	끈술노리개	"	●			장식용	●				●		●				●	
28	영패목걸이	手목공예			●	실용	●			●			●				●	
29	백자다기	手도자공예			●	"	●				●				●		●	
30	틀모시 틀	"	●			장식용	●			●					●		●	
31	콩나물시루	"		●		실용, 장식		●				●			●		●	
32	그릇받침	"			●	실용		●		●			●					●
33	탁상사무용품	"			●	"		●				●			●			●
34	동제거울	産業금속공예			●	실용		●				●		●				●
35	칠기제품	手목공예			●	"	●				●		●				●	
36	죽염돌김	식품(수산물)			●	"		●				●	●				●	
37	뉴트라심메	식품(인삼)			●	"	●					●	●				●	
38	사과주	식품(민속주)			●	"		●				●		●				●

〈표6〉 충남 기념품 공모전 작품 분석표

출품된 입상작품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식품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다양한 형태로 출품되었는데, 인삼과 같은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과 내용물과 함께 용기도 지역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충남이라는 세분화된 지역보다는 보편적인 한국적인 정취나 이미지만을 내세운 유형이 다수였다.

품목	식품류	手도자기	産業급속	産業목공예	手목공예	手석공	手섬유	手초경	手죽공
빈도수 (비율)	11 (28.9%)	7 (18.4%)	7 (18.4%)	3(7.9%)	3 (7.9%)	3 (7.9%)	2(5.3%)	1(2.6%)	1(2.6%)

〈표7〉 충남 기념품 공모전 작품의 분포

용도	장식용 7 (18.4%)	혼용 3 (7.9%)	실용 28 (73.7%)
재질 및 공법수준	고급 18 (47.4%)	중급 17 (44.7%)	저급 3 (7.9%)
지역이미지	충분히 표현 17 (44.7%)	보통 7 (18.4%)	미흡하게 표현 14 (36.8%)
운반 및 견고성	양호 18 (35.3%)	보통 10 (29.4%)	미흡 10 (35.3%)
가격대	고가 1 (2.6%)	중가 27 (71.1%)	저가 10 (26.3%)

〈표8〉 충남 기념품 공모전 작품 분석종합표

공예품과 마찬가지로 부여기능은 출품작의 70% 이상이 장식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대상품목 중 실용제품일 수밖에 없는 식품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용품 위주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기능에서는 장식과 실용을 겸한 상품은 4개, 장식용은 8개, 실용은 26품목으로 부여된 기능이 실용에 거의 일치하는 점이 상품개발에서의 의도가 적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되는 재료나 공법의 수준은 양질의 재료나 공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특성이나 이미지 표현에 있어 공예품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미흡한 표현의 품목도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운반성 및 견고성은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자기류의 경우와 식품류의 큰 부피의 포장은 구매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대의 구조는 중간가격대가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고가는 1품목에 지나지 않아 현저한 중간 가격 위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작품 구성은 공주의 공예품 표본에 비해 지역 특성 표현이나 운반성 면에서 보다 이상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역의 특산물인 석재나 모시류를 이용한 관광기념품은 상품 자체로도 지역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능이나 가격대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는 편향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의 관광기념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남공예품 표본과, 공모전의 입상작 표본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품종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관광기념품의 품종은 크게 공예품과 일상용품으로 구분되며 일상용품은 다시 공산품과 식품으로 나뉘는데 공산품을 활용한 기념품이 일부 문구류(펜, 피크 나이프)나 주방용품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하다. 고전적인 의미의 토산품(기념품)은 가내 수공업이나 수공업에 의

하여 제작된 일반 공산품이나 장식품으로 한정된 의미의 제품으로 해석했으나, 현대적인 의미의 토산품은 일반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 특산물 및 일반음식까지 확대되었다(한국관광연구원, 1997). 이런 시장의 변화는 아래 표의 외래관광자의 기념품구매 유형에서 보여주듯 피혁제품이나 의류가 공예품 못지 않게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예품에 있어서도 수공예와 산업공예의 비중 각 품목마다의 비중이 조화 있게 형성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군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만큼 관광객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둘째. 다양한 수요층의 욕구가 충족된 상품개발이 없다. 각기 다른 구매형태와 목적을 지닌 관광객이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특히 외국관광자의 행동유형이나 구매 형태와 부합되는 상품군의 구비도 부족하다. 상품의 재질과 품질, 가치성, 크기, 견고성과 휴대성, 특히 마케팅의 핵심인 가격(Price)의 책정과 전략에서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담 없이 구매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중간 가격대 위주로 형성되어서는 다양한 수요의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폭 넓은 가격대를 갖춘 상품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특성의 표현이 미흡하다. 민속공예품은 문화관광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어 그야말로 그 지역의 문화를 상징화시킨 물품이라고 볼 수 있다(전명희, 1993). 단순히 일상적인 한국적 정취나 이미지만으로는 고유한 지역의 특징이나 정취를 담고 기억하는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인삼과 오석을 활용한 예나 민속주류가 두드러졌으나 지역만의 살아있는 민속과 고유성을 가진 소재의 발굴이 미흡하였다.

넷째. 기념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 관광자의 기념품 구매의사 결정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류지윤, 1996).

- ① 기념품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② 기념품에 흥미를 가진다.
- ③ 구매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다.
- ④ 상표 등을 살펴본다.
- ⑤ 기념품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 ⑥ 구매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 ⑦ 만족을 느낀다.

구 분	일 본	동남아	미 주	구 주
기념품구매	민속음식>관광지 기념품>공예품	공예품>의류 >엽서,서적	공예품>피혁제품 >의류	관광지기념품> 공예품>의류

〈표9〉 외래관광자의 국적별 관광기념품 구매 품목선호도

자료 : 류지윤, 관광기념품의 문화적 고유성에 따른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1996

이러한 관광자의 구매심리는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곳이 아닌 낯선 관광지에서의 기념품 구매, 특히 관광상품이 고가인 경우 4번째와 5번째 단계에서 부단히 갈등하게 되며 기념품에서 독특한 가치나 품질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구매의사 진행은 중단된다. 이러한 기념품의 질의 보증을 위한 품목별 또는 등급별 브랜드의 구축이나 공신력 있는 인증표시가 요구된다.

IV. 부여 관광기념품의 개발방안

1. 관광기념품의 소재

부여는 백제의 도읍으로 활발한 해외교류와 문화진흥으로 당시 앞선 문화라 할 수 있는 중국문화와 불교의 도래지이며 이를 독창적인 양식으로 재창출시켜 찬란하고 수준 높은 문화의 꽃을 피웠던 지역이다. 부여지역에 한정하여 전해지는 당시의 유물이나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를 가시화 하여 상품화할 수 있겠지만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다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충남전역의 고대 문화유산으로 확대하여 전개하는 것이 다채로운 기념품의 구성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부여 관광기념품의 소재 중 첫째 가시적인 소재로는

- ① 발굴된 고대의 유물이나 미술품의 형상, 미적 요소를 응용한 기념품
- ② 고대 불교의 유적이나 미술품을 형상화하거나 응용한 기념품
- ③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독특한 원자재나 제조 공법을 이용한 기념품

둘째 비가시적인 소재로는

- ① 부여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신재나 놀이를 응용하거나 겨냥한 기념품
- ② 역사적 사실이나 전승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기념품 (예: 계백 장군의 토기인형, 장기(체스) 등)
- ③ 지역을 상징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나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으로 개발하되 시·공간적인 범위는 시기는 고대를 중심으로 이후 시대까지 포함시킨다. 지역은 부여를 위주로 광범위하게는 충남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여 관광기념품 개발전략

- (1) 우아하고 수준 높은 백제의 이미지를 재창출한다.

재질의 고급화, 전통방식의 공정에 의한 수공예품이 중심이 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기획자, 향토사가, 브랜드네이머, 상품제작자, 제품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등 분야별 전문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는데, 조합별 전담위원을 두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 또한 요구된다. 산업예술품과 수공예품과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상업공예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좋은 재질의 사용, 철저한 끝마무리, 포장의 고급화를 통해 질 수준을 유지 개선하여야한다.

- (2)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한다.

출시된 기념품을 살펴보면 개발비용이 적게 소요되거나 생산 수량의 조절이 쉬운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상품군의 형성을 위해서는 업체마다 분야별 특성화가 필요하다. 가격대 역시 품목마다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기획이 필요하며 청소년이나 아동층을 겨냥한 브랜드나 캐릭터상품도 구비되어야 한다.

- (3) 자연친화 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재질은 시각과 촉각을 느낌을 전달해 준다. 백제의 이미지나 정서의 표현을 위해서는 목재, 세라믹(토기), 석재, 귀금속, 보석류, 섬유와 같은 재료의 사용이 적합하다. 이러한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은 관광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일상과의 차별화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부여 관광기념품의 성격

부여의 관광기념품은 백제의 유물이나 유적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는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색채가 짙은 상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요소를 활용한 사례는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금동대향로를 소재로 전개한 실물대의 정교한 재현품을 비롯하여 액세서리나 열쇠고리로 활용되는 축소형, 전돌이나 와당의 문양을 응용하는 목공예나 금속공예품을 볼 수 있지만 과연 1,500년 전의 미술품이나 문양의 사실적인 재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의 취향이나 미적 기준과 얼마만큼 일치되는지 간과되고 있다. 실물의 문화재를 마주 했을 때의 정취나 감흥이 재현품인 기념품을 보면서 동일하게 상기되는지와 기념품에 장식품용도 외의 기능을 부여했을 때의 일상용품으로 사용이 어색하지 않으며 문화적, 역사적인 요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이상적인지도 의문이다.

문화적 요소가 강한 기념품의 개발에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착수할 수 있다.

① 전통문화재의 재현성 상품 단계

문화재나 문양을 실물 그대로 재현하는 단계로 재료나 공법도 원형대로 재현하며, 원형이 크기가 큰 경우 정교하게 축소하여 제작하되 소형인 경우 가치 있는 재질을 사용, 고가격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용도는 장식성을 지니며 제작 방법은 수작업에 의한 소량 생산이 바람직하다. 개발된 기념품의 생명주기는 길게 유지한다.

② 전통문화재의 응용성 상품 단계

문화재나 문양을 응용하여 기능성을 부여한 단계로 재질이나 크기는 변형이 자유로우며 기능이나 용도가 부여된다. 전통문화재의 색채가 주가 되고 기능성은 부가되며 대량생산방식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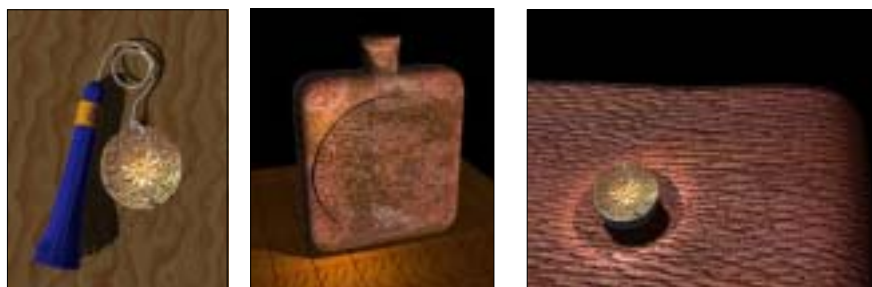
③ 전통문화재의 이미지를 활용한 개발성 상품 단계

문화재가 주는 이미지나 정취를 파악, 컨셉을 주어 새롭게 개발하는 단계로 전통이미지 보다는 기능성 비중이 큰 기념품이다. 기존 제품의 응용보다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바람직하며 주기적으로 컨셉을 설정, 새로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

④ 기존상품에 부분적 이미지나 브랜드로 활용한 상품 단계

전통문화재에서 추출된 간략하게 상징적인 이미지나 언어, 문자를 기존의 공산품에 활용하는 단계로 장식성은 최소화되고 기능, 실용성이 극대화된 기념품이다. 특히 지역의 특색이 있거나 대표적인 산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요소를 가미하거나 브랜드화 한다면 시장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1] 금동광배를 이용한 단계별 상품화방안



각각 재현성, 액세서리

로 응용한 제안, 주변 용도의 개발상품, 피혁제품에 브랜드 버튼으로 활용한 제안

V. 결론

부여의 관광기념품의 다양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부여만의 특성을 지닌 대표성 있는 특산물의 활용, 또 하나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산품을 기념품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부여라는 지역이 갖는 정체성이나 간직하고 있는 문화자산, 지역의 정서나 장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화·역사적 자원을 소재로 한 기념품의 개발이 타당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화·역사자원을 모티브로 상품화를 시도했거나 이미 상품화되어 시장에 출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백만원 대의 고가에 판매되는 문화재의 복제품, 의미 없이 온통 문양위주인 단순하고 진부한 기념품, 조악한 품질로 선뜻 구매하기도 어렵고 선물로 받아도 달갑지 않은 기념품, 이것이 관광기념품이 처해있는 실상일 수 있다.

부여와 같은 역사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경향이나 유행에 따라 갈 수도 앞서갈 수도 없이 정체성이란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먼 과거로부터의 유산을 현대인의 눈 높이로 해석하여 우리의 취향과 행동양식에 맞게 재창출한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작업은 아니다. 이제 단순한 복제나 재현의 차원에서 벗어나 부여가 간직한 소중한 요소들을 높은 안목과 끈기를 갖고 재발견하고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자세가 요구된다.

다양한 상품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되어지는 공예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예술적 수준과 품질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등급과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수공예품과 산업공예품 더 나가 공예품과 민예품의 차별을 두어야만 비교되는 가격대가 형성되고 다양한 상품군이 구비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기념품 품목 중 일부에 편중하여 개발되는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기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문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념품 제조업계의 현실이 이처럼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회적인 행사대신 지원방식을 지속적이고 다수의 혜택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세 번째로 관광기념품의 명품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희소성과 전통성, 최고의 품질의 갖추고 고가의 가치를 지닌 명품 브랜드의 육성전략이 시급히 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된 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많은 대학의 학과 중에 관광분야에서 이론적 접근이 전부이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소요되는 마케팅 적, 예술적, 상품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관광기념품 개발을 단순히 수익사업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전통과 문화를 애정을 갖고 이해하고 다듬어 가는 자세와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 천년이 흘러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을 만들겠다는 장인정신이 무엇 보다 절실하다. 이런 과정과 기반의 조성만이 살아있는 기념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인 것이다.

참고문헌

- 서태양/주선희 :내·외국인 관광객의 기념품 구매속성이 재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02.
- 장희정/유진이 “관광기념품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002.
- 서철현의 “외래관광객이 관광기념품으로 구매한 의류상품의 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2002.
- 박창수 “충청감영 관련 문화자원의 활용화 방안” 충청감영400년 학술심포지움, 2002.
- 이강일/이상락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2002.
- 권영현 “부여 관광 기념품 개발 방안” 한국관광학회, 2002.
- 허갑중 “관광 기념품 개발 활성화 방안연구”한국관광연구원, 2001.
- 장인정/엄서호 “관광기념품 소비가치가 충동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한국관광학회, 2000.
- 최승담 “관광기념품 선호도 및 개발활성화 전략” 관광연구논문, 2000.
- 이장섭의 “전통공예 문화상품 판매 및 유통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이장섭의 “전통공예품 전승 현황 및 문화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허갑중 “관광토산물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7.
- 유지윤 “외래관광자의 관광활동 유형에 따른 관광기념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996.
- 류지윤 “관광기념품의 문화적 고유성에 따른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6.
- 손대현 “한국 관광기념품산업의 촉진과 문화적 함축부여에 관한 연구”관광연구논문, 1995.
- 전명희 “관광 쇼핑상품으로서 민속공예품의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3.
- 국립공주박물관(2002),“금강 최근 발굴 10년 사”.
- 충남대학교박물관(2002),“박물관 문화상품 개발의 새로운 모색”.
- 충청남도(2002),“제4회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자료”.
-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의 새로운 모색” 충남대학교박물관심포지움, 2001.
- “문화관광진흥 대토론회” 한국관광연구원, 1999.
- “관광기념품 관련 참고자료”문체부 관광국, 1996.
-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 Beverly Gordon(1988), "The Souvenir:Messenger of the Extraordinary",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20, No.3.
- M.A.Littrell, L.F.Anderson and P.J.Brown(1983), "What makes a Craft Souvenir Authentic?".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0.
-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http://www.knto.or.kr>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http://www.esouvenirkorea.com> 한국관광기념품 홈페이지
- <http://www.kctpi.re.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홈페이지

21세기의 새로운 경쟁력,

충남의 농촌 전통문화 · 지식 자원

이 해 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공주대 교수)

충남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도정의 중요지표로 삼고 있고, 깨끗하며 인정미 넘치는 충남인의 정서와 이러한 농촌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다면 문화와 환경의 신세기에 이런 도정 목표는 더욱 잘 부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충남지역의 전통문화 중에서 전 국가적 보편성을 가진 백제문화나 기호예학 같은 경우를 논외로 할 경우, 정말 충남만의 강점과 차별성, 그리고 “충남스러움”들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 바로 우리의 농촌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고는 이 같은 충남의 농촌문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준비된 글이다. 더욱이 필자는 ‘그린투어’라든가 ‘녹색관광’ 등등 이러한 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자원화 ·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기본방향의 조정 필요를 느끼게 된다. 농촌문화자원의 가치와 의미의 제고 및 그 활용에 본고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1. 농촌은 전통 문화자원의 ‘종합전시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대부분 중앙 · 지배권력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대다수 민중들의 생활상이나, 중앙이 아닌 지역의 역사 · 문화는 폄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생업과 직결된 민중의 생활상은 시대 ·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런 만큼 구체성과 실용성을 지니고 있다.

요즈음 곳곳에서 청정과 생태, 환경 친화 등 자연과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혹은 당연한 일들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려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반갑고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시되고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역시 “사람들의 숨소리”와 “곰삭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 충남지역에는 바로 이러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낸 문화가 참으로 많다. 마을마다에는 자연과 향생이 가능한 지리조건, 여기에 곳곳에 인심이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 신앙과 민속문화가 민요, 농요, 민담, 지명, 두레조직 같은 민속문화유산으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한편 우리들은 고향 하면 흔히 출신지역을 꼽는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고향의 내음을 꼬집어 말하려 하면, 대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마을의 정취를 먼저 떠올린다. 곱어 도는 동구밖 길에서 우리는 고향을 숨결로 느끼며, 들녘과 골목길, 뒷동산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고향에서만 배어 나올 수 있는 향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우리문화의 실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과 문화였음에도 바쁘다는 핑계와 무관심 속에, 나아가 서구문화에 동화되면서 이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해왔던 것이다.

월드컵 4강과 붉은 악마의 신화 뒤에는 우리의 오랜 농촌문화가 기반이 된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버티고 있으며, 올 여름의 극심한 수해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적 지식에 앞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발견한다.

감나무 곁에서 땀과 흥과 홍시, 꽃감은 물론이고 차와 짬아찌, 염료까지를 만들어낸 지혜는 물론, 감나무와 관련된 지명과 설화, 민요까지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종합문화성’을 나는 농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농촌 = 한국의 전통마을”은 한국적 전통 생활문화의 보고이자 ‘종합전시장’이자 지식정보의 총화였다고 할 만하다.¹⁾

“두레”로 상징되는 농촌의 공동체 문화도 ‘모듬살이의 지혜’이자, ‘공생(共生)의 지혜’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과 객관적, 합리적 논리 때문이라기 보다 오히려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情)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화였다. 또 그것은 오랜 동안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었던 전통이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문화는 공동체 문화이자,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총합으로 오랜 동안 지속된 만큼 실용성과 구체성을 생명으로 한다. 관념·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적이었던 것이다.

농촌은 각기 특수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발전하여 왔고, 그에 따른 문화상들을 종합적 결과물로써 간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생활문화를 정리함에 있어서 농촌문화는 ‘공동체문화의 기본 단위’이고, ‘실질적 사회생활의 울타리’이며, ‘다양한 사회관계가 구조화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주목받는다.

2. 특성화 차별화된 지식정보, 문화자원

농촌의 문화는 생활경험과 지속성, 그리고 삶 속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지식이며, 문화라는 점에서 매우 경쟁력이 크다.

문화와 역사는 인간이 환경과의 부단한 적응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에 적응하거나, 도전하거나,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방식을 선택해왔고, 그것을 통칭하여 문화라 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역사와 문화 속에는 항상 그 문화의 주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농촌문화의 경우에도 그 마을의 특수한 배경과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음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고향마을의 이야기와 정서가 있는데 이를 살려내지 못한 자원활용(상품화)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경쟁력이고 상품가치 있는 차별성이기 때문이다.

잘 생각하여 보면, 농촌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수백 년, 혹은 그 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우리의 선조들에 의하여 ‘점점’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말 생명력 있는 우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대 사학과 교수

1) 줄고, 「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 『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4

리의 가치관이자 실질적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근본적 이해를 경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은 외국 문화가 ‘선진’ ‘현대’ ‘고급’이라는 명목으로 전통문화를 압박하고 있다. 스스로의 가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전통과 자원을 되살려 “특성화”, “차별화” “상품화”하여 소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농촌문화 자원의 대상도 음식이나 민속놀이·세시풍속에 머물지 말고 자연이나 생태, 풍수, 민요, 지명, 설화, 민담, 특산물 등은 물론 농촌의 공동체 의식과 정신문화까지를 대상하여야 할 것이다. 물레방아에 대한 정서라든가, 철 따라 이루어지던 농작물 흙치기, 풍년을 기대하며 펼쳐졌던 다양한 민속적 기원들, 두레 같은 공동체 조직의 문화적 특성들도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화 콘텐츠들은 종합된 농촌문화의 한 부품들이다. 따라서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면서 또한 전체를 복원 구성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즉 농촌문화와 전통지식들은 오늘날의 지식처럼 전문화, 분점화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나, 음식의 재료와 가공 기술을 알기 쉬운 매뉴얼로 상세히 정리하였다고 해서 그 음식이 같은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통합된 지식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많다

끝으로 콘텐츠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가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계획·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콘텐츠 정리자는 소프트-하드웨어의 연계체계 속에서 활용의 방안을 고려하고 콘텐츠를 정리하여 주고, 이를 응용할 개발자들은 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만약 수적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농촌문화 콘텐츠가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매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농촌의 문화정체성을 왜곡·굴절하거나 차별성 없는 모습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충남의 농촌문화 상품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많은 콘텐츠의 발굴·정리라고 생각한다. 대개 다른 분야의 자원활용에서도 지적되는 것이지만, ① 기초자료(콘텐츠)의 정리문제, ② 육성 아이템 선정과정의 객관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유기적 효용성과 경쟁력 문제가 철저하게 점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의 효율성이나, 경쟁력, 내용성 등이 문제가 되게 마련이라는 것인데, 농촌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즉 농촌의 문화 자료들이 영역별로 조사·수집·정리되고 그 바탕 위에서 문화 특성과 정체성이 점검되고, 그 후에 경쟁력을 고려한 자원활용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농촌문화나 농촌지식의 논의에서도 이런 점은 매우 크게 보여진다. 너무 쉽게, 그리고 철저한 자료의 검색과 정리과정이 생략 내지는 불철저했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민속학자들의 연구성과나 역사학자들이 거론하는 중요자원의 경우도 지역별로 혹은 시기별로 차별성과 상대성이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연계문제도 적용하는 입장에서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자료들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활용 가능성이 있

는 경우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검·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농촌의 지식, 농촌문화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챙기고 밝혀낸 것보다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의 지식정보 자원들이 우리의 농촌에는 아직도 남아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 평가가 전도되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버려 둔 ‘충남문화의 원형’,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충남문화들’이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농업의 구체적 사례들이라거나, 마을마다 어구에 있었던 미나리짚이 오늘날의 오페수 처리장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 현실이다. 이런 류의 지혜와 삶의 슬기들이 다름 아닌 농촌의 지식자원이라 할 것이다. 때문에 영역별로, 그리고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기초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지역별로 차별성 있고 매력 있는 농촌문화 자원들이 수없이 출현하리라 본다.

3.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21세기 문화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콘텐츠웨어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콘텐츠 정리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앞서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소프트 웨어의 개발도 수요층의 요구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위, 대상, 수요층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구 시대적 감각의 획일적 관광개발은 실패 확율이 그만큼 높다.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수준별, 목적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같은 자원이라도 유형별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① 교육형 ② 관람형 ③ 체험형 ④ 레저형 ⑤ 복합형 등으로 구분되거나, ① 문화유적 ② 문화예술 ③ 생태 ④ 민속 ⑤ 특산 ⑥ 음식 ⑦ 인물·전설·지명 등의 소재와 테마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개발은 강한 문화 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농촌문화의 자원들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거나, 종합성을 분해하면 곤란하다. 지역적 특성과 콘텐츠의 특성을 배려한 집중성과 아이템의 패키지화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야 소프트웨어의 활용도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속놀이나 음식이 특화자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연회 과정이나 가공기술, 혹은 판매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가능했던 자연지리적 조건과 마을의 역사, 생태와 산물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농촌의 청정 환경과 강과 산지, 평야지대가 지니는 전원적인 촌락풍물이 역사문화유적, 풍광, 민속, 음식문화 등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될 때 독보적인 상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농촌문화 자원의 발굴 정리와 함께 마을문화의 여러 흔적(생활유적)들을 복원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촌문화를 체험하려면 농촌문화가 생겨났던 마을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의 전원풍경을 되살리고, 그윽한 고

향의 정취가 살아 있는 가족단위의 쉼터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예컨대 원두막이나 정자, 사랑방과 장승, 빨래터나 물레방아간, 초가집과 기와집, 동구밖의 장승과 선돌, 상여집과 방앗간, 당산나무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것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린투어리즘도 이와 다름 아니다. ① 청정지역 ② 전통문화 ③ 수려한 경관 ④ 훈훈한 인심을 상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든가, 그 지역만의 차별성을 부각하여야 한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전북 순창의 경우 그린 투어리즘의 추진 사업 중에 보이는 지역 전통과 특성 살린 축제 행사의 개발, 쉬어가고 싶은 전원 관광 코스의 개발, 특색 있는 전통 향토음식 개발 등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고' '체험하고 체재할 수 있는' '즐거 찾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농촌마을의 여러 자원의 상품성은 빛을 크게 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농촌생활문화의 체계적 정리 필요

이제 돌이켜 보면 이러한 귀중하고 주요한 농촌의 자원 활용과 개발 정책에서 매우 큰 시행착오들을 겪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우리의 농촌문화가 가진 강점들이 무시되거나 파괴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고, 이름만의 문화와 환경가꾸기도 수없이 많았던 점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우리들이 활용하고 상품화한 전통문화들이 겨우 문화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혼례, 다례, 한복 입기, 절하기, 그런가하면 민속놀이 몇 가지로 대표되어 '외형'과 '형상화'된 것에 치중하고 있음을 본다. 즉 문화의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중하여 '보편론의 획일화' 내지는 획일적 중앙 모델의 '매관적 답습',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이 생기게 된다. 그런가하면 최근에 부각되는 그린투어에서도 다종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접목하지 못하므로써, 단순히 도시인의 휴식과 향수, 목가적인 낭만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농촌문화의 진정한 이해와 체험, 그리고 이를 통한 현대적 계승 활용의 기회를 스스로 없앨 우려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문화자원들을 충실히 조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것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 콘텐츠를 철저히 수집·정리하지 않고 보물찾기 식 문화소재 발굴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는 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작업이며, 후속 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이 소홀하면 문화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필자는 자원으로 재생, 활용할 농촌문화자원의 대상을 그냥 있는 것이나 남들이 이야기하는 자료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자세보다는,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거쳐

- ① 농촌, 혹은 해당마을 특성이 물씬, 냄새가 물씬 나는 자원

- ② 문화 특성을 완벽한 모습으로 전승하고 있거나 종합체계화(세트화)가 가능한 자원
- ③ 충남 농촌문화의 변화 패턴, 변천상을 밝혀주는 자원
- ④ 현대와 접목, 연계활용이 주목되는 자원

등등으로 선별하여 목적 있게, 혹은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농촌문화의 ‘교육과 체험’

경제적 풍요와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은 문화 부문에서의 기대와 수요를 점차 다양화·고급화시켜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화예술의 향유층도 과거와 같은 특수계층의 독점 경향에서 점차 일반화·교양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문화행정·문화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광범한 시민, 일반교양인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과 가치교육보다는 ‘체험과 참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이 모색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행정은 지정된 문화재 중심이고, 하드웨어 중심이다. 그래서 개발과 공사, 복원, 시설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제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살찌울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 해당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 밖의 문화교육 필요성 문제도 커다란 과제로 주목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의 문화교육은 농촌마을과 같은 공동체적 문화 기반 속에서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사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지는 문화교육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고 가르치는 가정교육도 있었다. 며느리는 시집의 새로운 가풍을 전수 받기 위한 모진 시련을 감내하여야 했고, 농사꾼들은 농사꾼대로 또 나무꾼도 그들 나름의 문화 전수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현대와는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문화기반 위에서 다양한 문화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효용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서구식의 학교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그러한 전통적 문화교육의 모습은 점차 의미를 상실하여 갔고, 의미와 가치도 평가절하 되어 학교교육과 맞설 수 없는 무용지물처럼 되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이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보다, 학교 밖의 문화교육이 오히려 더 싱싱하고 씩씩해야 할 듯싶다. 좀 격한 말이지만 그러다 보면 생각 있는 학교 교육이 결눈질을 하거나 참을 수 없어 제 길을 걸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여야 할 것만 같다.

□ 본고관련 이해준 참고논저

-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1990
- 「조선시대 향도와 촌계류 촌락조직」『역사민속학』 창간호, 역사민속학회, 1991
- 『생활문화와 옛 문서』(공저) 국립민속박물관, 1991
- 「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4
- 「한국지역문화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세계문화엑스포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1998
-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방안」 『백제문화』 27집, 백제문화연구소, 1998
- 「서남해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0
- 「생활사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집 31-4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52회 국제발표회, 2002
-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역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충청남도 백제 문화재의 관리현황과 활용방안

강종원(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문화가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부여가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그 실체가 불확실하였다. 그런데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백제문화의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백제시대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백제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정비·복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헌자료가 부족한 백제사의 경우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므로 이들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순한 조사·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제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충청남도에 산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문화재가 지닌 특성과 성격을 통해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은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그에 따른 사회통합, 지역발전의 동기유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특정한 문화자산이 다른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창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2. 백제 문화재의 현황과 특성

1) 백제 문화재의 형성배경

충남지역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는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각 시·군 지역의 백제 편입과정도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 다만 475년 공주로의 천도와 함께 충남지역이 백제 영역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충남의 백제 문화재는 공주(웅진)로 왕도가 옮겨오는 475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비(부여)로 천도한 이후 세련되고 뛰어난 문화재를 많이 남기고 있다. 그 결과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王都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 지역의 역사문화적 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특징적인 문화재가 형성되었다. 즉, 왕도의 동북지역은 고구려·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어관련 시설이 많으며, 서북해안지역은 대외진출 및 문물유입의 창구로서 기능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재들이 조성되었다.

2) 문화재 현황과 특성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는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중요문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편중현상이 더욱 크다. 그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현황

지역구분	구분 시군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기타	비율(%)
왕도지역	공주시	110	18	9	83	19.57
	부여군	138	30	17	91	24.55
왕도 주변지역	논산시	37	1	6	30	6.58
	연기군	8		2	6	1.42
	청양군	44		2	42	7.82
서북해안 지역	예산군	27	2	1	24	4.8
	홍성군	24		2	22	4.27
	서산시	16	2		14	2.84
	당진군	5			5	0.88
	태안군	11	1	1	9	1.95
주변지역	보령시	35	1		34	6.22
	천안시	30		5	25	5.33
	아산시	5		2	3	0.88
	서천군	37		1	36	6.58
	금산군	35		1	34	6.22
	합 계	562	55	49	458	100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로 구분되는데, 먼저, 충청남도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28, 보물 87, 사적 42, 사적 및 명

승 1, 천연기념물 15, 중요무형문화재 7, 중요민속자료 22 등 모두 202점이다. 이 가운데 백제시대 문화재는 국보 28점 가운데 18점, 보물 87점 가운데 9점, 사적 42점 가운데 25점 등 모두 55점인데, 국보와 사적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이다.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를 포함하여 615점(도지정문화재 325점, 문화재자료 290점)인데, 이 가운데 백제시대 문화재는 49점이다.

이 외에 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고분군 등 지표조사 상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가 있는데, 이들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조사상의 한계로 인해 그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그 수에 있어서 편차가 많은데, 이는 조사상의 미흡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며,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문화재는 공주와 부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55점 가운데 이들 2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의 수가 48점으로 87%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 지역이 일정기간 백제의 왕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지역 문화재의 경우에는 무령왕릉 출토품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는 사지 및 사찰관련 문화재, 관방유적·고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왕궁관련 문화재가 일부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타 다른 시·군의 경우 중요문화재는 1~2점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이들 백제 문화재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고분이며, 다음으로는 성곽과 불교유적(사지) 등이다. 그 외에는 왕궁관련 유적, 가마터, 그리고 성격이 불분명한 유물산포지가 있다. 특히 유물산포지의 경우에는 지표조사 상에서 확인되어 그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분과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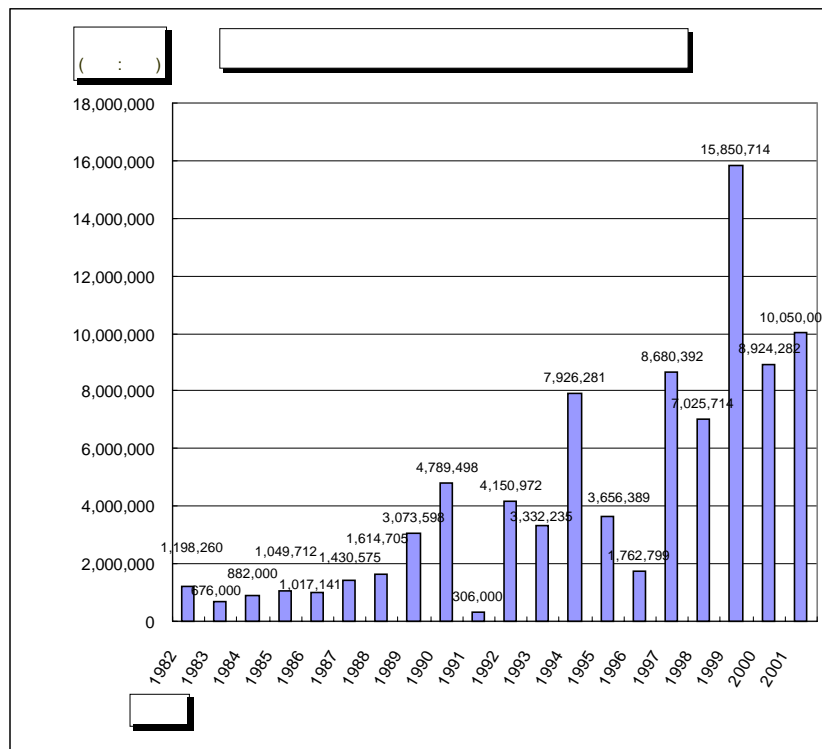
1) 백제 문화재 관리실태

백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1977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일단락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후 백제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당시 백제문화권의 영역,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문화재의 정비·보수 등에 치중되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공주·부여·익산 등에 집중되었다.

또한 초기의 문화재 정비는 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 일부에 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주로 토지매입 및 유적의 정비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를 시점으로 하여 1980년대 초에 들어와 백제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범위는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공주·부여·익산 등 백제시대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음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백제 문화재의 관리에 투입된 사업비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다.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정비내역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보수에 투입한 경비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문화재 정비내용을 보면 주로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반드시 병행하여 투입되기 때문에 문화재의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연도별 증감표(1982~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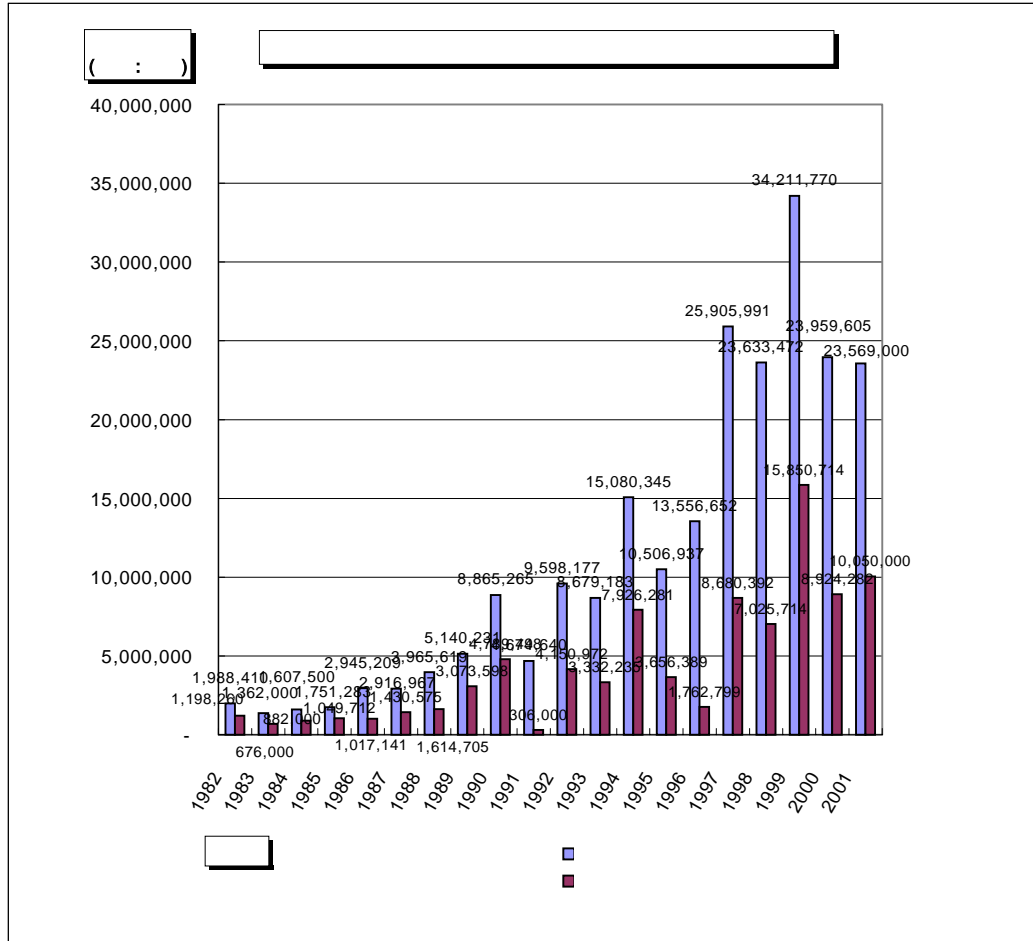


백제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여 불규칙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일시에 대규모의 예산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의 관련이 있으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 [도표 2]는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련 예산 가운데 백제 문화재에 투입된 사업비를 비교한 것이다. 중요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1980년대에는 충남 문화재 예산의 50% 정도가 백제 문화재 정비에 사용되었다. 이는 공주와 부여가 왕도였다는 역사성으로 인해 대외인식도가 높다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전체 중요 문화재(국가지정 및 도지정) 가운데 백제 문화재의 비중은 202점 중 55점으로 27.2%, 국보는 28점 가운데 18점으로 64%, 사적은 42점 가운데 25점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사적의 경우 백제시대 유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백제 문화재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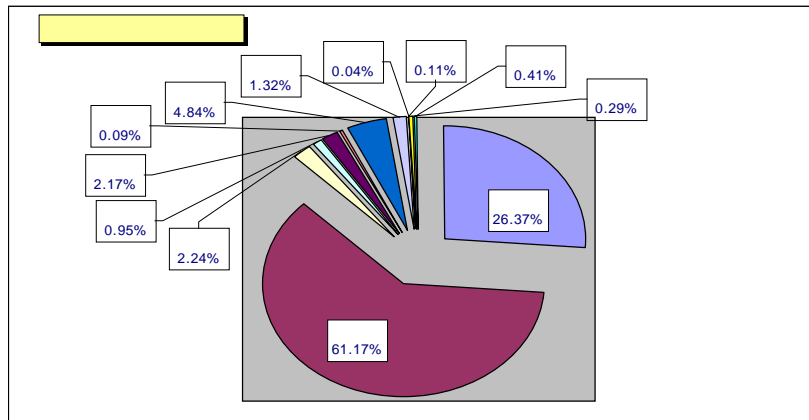
[도표 2] 백제문화권 사업비 비교표(1982~2001년)



[표 3]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정비 총괄표(1980~2002)¹⁾

(단위 : 천원)

					(1)	(2)
	97,063,440	61,331,915	24,738,920	10,735,516	1,919,684	70,500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816,490	70,500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90,000	0	45,000	45,000	0	0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36,000	0	18,000	18,000	0	0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2) 관리실태 분석

관리실태는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보수에 투입된 투자비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기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로 한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백제 문화재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97,063,440천원이다. 이를 각 시·군별로 보면, 부여가 61.1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공주로 26.37%, 논산이 4.84%, 연기 2.24%, 보령 2.17%, 서산 1.32%, 예산 0.95%, 청양 0.41%, 태안 0.29%, 서천 0.11%, 천안 0.09%, 금산 0.04% 등이며, 아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백제시대 문화재에 투입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1) 발굴비의 경우 시·군 및 문화재청 자체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는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각 시·군별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단위문화재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주시는 전체 예산의 26.35%인 25,724,329천원이 투입되었다. 유적으로는 공산성, 송산리왕릉군, 대통사지, 구룡사지, 반죽동 당간지주, 주미사지, 수원사지, 남혈사지, 제라회맹단지, 신관동 석실고분, 동혈사지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공산성과 송산리왕릉군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군은 현재까지 27곳에 모두 58,928,112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정비에 사용된 전체 예산 가운데 61.1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투입의 순위를 보면, 부소산성이 22%, 정림사지, 백제추정왕궁지, 궁남지, 부여나성, 왕흥사지, 능산리고분군, 구아리 백제유적, 구드래일원 등이며, 이들 9개소가 예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성, 궁남지, 추정왕궁지, 왕흥사 등 중요 사적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논산시는 계백장군유적, 노성산성, 황화산성 등 3곳에 모두 4,824,249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계백장군유적에 88.5%가 사용되었다. 논산의 경우에는 사적인 노성산성 보다는 도지정 기념물인 계백장군유적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기군은 충남 전체 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들 예산은 모두 비암사와 운주산성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암사는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로 예산의 61%가 투입되었다. 사용내역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 문화재 보수 등이며, 그 외에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

청양군은 전체예산의 0.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장곡사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2002년에 우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획되었다.

서산시는 1,317,783천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지역은 보원사지와 마애삼존불 2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보원사지의 토지매입에 사용되었다.

예산군은 전체예산에서 0.95%를 차지하고 있다. 사면석불과 임존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중 임존성에 90%가 투입되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사용예산 848,571천원 가운데 지표조사비 811,80천원을 제외한 90% 이상인 767,391천원이 성곽 보수에 투입되었다.

태안군은 마애삼존불에 285,713천원이 투입되어 0.29%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내용은 보호각 개축 및 주변정비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는 축성시기가 백제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백화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2002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보령시는 성주사지와 도미부인 사당 2곳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은 2,162,541천원으로 2.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백제시대 초창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선문 9산의 하나였던 성주사지에 96%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서천군에는 108,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0.11%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은 추정백제건물지와 남산성에 대해 투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정백제건물지의 경우 1985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남산성은 2000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다.

천안은 백제시대 유적으로 확인된 것이 15개소의 산성과 15개소의 고분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위례산성을 비롯해 사산성, 백석동토성 등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고작이며, 백제 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예산투자는 없다.

금산지역은 삼국시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백제 유적과 신라 유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장대리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신라고분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백령산성에 대한 복원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 이외에 홍성·아산·당진 등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백제시대 문화재가 없어 그에 대한 투자 역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각종 개발과정에서 구제발굴을 통해 백제시대의 매장문화재가 확인되고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에서 문화재의 관리에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관리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가옥의 매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성곽의 보수 및 복원, 도로정비, 각종 편의시설, 건물보수, 발굴조사, 기타 전시관 건립 등이다. 이들 내용은 모든 지역의 문화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3) 체계적 보존관리방안

앞에서 문화재관리에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백제 문화재의 관리는 지역별·유적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예산의 지역편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산의 대부분이 매년 공주와 부여지역의 백제 문화재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부여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문화재 관리가 유형별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로 사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내용별로는 정비·복원, 토지·건축물 매입, 부대시설 건립, 발굴조사 등의 순이다.

넷째, 중요 문화재 일부를 제외하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수립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유물산포지 등 비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없다.

여섯째, 백제 古都인 공주·부여지역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백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충남에 분포하는 모든 백제시대 문화재를 포괄하는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비·복원에 앞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일회적인 보존관리에서 탈피,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사후관리체계의 마련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왕도지구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古都文化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단순한 문화재의 정비·복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백제 문화재의 활용방안

1)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최근에 들어와 문화재의 관리는 원형보존에서 탈피하여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는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유적의 경우 다양한 성격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성유적은 백제의 천도과정을 비롯해 각 시기별 문화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유물의 고고학적 편년설정에 좋은 연구자료이다. 성곽은 백제의 건축문화뿐만 아니라 지방통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사지는 백제의 뛰어난 불교미술을 비롯해 불교문화의 전파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고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묘장제를 비롯해 백제의 대외교류, 미술공예 수준, 나아가 생활상 등을 밝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주거지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문화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각종 유물은 물질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본 자료인데, 주요 유물로는 금석문, 목간, 토기, 불상, 마구류, 무기류, 금속공예품, 기와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헌자료가 빈약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인데, 첫째,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물적자료, 둘째, 백제시대 지방통치체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셋째,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구명을 위한 비교자료, 넷째, 삼국간의 문화교류를 밝힐 수 있는 자료, 다섯째, 문화의 대외전파 및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설화와 전설은 그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역사사실이 전개되었던 지역과 그 인근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실과 바램 등이 이야기로 엮어져 전해지거나 또는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민속상에서 일정하게 변모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설화와 전설은 그 지역민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문헌 및 물질자료와 함께 당대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문화재는 문화관광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특정 문화자산이 다른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보다 큰 효용성을 갖는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관광루트 및 주제에 따른 관광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왕도지역의 경우 웅진시대의 백제문화(웅진시대 왕도관련 유적, 곰나루설화 등)와 사비시대의 백제문화(백제의 마지막 왕도가 위치하였다는 장소성, 왕궁 관련유적과 성곽 유적, 백제역사재현단지와 문화재의 연계)를 활용한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왕도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면 그 주변지역은 왕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자를 공급하고, 방어를 담당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왕도 주변지역은 이러한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능상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화재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산의 관방유적과 황산벌전투의 연계, 연기의 관방유적과 비암사, 청양의 관방유적 등이다.

충남 서북부권의 뛰어난 백제 불교문화도 하나의 권역별 관광루트로 훌륭하다. 즉, 예산의 사면석불, 태안의 마애삼존불, 서산의 마애삼존불 등은 백제시대 불교문화의 유입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권은 웅진시기 이전 백제문화의 파급과정을 비롯하여 웅진·사비시기 관방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음은 주제를 가진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로는 현재 부여에 조성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비롯하여 백제문화제, 기타 백제관련 민속행사(은산별신제, 충화팔충제, 유왕산추모제, 임천충혼제) 등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요소의 개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긴 내용의 현실화 즉, 동물원 및 조각공원의 조성, 테마별 관광루트의 개발, 중요 유적지에 조성되는 각종 박물관 및 전시관의 특화를 통한 체험교육공간으로의 활용 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적과 유물 중심의 문화관광 요소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주제를 가진 새로운 문화관광 요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의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백제 고도권 중심 및 중요문화재 중심의 편중된 관리에서 벗어나 충남 전역에 분포하는 백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백제시대 문화재의 현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재의 관리상태 및 정비를 위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해당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축적한 이후에 정비·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화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요구되는데,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 유적·유물의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주제별 관광루트 개발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민속행사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먼저 문화재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백제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백제시대 문화재를 통합관리하고, 둘째, 이들 문화재의 정확한 정비·복원을 위한 조사·연구기능을 확보, 셋째, 예방적 관리 시스템 마련, 넷째, 고도관리 특별법 제정 및 고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백제의 역사·문화 연구를 위한 센터기능 확보, 둘째, 고도문화권을 축으로 한 관광체계 구축, 셋째, 충남지역의 권역별 관광루트 개발, 넷째, 다른 시기의 문화재 및 자연자원과 연계개발, 다섯째, 비지정문화재의 적극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여섯째, 백제문화재의 형태 및 문양에 담긴 내용과 사상의 재현을 통한 문화관광상품화, 일곱째, 백제관련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 현존하고 있는 관련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적극적인 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1세기와 문화재연구』,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 발전계획 및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2000.
- 김희정,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1997,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관리국, 『백제 고도문화권 문화유적 정비계획(안)』, 1979.
- 문화재관리국, 『백제 고도문화권 유적 조사자료』, 1979.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 2000.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 서정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1999.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유산 보호와 과제」, 1997.
-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 이강승,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 이남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전남의 고대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2000.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충청남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 1996.
-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충청남도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

이 훈 (문화재연구부장)

1. 머리말

최근들어 충남도내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산업공단 건설, 택지개발 등 대대적인 국토 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부지 내에 분포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문화재 사업에 대한 계획성 부재, 그리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지원의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는 토지·海底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오랫동안 땅 속에 매장되어 전해 내려온 것으로서, 조상들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난개발로 인해 매장문화재의 파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파괴와 인멸을 방지하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흔히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자연 환경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수는 있다. 반면에 한번 훼손되고 파괴된 문화재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될 수 없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충청남도내에서 지금까지 확인·조사된 매장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에서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도내에서 2002년까지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그 동안의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의 조사현황과 문화재정책의 기본방향, 즉 관리행정·예산 등에 대한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1)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도에 들어서서 변화하는 문화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들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이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포괄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예방적 차원 보존관리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이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문화재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 개발과 보존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을 3대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제 중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정책 추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개발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고 사업 시행자의 효율적 사업시행 지원

둘째,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과 연계, 전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셋째, 국토개발로 인하여 늘어나는 발굴조사의 적시성·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발굴전문기관의 육성 지원

넷째,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증하는 출토유물의 효율적·과학적 보관을 위한 종합 보관 관리시설 확충 및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민간위탁 등)

다섯째, 출토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물의 발굴, 국가귀속,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이다.

이와 같은 5가지 세부과제의 골자는 ①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② 발굴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③ 출토유물관리 및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동안 문화재 행정에 있어서 제반 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은 중앙정부의 업무였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특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져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이제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문화재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문화재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2)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1)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2002년에 발간된 문화재연감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해방 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총 발굴 조사 건수는 3,306건에 이른다. 그 중 1999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 건수가 1,119건으로 전체 조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들어 발굴조사가 급증하고 있음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발굴조사 연도별('46~'2001) 조사 현황

연도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 '70	'71 ~ '75	'76 ~ '80	'81 ~ '85	'86 ~ '90	'91 ~ '95	'96 ~ '98	'99 ~ 2001	계
건수	4	6	16	65	89	130	154	248	256	534	685	1,119	3,306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지역별 자료로 보면 총 3,306건 중 경북이 16.5%로 첫 손가락에 들고, 뒤를 이어 경남 14.7%, 충남 10.2%의 순위가 매겨진다. 충남이 세 번째로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임을 의미하는 셈이다.

<표 2> 발굴 지역별('46~'2001) 조사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90	84	125	31	37	50	98	370	160	259	377	235	293	547	485	65	3,306

그런가 하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발굴 목적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2,339건 가운

데 구제발굴이 1,629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발굴 목적별(1991~2001)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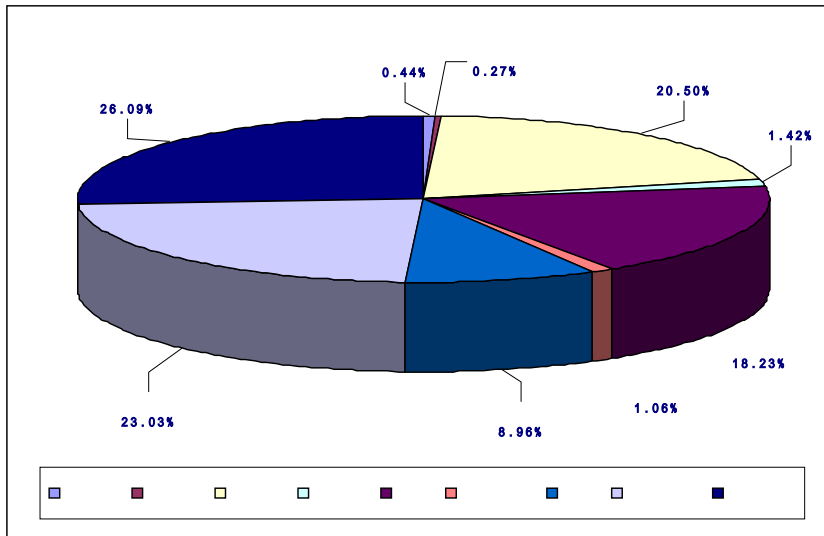
종류	순수학술발굴	정비목적의 학술발굴	구 제 발 굴	계
건수	237	473	1,629	2,339

(2) 충청남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충남도내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의 현황을 살펴보자. 충남도 내에는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 전문 법인기관과 대학박물관, 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9개의 기관이 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매장문화재의 조사는 대학박물관이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인 (재)충청문화재연구원과 (재)충남발전연구원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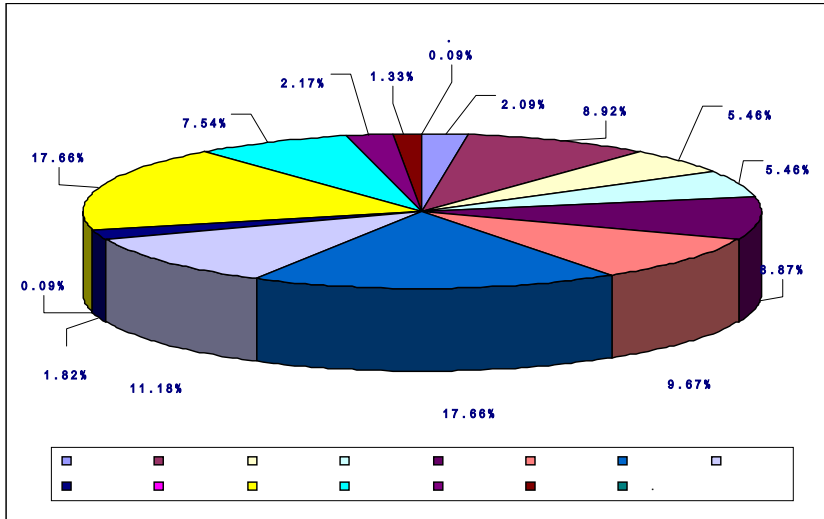
한편, 충남도의 경우 1998년 이래로 1/5,000지도에 유적·유물의 위치를 정밀하게 표시하는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되고 있다. 말 그대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유적과 유물의 위치를 지도에 직접 표시하는 작업인 만큼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의 종류와 규모, 분포 위치가 정밀하게 파악된 만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자료로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각종 조사를 통해 확인된 충남도내의 매장문화재 조사현황(사적 등 지정된 매장문화재 포함)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충청남도 매장문화재의 시대별 조사현황

한편, <그림 2>는 매장문화재의 유적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매장문화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고분과 寺址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窯址와 산포지로 11%에 해당된다.



<그림 2> 충청남도 매장문화재의 유적별 조사현황

충남지역의 매장문화재 조사는 15개 시·군지역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모두 작성된다면 매장문화재의 분포상이 개략적으로나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지하에 매장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유적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것이다.

(3) 지정 매장문화재 현황

지금까지 살펴 본 매장문화재 중에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이미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 사적이나 시도지정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으로 보존 보호되고 있는 유적도 있다. 이들 지정 매장문화재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의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정문화재 중 매장문화재의 비율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충남 지역의 지정문화재 817건 중 매장문화재는 77건으로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충남지역의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가 전체의 약 46%임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치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정된 매장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지정문화재 108건 중 부여(40건)가 37%로 압도적으로 많고, 공주(14건)가 1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도내 지정문화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백제의 古都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가 집중되어 왔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정 문화재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정된 매장 문화재가 충남도내에 분포하는 전체 매장 문화재의 3~5%에 이르는 10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동안 매장 문화재를 지정 문화재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정 문화재로 전환할 때에 유적의 성격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여와 공주지역의 문화재가 전체 지정문화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그 동안 매장 문화재의 지정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편중은 자연스럽게 유적의 종류와 성격 역시 한쪽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쪽으로 편중된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

로는 다양한 유적들이 지정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에 균형을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다.

(4) 비지정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충남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재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총 159건이 시행되었다. 그 중 학술조사는 25건,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가 134건이었다.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가 8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앞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발굴(시굴)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52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굴조사를 통하여 발굴조사로 이어진 유적 중 88%가 기록보존 후 파괴되어 버리고 겨우 10% 정도만이 보존되거나 이전복원 되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표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이어지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도 보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굴조사 후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애초부터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다. 학계의 주목을 끌만한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 아니고서는 간단한 기록을 남긴 채 사라지는 유적이 비일비재하다.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한 편이다. 비지정문화재건 지정문화재건 간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굴 현장에서 빚어지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홀대 현상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무색케 한다.

한편, 유적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는 연간 4~9건 정도로 큰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발굴조사 유적의 성격이 사적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대적으로는 백제시대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개발의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조사로부터 정비·복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발굴조사와 정비·복원사업이 따로 추진되면서 발굴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형태의 정비·복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조사와 보존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매장문화재 관리행정

(1) 지방 문화재 행정의 중요 과제

매장문화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선행해야 할 부분은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과 문화재 행정의 체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가장 원론적인 해결방안은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이나 정책결정자, 개발주체들과 문화재 보존주체가 개발과 문화재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양자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및 그 주변 환경의 보존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개인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문화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협력과 동의를 얻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문화재 보존과 재산권 행사 사이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

한편, 문화재 행정이 지자체에 중앙정부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토개발에 따른 문화재 조사와 관련되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신청·처리과정, 특히 발굴허가를 얻기 위한 처리과정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개인 혹은 관련단체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많은 불만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절한 기능의 이양을 통해 시·군·구·발굴조사를 위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정 매장문화재의 관리

국가지정문화재인 史蹟을 비롯하여 시·도지정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은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완전한 매장문화재 보존방법은 좀 더 많은 매장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매장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인 지표조사 혹은 시·군·구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가치를 규명한 뒤 이를 근거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정비·복원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정 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현행의 지정 문화재 중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간단한 지표조사만으로 중요성이 확대되어 지정문화재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는 문화재자료가 아닌 사적지로 평가받을만한 것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재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재의 보존 정비와 활용의 경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범위 안에서 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요구된다.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전문적 점검과 관찰, 혹은 보수정비가 필요하거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8월 현재 국보 보물 12건, 사적 93건, 천연기념물 명승 29건 등 도합 134건이 선정된 상태이다. 134건의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중 충남지역의 문화재는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14건이다.

<표 4> 충청남도 소재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사 적 명	지정번호	사 적 명	지정번호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사적 249	궁남지	사적 135
부여 능안골 고분군	사적 420	부여 부소산성	사적 5
부여 정림사지	사적 268	공주 공산성	사적 12
보령 성주사지	사적 307	부여 나성	사적 58
서산 보원사지	사적 316	해미읍성	사적 116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사적 428	우금치 전적지	사적 387
부여 능산리 사지	사적 434	태안 신두리 사구	사적 431

대체로 충남지역에 자리하는 주요 유적들이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유적지를 어떻게 보존·관리·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사적지의 정확한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철저한 고증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 복원사업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계획적이고 고증없이 정비·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문화재의 복원이 아닌 토목공사로 일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당연히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졸속 복원되어 국적없는 문화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화재의 보수와 정비·복원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계획 입안시부터 전문가집단의 철저한 자문을 거쳐 보존계획을 수립한 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계와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관리

매장문화재는 특성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적이나 기타 시도의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가치가 적어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 문화재와 동일한 관심과 보존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지정 매장문화재는 대부분 개인의 사유지 등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그 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는다. 국가지정의 사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도지정 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라도 지정되어야만 국비와 지방비의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토지매입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행정기관과 조사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4)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예산

효율적인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의 확보이다.

정부의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면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이 0.27%에 불과하며, 정부 전체의 투자 우선순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예산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할 때 적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70%, 시도지정문화재는 50%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수·정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기초조사 연구 등의 사업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총 2221개 사업에 223,898,256천원이 투입되었다. 국비는 약 50%이고, 도비 군비가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다.

1982년도 충청남도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투입된 사업비는 대략 20억이었으나 1990년도에는 102억, 1997년 이후로는 대략 250억 내외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문화재 관련 예산이 20년 사이에 10배 이상, 최근 10년 사이에는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1998년부터 250억원을 넘어서면서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99년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342억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국립공주박물관의 설립이나 사적지의 토지 매입 등 대규모의 사업이 포함된 때문이었다.

지정문화재별로 투입되는 사업비의 비율은 사적이 35.9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지정기념물이 18.5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것은 사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모든 예산의 투입이 사적위주로 편성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적지 위주의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지만 문화재 사업비가 계속해서 사적지에만 집중 투입될 경우, 새로운 유적의 확보나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지정 기념물과 문화재 자료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함께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조사·개발하여 문화재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개선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신중한 문화재보존 사업의 시행, 체계적인 발굴조사,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한 문화재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에 연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의 목표를 세운다면

- 사후 처방적 매장문화재 정책을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매장문화재 정책으로의 전환
- 중앙정부의 집행위주 기능의 대리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집행기능의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정책의 수립
- 급속한 개발 및 산업화에 대응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 정책수립과 문화재 관리 체계 확립
- 매장문화재관리에 있어 보존과 개발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능동적인 정책 추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세기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여러 영역에 대한 결정권과 기획기능을 장악하고 있어서 권한, 재정, 인재양성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부분의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권한 및 기능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함과 동시에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보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재 지정의 확대, 국토개발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시굴조사 단계의 강화, 유적공원의 조성, 발굴유적의 복구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유물 종합보관·관리시설의 확충 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2)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의 활성화

최근에는 발굴조사전문기관이 각 시·도마다 설립되고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화재조사를 담당하여 체계적인 문화재조사와 함께 기록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유물에 대한 원형보존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 등이 제 때 마련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

다.

이제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에서는 기관 간에 효율적 연계를 통해 연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정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매장문화재 관리행정의 체계화

중앙정부에서 도맡아 오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이양과 위임이 가시화 되면서 충청남도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문화재 업무의 이양을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행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은 문화재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재 담당직원의 학예직화 및 인력확충을 통한 원활한 행정체계 구축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문화재 행정을 보면 그것이 갖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 내지는 배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문화재 행정, 특히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정의 틀이 마련되지 못한 채 엄청난 규모로 외양만 성장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문화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의 연구와 관리, 보수는 일정부분 성격을 달리하는 분야인 만큼 적어도 문화재 업무를 연구, 관리, 보수체제로 분리하여 전문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재 행정의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맡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학예직화 작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연구와 관리·활용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에는 필연적으로 문화재를 전공한 전공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 행정을 담당할 부서를 학예직화 하는 작업은 문화재 행정의 틀을 완성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문화재 관리 행정을 체계화 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재의 지정·해제를 심사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제시해 주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적절한 조정 기능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퇴색해 있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전공과 전문가들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문화재 관리와 보존책이 마련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정비·복원의 과정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 대상 선정 - 예산 결정 - 자료조사 - 설계도 작성 - 시공 - 준공 및 수리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화재의 정비·복원은 선물의 포장과 같다. 조사되고 연구된 문화재를 일반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최후의 단계에 해당되는 셈이다. 따라서 엄격한 고증과 성실한 시공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중간 점검과 사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리보고서 역시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의 합리화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예산의 중장기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보수·정비에는 지표·시굴·발굴조사와 같은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기초 조사가 결여된 정비·복원은 새로운 문화재의 창조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토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관리예산이 따로 마련될 필요도 있다. 국토개발에 따르는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보존·정비는 예고 없이 나타나는 돌발사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발굴조사 후 보존·정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 문화재를 장기간 방치하다 보면 원형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 관리 긴급 예산이 미리 확보될 필요가 있다. 즉, 국토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매장문화재의 복구 및 보존 관리에 필요한 일정 비율 이상의 특별예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러한 긴급 예산의 집행에는 행정 절차를 최소로 간소화 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은 문화재보존기금의 마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충청남도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충남도내에 분포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보존정책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 인멸되는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계획(2000)과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을 수립하여 향후 문화재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이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제의 정착을 유도하며,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과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그 동안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던 문화재 행정 업무가 점차 지자체로 이양, 혹은 위임될 방안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함께 구체적인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충남도내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가 하면 각 시·군별로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충청남도 문화재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문화재의 멸실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종합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6년 이후 매년 진행된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통해 도내에 분포하는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윤곽이 파악된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지역적인 특색을 강조할 수 있는 문화재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성격을 달리하는 특징적인 유적들이 분포하는 만큼 5년 내지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유적별 조사·정비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의 기능과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 전문기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별로 지역적인 특색을 강조할 문화재의 조사·활용과 발맞추어 충남도의 입장에서 도내에 산재하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실무 작업을 추진할 전문기구를 확보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도 하나의 대안일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재를 정보화하여 알리는 기구 및 장치로서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문화재의 활용이 정비·복원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실제로 조사된 유적이 모두 정비·복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를 통한 가상 공간에서의 문화재 정비·복원은 또 다른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의 문화재의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실제로 정비·복원할 수 없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사이버상에서 재현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홍보하는 것도 문화재의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병호, 1994, 「문화재의 수리와 복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수갑, 1995,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재보호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충북대법학연구』 제 7권.
김수갑, 1995,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충북대법학연구』 7,1
김수갑, 1995, 「문화재보호법 :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나라의 길』 36.
노봉옥, 1995,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문화재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연구」 『인하공전논문집』 20.
남궁승태, 1994, 「헌법상의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아태공법연구』 3.
남궁승태, 1995, 「문화재보호와 환경권-역사적 문화 환경권」 『문화정책논총』 8.
대한민국 문화재관리국, 1997, 『문화재 행정의 실제』.
대한민국 문화재관리국, 1998, 「문화유산의 해 사업결과 보고서」.
대한민국 문화재청, 1999, 『문화재 관계법령집』.
대한민국 문화재청, 1999,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협의』.
문화재청, 『1999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일반개요』.

문화재청, 1999, 『1999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

문화재청, 1999, 『99 달라지는 문화재 제도』 .

문화재청, 1999, 『문화재관리연보』 .

문화재청, 1999, 『주요 업무보고 현황』 .

문화재청, 1999·200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

문화재청, 2000, 『2000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I, II』 .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문화재청·문화유산포럼, 1999, 『문화유산포럼1』 .

성찬현·안동만,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화재 항목의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50.

예술행정연구회 엮음, 1988, 『예술과 행정』 제 1호, 평민사.

이영진, 김약수 편저, 2000, 『문화재조사연구 입문』, 학문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7,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유산 보호와 과제』 .

정문교, 2000,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한국고고학회, 1997,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육성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예술행정』-문화예술총서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문화정책』-문화예술총서10.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문화재실무편람』 .

한국토지공사, 1996,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

한국토지공사, 1996,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

한국토지공사, 1997, 『문화재 조사 요람』 .

서해 바닷가의 역사기행

오 석 민 (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충청도 서해안의 뱃길

여름은 피서의 계절이다. 그리고 산이나 계곡과 더불어 바다는 자연스럽게 인파의 물결을 이룬다. 그런데 과거 우리 선조들은 주로 바다를 이용하여 많은 물자를 운송하였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나라의 재정을 지탱하는 세곡을 실어나르는 세곡선은 물론이요, 경강상인 등으로 불리는 상인들의 활동무대 또한 바다였다. 또한 전쟁이 일면 바다는 보급로의 구실을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활약은 역시 왜군의 보급로 차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피서철 바다를 찾는 길에 그러한 역사적 현장을 찾는 일 또한 뜻 있는 발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충청남도 서해안은 과거 서울로 향하는 요로(要路)에 해당하였으므로, 살피볼 만한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역대 이래로 중앙정부의 재정은 삼남, 경상·전라·충청의 조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런 까닭에 삼남에서 서울로 가는 뱃길이 중요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었다.

옛 뱃길을 살펴보면, 암초가 많아 항해가 어려웠던 곳에는 어김없이 원활한 항해와 적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암초가 발달한 지역은, 지금은 바닷가 비경이라 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부근 어항(漁港)에는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먹거리가 지천이다. 피서와 정치, 레포츠, 식도락,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되새길 수도 있는 복합적인 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충청남도 서해안의 그러한 여행길을 가보자.

서천 마량진과 동백정

삼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충청도의 뱃길은 금강 이북이

었다. 현재의 서천군은 옛 한산·비인·서천 고을이 병합된 행정구역인데, 비인 고을 앞바다에 암초가 발달되어 뱃길을 방해하였다. 마량진(馬梁津)은 이러한 연유로 효종 7년(1656)에 설치된 군사시설이었다.

마량진 첨사(僉使)가 주둔했던 진성(津城) 주변에는 동백나무 숲과 함께 동백정이라는 정자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숲가에 위치한 신당(神堂) 또한 마량진과 관련이 깊은 의례 장소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1540년 험한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라는 계시를 받고, 아울러 동백숲도 가꾸었다고 하는 말도 전해지기도 한다.

지금은 동백정으로 가려면 화력발전소를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 과거에는 군데군데 늪지를 형성하는 길을 조심스럽게 건넜다고 하니, 속칭 '바닷길'이 열린다고 하는 진도나 무창포 등과 마찬가지로 바닷가의 섬이 육지에 이어진 지형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동백정 능선을 향하여 찍은 옛 사진을 보면 휴양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보령 수군절도사영, 오천성

보령시는 옛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이다. 수군절도사영은 보통 '오천성(鰲川城)'이라 한다. 조선왕조가 망할 무렵이었던 1901년 4월에, 절도사영을



| 마량진 |

중심으로 옛 보령현 금신면 주변 지역과 서해의 여러 섬들을 관할하는 오천군을 신설했던 탓에 붙여진 이름이라. 오천군은 서해의 황금어장인 어청도[현 전라북도 옥구군]까지 관할하였으니, 조선시대 홍주목 관할의 섬들을 거의 그대로 인계받은 셈이다.

오천성은 광천만 끝에 위치하고 있다. 홍주목으로 갈 수 있는 바다 입구에 위치한 방어기지인 셈이다. 그리고 충청도 해안, 즉 내포(內浦)의 바다를 지키는 총 사령부이다. 조선 초 왜구가 날뛰던 시기에는 병마절도사영이 해미에 있었으니, 육군과 수군의 사령부가 모두 바닷가에 입지했었다. 왜구가 잠잠해진 후 비로소 병마절도사



| 갈매곶 성지 |



| 오천성 |



| 원산도 해수욕장 |

영은 청주로 옮겨졌다.

오천성은 또한 천주교 순교지로 유명한 곳이다. 조선 후기, 지금으로 치면 지역 군사령부에서 사상범들을 다루었던 관개로,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오천성에 투옥되었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이 묻혔던 갈매못이 그러한 천주교 성지였다.

오천성에서는 멀리 원산도가 바다다 보인다. 영목과 원산도는 모두 오천성의 수군절도사 휘하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다. 세곡선이 도착하면 원산진(元山津)의 별장이 책임을 지고 경기도 관할지역까지 선박의 호송 책임을 맡았었다.

지금 원산도는 섬마을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그곳은 국마장, 즉 나라에서 말을 키우던 목장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쟁터에서도 쓸 수 있는 강인한

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말을 방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맹수의 피해는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섬이나 바닷가 반도 모양의 지역을 골라 목장을 만들었는데, 충청도 서해안 내포 고을에는 많은 목장들이 있었다. 원산도 이웃 삼시도에는 국가의 사슴 목장이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안면도의 금산(禁山)

이제 안면도는 서울 수도권의 하루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 울창한 송림과 바다가 함께 하는 곳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톨게이트를 나서면 30분이면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 안면도 휴양림 |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 할미바위 뒤편 낙조는 예전부터 서해의 대표적인 명소였다. 그와 함께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휴양림의 쪽 뺨은 송림은 여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휴양림이 조선시대 금산(禁山)이었음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뱃속이 누런 까닭에 황장목(黃腸木)이라 불렀던 고유 수종의 소나무는 선조들이 가장 아꼈던 목재였던 것이다.

물길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해야 했던 시기에 바닷가 송림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곳이었다. 안면도 송림은 그러한 유산이다. 조선 말 이후 혼란을 틈타 대규모 벌채가 행해졌다. 오죽하면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였을까?

목재로만 쓰였던 게 아니라, 구운 소금[煮鹽]의 연료가 되었던 탓에 남벌은 너무나 쉽게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안면도에서는 100년이 넘는 황장목을 보기는 어렵다.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그나마 보존되었던 영월이나 봉화 등 소백산 주변의 송림과는 다른 처지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수령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 체계적인 계획의 진행된다면, 안면도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운하 유적들

안면도가 본래 육지였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중앙 정부의 세곡선이 태안반도 인근에서 종종 침몰하는 폐해에 골몰하던 중 조선 인조 때 태안 아전 방경잠(房景岑)이 충청감영에 진정하여,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뚫었던 것이다. 한국에 현존하는 유일한 운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정 이지함이 안면도의 산수를 좋아하여 자주 들렀고, 이곳을 파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운하가 건설되면서 적돌강, 즉 안면도 내해(內海)에서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200여 리의 뱃길이 단축되었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白砂水道)'라고도 한다. 천수만 안쪽의 고을, 특히 결성현의 석곶포(石串浦, 현 홍성군 결성면 星湖里)에서 서울로 향할 때 주로 사용하였으나, 안면도 바깥 바다에 거친 풍량이 일 때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 길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최초 운하는 안면도가 아니었다. 정작 충청도 해역 가운데 파선의 위험이 가장 컸던 해역은 안홍항 앞 바다였다. 안홍량이라 했던 곳은 난행량(難行梁)이라 부를 정도로 항해가 어려웠던 곳으로, 강화의 손돌목(孫多項, 황해도의 장산곶과 더불어 험한 곳으로 악명을 떨쳤던 곳이다. 손돌목의 험로를 피하기 위하여 고려 때 최이(崔怡), 그리고 조선시대 김안로(金安老)가 김포에 도랑을 파려했던 것처럼, 태안반도를 관통하는 운하를 계획했던 것이다.



| 안면도 연륙교 |



| 굴포운하 |

안흥량은 신진도(新津島)와 마도(馬島)를 거쳐 관수각(官首角)과 가의도(賈誼島)에 이르는 해역(海域)을 말한다. 안흥량에는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운 관계로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려서 건넜다고 한다. 관수각은 관장항(冠丈項)이라고도 하며, 지령산에 있는 안파사(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찰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운하(漕渠) 건설을 계획했던 것이다.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淺水灣)과 북쪽 가로림만(加露林灣)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지금은 서산간척지 축조로 지형 변화가 심하나, 그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다.

현재 그곳 굴포 운하의 자취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정비는 고사하고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아서 다녀본 사람조차 길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관심을 절감케 한다.

소근진과 안흥진

소근진성, 그리고 후대의 안흥진성은 해안방어시설이기도 하지만, 험난한 뱃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927년까지 안흥항 일원에는 정족리 지령산의 산제당, 정족리 문필봉과 남산봉의 성황당, 신진도리 후망봉과 마도산의 성황당이 있었다. 남산봉은 안흥진의 남산이었을 것이고, 신진도 후망봉은 안흥진 전방의 초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 안흥진성 |





자염생산

한편 조선시대 안흥진과 소근진은 태안과는 별개의 특수 군사구역이었다. 즉 태안군수가 아니라, 안흥진 첨절제사가 행정까지 관할하였던 것이다. 현재 안흥항은 신진도와 마도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옮겨갔고, 그러한 여파 때문인지 옛 선착장 등이 함몰되고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안흥항은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에서도 대표적인 어항으로 꼽힌다. 그리고 바다의 암초가 발달하여 갯바위 낚시꾼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미식가들을 불러세우는 해산물의 천국임은 물론이다. 태안을 찾는 길에 안흥항 뒤편 골짜기에 다소곳이 이웃한 안흥진성을 잠시 둘러보는 여유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최근 안흥진성에 대한 복원 작업이 진행중이니, 머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색다른 전통 '진성(鎭城) 마을'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 소금, 자염(煮鹽)

주민들이 말하듯이, 태안반도는 '낙지밭 형국'을 이루어 만(灣)마다 드넓은 갯벌이 발달하였으니, 염밭(鹽田)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갯벌이 넓게 발달하였고, 안면도 등 곳곳에 송림이 발달하였다.

20세기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 선조들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간수, 즉 바닷물을 농축시킨 후 가마에서 긴 시간을 끓여서 소금 결정을 얻었으니, 땀감으로 쓸 목재가 충분하여야 했다.

이 소금을 일러 자염(煮鹽)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태안반도는 과거 구운 소금의 주산지였다. 이러한 구운 소금의 제조법은 1960년대 이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일제강점기에 천일제염법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외국산 '돌소금'〔岩鹽〕이 수입되었으니, 땀감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자염법이 설 자리가 점차 잠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태안군 안흥면 마금리 낭금 마을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생산법을 재연했다고 한다.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의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태안문화원이 주도하고 있다. 다소 외진 위치이지만, 안흥항이나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길을 찾는 약간의 수고만 더한다면 자녀들에게 뜻있는 체험교육을 소개할 수도 있으리라.

한편 자염에는 갯벌에 함유된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요리에 사용했던 주부들의 말을 빌면, 음식 맛이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입소문이 퍼지는 것으로 보아 상품성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면을 빌어서 활성화되기를 비는 바이다.

백화산 마애불과 태을암

가야산이 전체 내포를 조망할 수 있는 고봉이라면, 백화산은 낙지밭처럼 바다로 뻗은 태안반도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산을 등지고 읍치(邑治)를 건설함은 당연한 이치일 터. 그리고 그 정상 가까운 곳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마애불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태안 백화산정에 서있는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은 조각 기법이 투박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2불 1보살'이라는 특이한 삼존(三尊) 구도를 하고 있어서 눈에 띄며, 한국 마애불의 첫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이곳까지 자동차 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만리포 등지를 찾는 길에 잠시 경유하는 곳으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마애불이 위치한 곳은 태을암이라는 암자이다. 본래 태일초재(太一醺齋), 즉 태일성에 대한 도교식 제사를 올리던 전각이었다. 태일성은 인간의 오복(五福)을 총괄하는 중요한 별로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도 제사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태일성은 구궁(九宮)을 따라 순환하고, 매 궁마다 45년을 머무는 관계로, 태일전 또한 옮겨야 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마지막에는 통천(通川)에 있었고, 1434년 경상도 의성으로 옮겼다가, 1477년 충청도 태안으로 옮기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후 관찬사료에 태일전을 옮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태안군의 것은 조선 왕조 마지막 태일전이 되는 셈이다.

백제시대에 마애불이 조성되고, 조선시대에 태일전이 건립되었음을 보면, 백화산은 태안 반도의 중심이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더불어 곳곳에 석각(石刻)이 산재해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유적들을 둘러보는 길에, 백화산에서 낙조를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태안마애불 |



| 태을암 |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복구)는 5월 15일 오전11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지난 5월 1일부터 개최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 2002회계년도결산검사개요 》

- 기간 : 2003. 5. 26 ~ 6.14(20일간)
- 대상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내역
- 감사위원
 - 도의원 : 김문규, 오찬규, 이종건
 - 공인회계사 : 정구열, 김광훈
 - 세무사 : 유미옥, 박삼현
 - 전직공무원 : 유영준, 우영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年度 第1回 忠清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修正議決調書

■ 總 括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세 입	1,893,980	-	-	1,893,980	원안가결
세 출	1,893,980	380	380	1,893,980	수정가결

※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조치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사 정 액	
계	572,536	-	-	572,536	원안가결
일 반	206,820	-	-	206,820	
공기업	365,716	-	-	365,716	

豫算案 削減額 調書

■ 一般會計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 구 액	삭 감 액	증 액	사 정 액	비 고
합 계		1,900,500	380,000		1,520,500	
일반운영비(201)	· 도정광고료	60,500	10,000		50,500	
일반운영비(201)	· 행정수도이전 공동홍보물제작	50,000	20,000		30,000	
사회단체보조금 (307)	· 행정수도이전등 도정현안포럼	30,000	20,000		10,000	
출연금(306)	· 의료원기능 보강사업	700,000	200,000		500,000	
사회단체보조금 (307)	· 전국체전 및 선수 육성 강화훈련	1,000,000	100,000		900,000	
사회단체보조금 (307)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60,000	30,000		30,000	

■ 特別會計 : 원안가결

修正議決調書

■ 2003年度第1回忠清南道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세 입	1,443,550,157	-	-	1,443,550,157	원안가결
세 출	1,443,550,157	2,463,832	2,463,832	1,443,550,157	수정가결

※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조치

본 안건은 2003. 5. 6(화)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3. 5.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음.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를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재정융자를 위하여 설치된 자금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 개정에 따라 법령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으로 변경함.(안 제8조)

3. 참고사항(붙임)

- 관련법령(등)발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 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관리 한다.

제8조 제목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 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 으로, "예수 또는 출연" 을 "출연 또는 용자" 로 하며, 제2항 중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용자" 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제5조" 를 "제6조" 로 하고, "정보화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을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4 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u>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 4 조 (기금의 조성) ①-----</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 <u>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u></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5 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u>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u></p> <p>② ~ ⑥ (생략)</p>	<p>제 5 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u>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u> <u>예탁 관리 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 8 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u>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u> <u>예탁금 및 출연금</u>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p> <p>②기금이 <u>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u>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u>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u>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p>	<p>제 8 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 <u>중소기업 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u> -----</p> <p>----- 출연 또는 융자 -----</p> <p>②기금이 <u>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u>으로부터 <u>출연 또는 융자</u> ----- <u>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u> -----</p>
<p>제 9 조 (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 지원사업, 정보화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p> <p>3. ~ 10.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 9 조 (기금의 사용 등) ①-----</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제6조 -----</p> <p>----- , <u>이업종 교류지원사업</u>, -----</p> <p>-----</p> <p>3. ~ 10.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오 세 직

쌀 잉여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라는 특단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의 취지는 그 동안 경작했던 논에다 벼를 심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기간을 연장해 놓고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관심조차 없는 눈치이다. 옛날에는 쌀이 모자라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밀가루 한 해 수입량 2천 5백억

쌀은 당연한 우리의 식량자원 중 으뜸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쌀 없이는 못사는 민족이다. 쌀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듯도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고작 쌀떡·쌀케익·쌀음료수 등이 대안 식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도이다. 필자는 여기서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쌀라면의 개발이다. 라면은 우리의 대용식량 중 제1호를 차지하는 막대한 식품소재원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라면 시장의 총 규모는 40억개로 매출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했다. 국민 모두가 1년에 1백개 정도 먹은 셈이다. 라면생산에 사용되는 밀가루의 양은 40만톤으로 생산

비가 2천5백억원에 달한다. 밀가루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볼 때 외화유출이 얼마나 엄청난 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라면의 생산은 쌀문제 해결 및 외화유출에 대한 중요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쌀, 보약 중 보약

쌀라면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쌀이 함유하는 무궁무진한 영양소에 있다. 우선, 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의 약 3분의 1을 쌀을 포함한 곡류에서 섭취한다.

쌀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다른 곡류에 비해 함량은 적지만,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 옥수수나 밀가루보다 두 배나 많다. 또, 쌀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높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고, 쌀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B등은 강력한 항산화(抗酸化)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쌀은 고혈압을 낮추고 간기능을 높이고 암예방효과까지 있는 건강식품으로서 진짜 보약 중 보약이다.

몇 년 전부터 한 라면회사는 쌀라면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지금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밀가루 라면에 익숙해진 우리의 미각이 주요 원인이다. 수십 년간 밀가루라면에 익숙해진 지금의 입맛을 성급히 쌀라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

도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함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쌀라면이 밀가루라면보다 두 배 정도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럼 쌀라면의 대량판매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

쌀라면으로 쌀문제 해결

밀가루라면을 쌀라면으로 대체하면 남아도는 쌀문제가 해결된다. 지금까지의 쌀라면은 맛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가격의 차이가 워낙 큰 한계점을 안고있어 성공할 수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쌀값은 갈수록 하락하고 밀가루 가격은 오르고 있다. 몇 년 뒤면 이들의 가격 격차는 더욱 더 좁아질 것이다. 더욱이 쌀라면의 원료는 자급자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밀가루는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해 외화유출이 심각하다. 라면의 원료를 밀가루에서 쌀로 대체할 경우 쌀소비량은 38만톤으로 국내 쌀 생산량의 7.2%에 달한다. 이 경우 쌀의 잉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문제도 해결되고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쌀라면에 대한 기술개발과 홍보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쌀라면의 개발과 수요의 확대는 농업정책은 물론 외화유출문제를 고려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 홍성신문 4월 28일자 |

內浦時代를 주목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충남지역의 발전방향을 보면 대전을 중심으로 한 京釜軸이 있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천안과 조치원 등 신흥도시로 발달하였고 대전권은 한 반도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가져왔다. 이후 부여·공주 등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사업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충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백제, 금강, 계룡산 정도였다. 물론 서해안도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어서 특화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동안의 이런 고정 관념을 송두리채 바뀌놓고 말았다.

동북아시아 시대 주역, 내포

정부축 집중현상에서 서서히 西海岸軸으로 이동하면서 최근에는 한층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서해안은 환황해권지역의 핵심이자, 동북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은 다름 아닌 가야산일대를 지칭하는 내포권이 다. 내포지역을 한번 가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드넓은 갯벌과 낙조가 아름다운 해

안, 그리고 수려한 평야와 나즈막한 산들은 우리 충청인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내포지역의 대명사이다.

예로부터 어염시수(魚鹽柴水)의 고장, 즉 물고기와 소금, 팥감과 물이 풍족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내포이며 자연의 보살핌과 베풀을 받은 선택된 곳이 내포이다.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내포지역의 먹거리·볼거리·놀거리가 풍부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옛말에 "갯간에서 인심 난다"하지 않았는가!

바로 우리고장 충청, 그 중에서도 내포를 말함이 아닌가 싶다. 바다에서 얻어지는 각종 해산물과 땅에서 얻어지는 특산물들은 내포의 맛을 이루고, 그 맛은 내포만의 멋으로 이어지며, 내포의 인심은 이러한 맛과 멋에서 나온다.

내포문화권 본격 개발

이런 내포문화권이 본격 개발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에는 1조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신문화창달사업, 문화유적 정비사업, 관광휴양공간 확충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이다. 권역설정은 예산을 중심으로 서산과 홍성일부가 포함된 가야산권과 태안·서산중심의 해양권, 당진중심의 북부권, 홍성·예산중심의 내륙

권으로 나눠 개발된다. 바야흐로 내포시대를 알리는 서곡이다. 이 연구사업을 주도하게 될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내포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 '내포문화의 재조명'이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관련 연구원들은 내포자료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주민 적극 참여해야

내포문화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참여가 절실하다. 얼마 전 서산시와 태안군이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내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살고, 살았던 분들의 고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발원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포시대를 함께 열어가면서 후대에 길이 빛나는 내포역사를 창조해 나갔으면 한다. 내포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역문화 교과서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고도의 문치주의 사회를 운영해 온 문화민족이었다. 조선시대 왕조실록의 정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부터 역사와 문화의 정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문화민족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을 많이 남기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지방에서도 읍지(邑誌)와 지리지(地理誌)가 편찬되는 등 지역문화의 정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국가로서 1000년 이상 중앙집권 사회를 지향하여 왔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지역문화가 정리되기는 힘들었다. 그 동안의 지역문화 정리는 중앙의 입장과 시각에서 논의되고 정리되어 왔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객이 주인행세를 해 왔던 것이다.

지역문화 정리 꼭 필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언 10여 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의 객관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요건이 된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와 정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교육

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지역문화 교육·교양서, 지역문화 안내·홍보서, 지역문화 특성 연구·자료집 등 지역문화를 탐구하고 소개하는 책자들을 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미 『공주의 역사와 문화』(1995), 『삼포천의 역사문화』(1995), 『아름다운 금산』(1995), 『문화가 살아있는 이야기 공주』(1997), 『충남문화 기행지도』(1997) 등 지역문화 관련 서적들이 간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내고 있다.

학교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의 3학년과 4학년 과정에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실정에 맞게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에는 이미 시·군단위로 지역화 학습교재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교과에서도 현장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유산, 유적지 답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경우 주로 사회·도덕 교과에 편성되어 입시에 대한 상대적 부담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간단하게 지역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화학습이 미흡하다. 또한 마땅히 일할만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도 못하다.

지역문화 교과서 개발 시급

충청남도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근·현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국충절의 민족지사가 많이 배출된 고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도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지역역사문화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각 시·군 별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가 하루빨리 발행돼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도 내 고장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팽배해주고 있다. 이제 전문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하나의 당위에 해당한다.

이는 애항심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나아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의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지역의 향토사학자 차원을 넘어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도 지역문화에 대해 청신한 시각으로 심도 있는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결집해 낼 수 있다면 지역문화 교과서의 마련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연구서가 아니라, 전체 지역민과 청소년에게 눈 높이를 맞춘 교양서 및 교과서의 간행이 시급하다.

| 충남도정신문 5월 27일자 |

심心하여 충남발전 앞당기자

근간 우리에게 당면한 지역현안들은 하나 같이 과거의 양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제82회 전국 체전 종합우승의 쾌거와 함께 2002년 국제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심대평충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충남인의 긍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및 행정수도 이전 현안을 둘러싸고 현재 복잡한 양상이 계속 나타나다가 하면, 특히 최근에는 계룡특례시 추진 및 당진항 분리 현안에 제동이 걸려 충남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긴요한 지역현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안팎에서 제동이 걸려 성사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하여 충남지역의 발전구도가 표류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계룡특례시 설치 현안을 통하여 우리지방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앙정치에 대하여 지방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실감하고 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증평군 설치 문제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요즘 안보의식이 회복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 국방중추 계룡대에 대한 민간사회 쪽의 협력·지원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다. 또 얼마전 해양수산부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 당진항이라는 고유명칭 대신에 평택·당진항으로 공동명칭을 사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부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어떻게 하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행정당국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고 책임질 수 없다. 뜻있는 지역주민들과 건설한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그리고 학계·언론계·산업계는 물론, 특히 지방의원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상호간 협력·지원하고 해결과정에 동참하는 지역통합적 노력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이것이 요즘 학계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지역협력체제 모델)」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자치행정론은 주민,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참여행정이라 함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책임감을 갖고 진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하면서 협조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지역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몇몇 소수인들만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부적인 자გი지역의 이해관계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길이라면 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지역현안에 공동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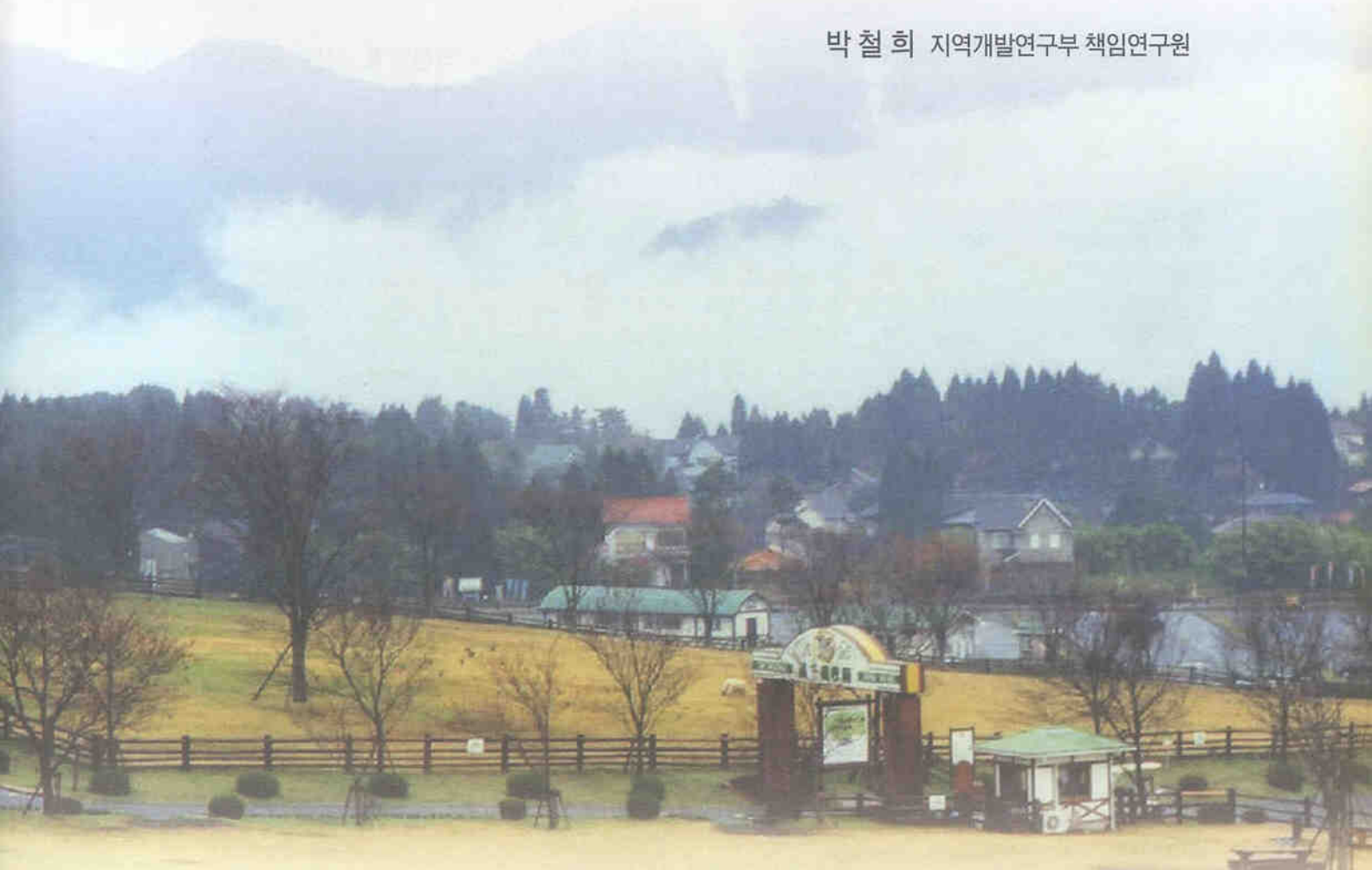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당진항 분리지정 현안이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정현안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의견을 조율하고, 대응논리를 가다듬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통합역량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논리는 설득력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하겠다. 논리싸움에서 밀리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는 경쟁의 시대다. 국가간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고한 운영의 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충남의 발전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하겠다. 아울러 전 도민 모두가 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합심하면서 충청인의 근본바탕인 인간미, 여유, 양보, 포용력, 예의범절을 계속 살리면서, 동시에 새 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소신, 결단, 협력, 추진력을 충실히 배양해야 한다.

앞으로 거듭 요청되는 것은 도민 개개인이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앞장서야만 충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일본관광목장의 운영현황

박 철 희 지역개발연구부 책임연구원



1. 시작하기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축산진흥정책과 충청남도의 낙후지역 개발방침에 따라 안면도에 위치한 도유지를 목장용지로 대부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축산여건의 변화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목장유지에 한계가 노정되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조사의 목적은 해외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조성된 목장의 바

람직한 활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례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리적 여건과 농축산업이 발달한 일본 큐슈지역의 미야자키현과 구마모토현을 대상으로 하였다.

| 답사개요 |

- 조사목적 :
 - 선진지의 관광목장 운영실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대부초지(도유지) 사후 활용방안의 접목 가능성 검토
- 조사일시 : 2002. 11. 15 ~ 2002. 11. 18(3박4일)
- 조사지역 : 일본국 미야자키, 구마모토현
 - 다카치오 · 코스모스 · 후쿠타관광목장, 아소 Farm-Land 등
- 중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태안군 관계자 6명
 - 중남발전연구원 : 책임연구원 박철희
 - 충청남도 : 정책관리관, 담당자 외 1명
 - 태안군 : 행정담당 외 1명

| 세부답사일정 |



2. 답사지 큐슈지역의 미야자키현과 구마모토현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큐슈는 7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다.

미야자키현은 큐슈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오지마 등의 경승지와 남국의 풍광으로 1960年代 일본 최고의 신흥여행지로 선정된 현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과 같은 곳이다.

구마모토현은 미야자키현의 서쪽에 위치하여 남서부 태평양과 면하

여 큐슈지역의 교통 요지로서 관광 거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구마모토시의 구마모토성, 스이젠지 공원 등의 유적, 온천 및 우리나라의 옛 백제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고적과 유물들이 있으며, 활화산으로 아직도 연기를 내뿜고 있는 아소국립공원은 큐슈의 상징적 존재이다.

3. 관광목장 개요 및 운영 실태

일본의 축산업은 (거품)경제의 붕괴와 WTO 후의 산업제편에 따라 지속적 축산수요감소 및 경쟁심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의 목장에 관광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큐슈의 미야자키와 구마모토현은 전국에서 1, 2위의 축산물 공급지로서 여러 관광목장을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답사에서는 일정관계상 지역의 대표적 관광목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방문목장으로 미야자키현의 타카치오목장, 코스모스 목장, 구마모토현의 후쿠다목장, 아소팜랜드를 선정하였다.





▲ 다카치오 목장전경

1) 다카치오 관광목장

• 입지선정 및 조성

宮崎縣 都城市 吉之元町에 위치한 다카치오 목장은 부지면적 만6천평의 부지위에 조성된 지역의 대표적 관광목장으로서 조성목장은 미야자키현의 축산물, 유제품을 판매·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성되었다.

조성비는 총20억엔이 투자되었으며 비용중 63%를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부담하였다. 조성항목으로와 목축지, 목장관련시설, 판매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목장의 초지조성은 산중턱의 구릉

을 이용하였으며, 위락시설 대신에 유럽의 목장과 같이 초원의 자연풍경을 관람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축산제품의 생산과 관리설비를 설치하고 제품을 직접 시식·구매할 수 있는 우사, 유제품 제작설비, 식당, 매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놀이시설로서는 천연잔디썰매장을 설치하였다.

특히, 목장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정연하게 입지하여 있는데 이것은 목장조성 후 주변경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원주거지로서 지역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관리· 운영

목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가축은 소, 양 등으로서 관광객 및 방문자들이 아름다운 목초지 및 경관을 관람하고 제조과정을 견학·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영업시간은 월별로 조정하여 운영하는데 4월~10월까지의 09:00~18:00, 11월~3월까지의 09:00~17:00로 하고 있으며, 매월 1, 3째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하고 있다.

다카치오 목장의 대표적인 판매제품으로는 신선한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유럽식 유제품과 바비큐와 정기스칸 요리, 수제 유제품 및 육가공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일본에서 널리 인기가 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연간 50만개(1억엔)를 판매하여 운영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 밖에 과자,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목장운영에 있어서 인력관리는 인력Pool관리·운영 System을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업무파트를 정하지 않고 순환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운영을 통해 다카치오 목장에는 연간 85만명이 찾고 있으며, 매년 초기 투자비의 2~3%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낙농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 간접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 다카치오 목장입구



▲ 우사 및 식당 전경



▲ 우사내부 모습



▲ 우사내부 시설



▲ 판매장 외부모습



▲ 판매장 내부모습



▲ 코스모스 목장 입구
▲ 코스모스목장의 팍골프장

2) 코스모스 관광목장

• 입지여건 및 조성

宮崎縣 都城市 吉之元町에 위치한 코스모스 목장은 부지면적 60,000평, 표고 550m의 부지위에 조성된 지역의 대표적 관광목장으로 인근에는 기노시마 온천, 테노야마공원(수족관) 등이 목장과 5~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양호한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다.

코스모스 목장은 1995년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 축산업의 진흥, 시민

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총 투자비용은 14억엔으로 투자비용은 小林市가 51%, 농업생산법인 20%, 기타 29%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로는 놀이시설인 3세대 파크 골프시설, 배터리카, 미니모노레일, 조랑말 타기,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을 설치하였고, 체험·견학시설로 허브원, 화목원, 공간원, 목장, 도자기 공방 등이 있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바비큐하우스, 허브티 등이 마련되어있고, 부대시설로 주차장(버스10대, 승용차 250대)을 갖추고 있다.

• 관리·운영

코스모스 목장의 시설은 대부분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카치오 목장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영업시간은 월별로 조정하여 운영하는데 7월~11월까지는 09:00~18:00, 11월~6월까지는 09:00~17:00로 하고 있으며, 매월 2, 4째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하고 있어 다카치오 목장과 보완관계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약 15만명선으로 연간 1,500만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바비큐하우스,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시설 등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운영적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는 경영자로 하여금 수익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방문시기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적어 주차장이 비어 있는것을 보면, 관광객 유치 등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 코스모스목장 본관



▲ 어린이 놀이시설



▲ 후쿠다 목장 전경



▲ 야외휴식마당



3) 후쿠다 관광농장

• 입지여건 및 조성

熊本縣 미나마타市 明神町에 위치한 스페인풍의 후쿠다 목장은 서쪽으로 아마쿠사 해상국립공원과 마주한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입지하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에는 농장, 공원, 온천 등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 네트워크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후쿠다 목장의 조성규모는 51,000

평의 부지위에 조성되었으며, 순수민간자본에 의해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형 관광목장형식을 취하고 있다.

도입시설로는 농장, 레스토랑, 공연장 및 기념품 판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일 주스 5,0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농장내 시설 및 건물에 사용된 자재는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레스토랑은 서양식 메뉴로 구성된

식단과 농장에서 직접 재배된 것을 가공한 주스, 와인, 생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다.

• 관리 · 운영

농장의 역사는 약40년으로서 현재 연간 25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매출 5억엔에 1억엔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관 식당 및 자가 맥주관은 인기가 높았으며, 경영자의 적극적인 운영마인드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 맥주, 와인 제조 설비



▲ 시음장



▲ 공연장



▲ 판매장



▲ 생맥주 판매장



▲ 스페인식 식당



4) 아소 FARM-LAND

• 입지여건 및 조성

구마모토현 阿蘇郡 長陽村 에 위치한 아소팜랜드는 세계적인 명소인 아소산(활화산 분화구)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으며, 구마모토시에서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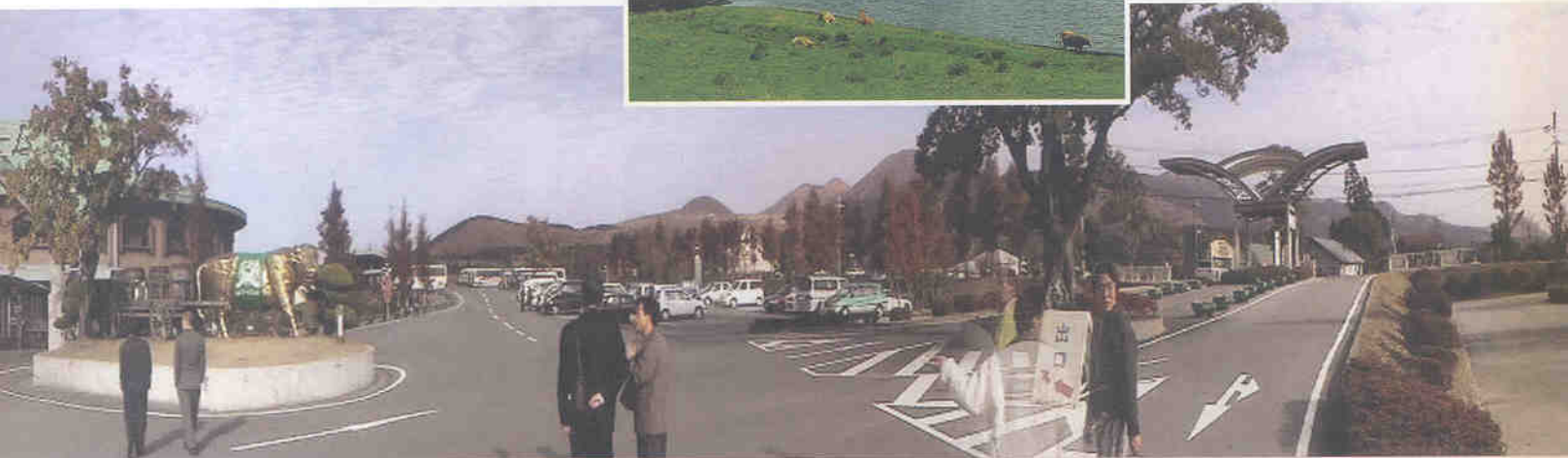
팜랜드의 측면에는 웅장한 아소산이 보인다. 중앙의 서쪽에서 북쪽에 걸쳐 광활한 초원지대에 위치한 큰 연못과 푸른초원에서 소와 말들이 무리를 지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아소산의 활화산과는 다른 평화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여름에는 초원에서 말을 타 볼 수 있고, 인공스

키장에서 스키도 즐길 수 있다.

부지면적 300,000평의 부지위에 조성된 테마파크형 관광지로서 국유지를 임대받아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도입시설로는 온천, 과자·유제품 제조공장 및 직매점, 농산물 및 특산물 가공·판매시설, 학예관, 체험관, 목장, 바비큐장, 방갈로(아소팜빌리지), 건강원, 공예촌, 위락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단순한 관광목장이 아닌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테마파크형 관광단지라 할 수 있다.





•관리·운영

운영 및 관리현황을 보면 연간 방문객이 38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관광수요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찾는 관광객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특히, 관광관련 이벤트시설을 복합적 배치하여 시설간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단계적 투자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성을 확보해 견실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비 및 흑자규모는

경영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관광수요 및 환경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대상지의 입지조건, 도입 시설의 규모,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관광의 요소를 구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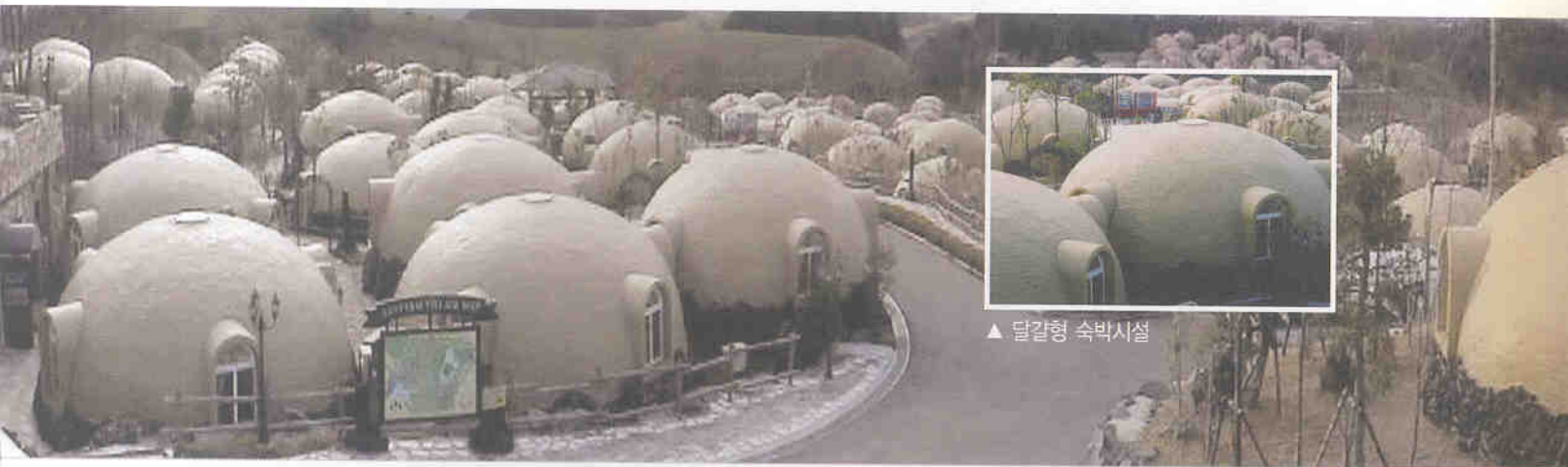
▲ 바비큐광장



▲ 과자체험관



▲ 숙박시설내부



▲ 달걀형 숙박시설



■ 관광목장 현황 비교

구 분	타카치오 목장	코스모스 목장	아소팜랜드	후쿠다 목장
목 적	낙농제품PR, 낙농업진흥 (수익사업)	낙농제품PR, 낙농업진흥 (수익사업)	효율적 토지이용, 관광소득 증대(수익사업)	관광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환경보전 홍보(수익사업)
규 모	48ha	20ha	100ha	17ha
내 용	·소프트 아이스크림, 우유, 바비큐, 요구르트 등 낙농 관련제품 및 체험을 상품화	·우유, 바비큐, 요구르트 등 낙농관련 제품 및 체험을 상품화	·숙박, 판매, 온천, 체험 등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의 종합테마파크	·스페인풍을 주제로한 음식, 음료, 제빵, 놀이, 체험
사업방식	민자유치	제3섹터 (사:민간=51:49)	민자유치(국유지 임대)	민자유치
투 자	·총 투자비 20억엔 ·가축시설 ·초지조성비의 63%를 지방정부(県)가 지원	·총사업비 14억엔중 (민간 8억, 국비 4억, 縣費 4억엔)	·토지 : 국유지 임대 ·기업 : 시설투자 ·사업종료시 返地 ·원상복구	·전액 민간 투자
방문객	연간 80만명	연간 15만명	연간 380만명	연간 25만명
수익구조	·연간 2~3%의 운영수익 확보	·연간 1,500만엔 적자	·수익확인 불가	·연간 5억엔 흑자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민간에 의한 경영 및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 종사자가 적극 노력 ▶낙농생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PR에 적극적 ▶농산물개발 및 축산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산업성격상 경영의 어려움 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섹터형식으로 수익구조 확보에 대한 종사자의 적극성 결여 ▶인근 민간목장(다카치오)에 대비 경쟁력 미흡 ▶적자보존을 縣政府에 의지함으로서 투자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장기적 부담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농장용지 활용을 위한 민간기업 유치로 사업화 성공 ▶테마파크의 주제상품을 인근의 자원(아소산, 온천 등) 및 생산품(유지제품, 과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속적 ITEM제공 ▶단계적 투자를 통한 사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변에 스페인풍을 주제로 하여 식당 및 관광농장 운영 ▶여타의 축산농장과는 다르게 농산물농장을 위주 ▶관련제품의 재료수급을 농장에서 공급받아 수익성 창출

4. 조사결과와 시사점

일본 큐슈지역에 대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관광목장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 토지활용

조성입지는 신규의 목장용지를 확보하여 조성하기 보다는 현재의 생산적 목장의 기능에 관광과 판매시설을 확충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시와 일정거리에 위치하며 기존의

자연환경을 살려 조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환경을 활용한 관광목장의 조성 과 시설의 도입은 대부 초지의 활용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사업방향

조성의 목적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낙농제품의 홍보와 이를 통한 낙농업의 진흥이었고, 두 번째는 관광목장을 통한 수익사업의 전개이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 목적인 경우 대개 공공이 조성비를 지원하거나 제3섹터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 경우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

었다.

특히, 아소팜랜드의 경우는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시설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종료시 반지·원상복구를 전제하고 있어 토지제공자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이어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적극 검토해 볼 만한 방식이었다.

•도입시설 및 운영

대표적인 시설로는 판매시설, 체험시설, 놀이시설 등으로 구분되는

데 목장시설 외에 축산물을 활용한 제품 판매장, 식당, 휴식공간과 체험 시설로는 조랑말타기, 동물먹이주기 등이 있었으며, 놀이시설로는 초지를 이용한 팍골프장, 잔디썰매장 등을 도입하였다.

도입시설은 목적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운영방식에 따라 같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사업주체자의 경영능력 및 수익창출 노력에 따라 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구 분	사업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토지활용	○조성입지는 신규의 목장용지를 확보하여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 목장의 기능에 관광과 판매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주변자연환경을 살려 조성
규 모	○사업 목적은 낙농제품의 홍보판매를 통한 낙농업진흥과 관광목장을 통한 수익사업의 전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 목적인 경우 대개 공공이 조성비를 지원하거나 제3섹터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 경우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특징
내 용	○단지내 연령층별 위락시설 도입 - 40대 이상 : 골프, 관광농장 등, 30대 : 위락시설(낚시, 승마, 잔디썰매 등), 운동시설, 20대 이하 : 관광농장, 어린이 공원 등 - 테마형 레스토랑 : 목장 및 입지여건을 주제로한 테마형 시설도입 ○체류형 및 사계절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도입 - 골프텔, 테마형 village, 콘도, 가족형 호텔 등
일본 관광목장 사업의 시사점	○수익모델을 갖춘 사업의 선정과 테마를 부여한 사업으로 특성화 추진 필요 ▶해외조사결과 수익성이 확보된 지역은 대부분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있었음 ▶사례 : 아소팜랜드 - 아소산, 농장, 온천 등 후쿠다 농장 - 스페인풍의 식당, 놀이, 농장시설 등 타카치오 목장 - 자연친화적인 축산상품체험 등 ○주변 자원(아소산, 온천 등) 및 생산품(유지제품, 과자 등)을 관광상품화 및 연계성 확보

임진왜란과 이몽학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던 사건이었다. 그 병란을 계기로 중국의 명 왕조가 몰락하고, 일본에서도 토요토미히데요시의 정권이 막을 내렸다.

전국을 피폐화시켰던 임진왜란은 의병들의 예상외의 활약에 힘입어 가까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에 충청도에서 나라를 뒤흔드는 반란이 일어났다. 1596년 이몽학의 난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몽학의 난을 일으킨 홍산현을 혁파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몽학(李夢鶴, ~1596)은 600여 명의 군사로 난을 일으켰고, 여러 고을을 거치면서 그 무리가 수 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거침없는 기세로, 현 왕권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수립하여 "안민정국(安民正國)"하겠다고 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조 29년(1596) 7월 10일 이몽학은 홍주로 진격해 갔다. 그러나 홍주 목사 홍가신(洪可臣, 1511~1615)을 중심으로 한 관군에 밀려 이몽학을 따르던 대부분의 무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이몽학은 부하 김정창(金慶昌), 임억명(林億明), 태척(太斥) 등에게 피살되면서 반란은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난의 주동자였던 이몽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록에는 다만 "성품이 불량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정도만 전해진다. 그러나 부여 등지에는 이몽학을 다른 모습으로 그리는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몽학은 '덕림'이라 하는 곳으로 글을 배우러 다녔는데, 어찌나 총명한지 하나를 일러주면 열을 알 정도였다. 하루는 홍수로 갯벌을 건널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몽학은 아침 일찍 선생을 찾았다. 이에 선생이 홍수가 저서 배로 왕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려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공부를 파한 후에 뒤를 따라가 보니, 유독이라는 풀을 꺾어 물에 띄운 후 타고는 화살같이 물을 건너갔다. 이를 본 선생은 "잘되면 큰 인재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망칠 것이니 내가 가르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선생은 다음날 "나는 이미 너를 가르킬 만한 능력이 없다. 너는 총명해서 나보다 아는 게 많으니 내일부터 오지 말고 더 유능하고 훌륭한 선생에게 가서 배워 나라에 큰일을 해라"하고 보냈다. 이몽학은 대답하고 그 다음날부터 오지 않았다.



洪陽清難碑



이몽학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홍가신 등을 제향한 청난사

설화에서 이몽학은 총명할 뿐 아니라 기인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탄생에 얽힌 이야기에서도 홍산의 비홍산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장군으로 묘사되어 있다. 민중들은 그를 단순한 반란 주모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남들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5리나 던질 수 있다거나, 상투에다 명주 1필을 매고 달려도 명주가 땅에 닿지 않고 달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힘이 세고 날렵한 이몽학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기를 바라는 민중의식의 표출이다.

'발을 매던 자는 호미를 들고 행상 하던 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투어 따랐으며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다.'(『연려실기술』)

"이몽학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꾀기를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고 하니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으며, 사람마다 스스로 고관대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성불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였다.'(『선조수정실록』 선조 29년(1596) 7월 기사)

왜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을까? 그는 당시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을 향하여 "읍내나 촌에 사는 백성들은 편안히 있고 동하지 말라. 이번 거사는 남아 있는 백성들을 수화(水火) 가운데서 구제하려는 것이다.'(『亂中雜錄』 권 2, 1596년 7월 12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몽학이 규합한 세력은 일반 백성에서 승려, 서얼 출신, 사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이렇듯 폭넓은 참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능력 때문인지, 예언의 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는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 갔던 선각자인지, 안타깝게도 그에 관한 기록은 이러한 의문을 풀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사족들까지 참여했으므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연구자들의 보다 상세한 조사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당시 의병장으로도 많은 전공을 세웠던 한현(韓鉉, ~1596)이 군인을 모집하는 명을 받아 활동을 벌이는 도중에 이몽학에 가담하였고, 난이 진압된 이후에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이 옥에 갇힌 후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곽재우의 연루설, 나아가서 서애 유성룡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이몽학의 난을 결코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혼란함'을 틈타 난을 일으켰다는 대역죄인'으로서의 이몽학은 역사의 패자로 남았다. 역사 기록은 승자에 의하여 굴절되기 쉽다. 하지만 민간의 구비전승은 역사적 사실의 이면에 숨어있는 민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진실의 표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다리는 바이다. <충청학연구부>

충청학연구부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참된 의미의 지역문화가 존재하기는 힘들었다. 지금까지 지역사와 지역문화는 중앙의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때로는 지역민의 의지와 달리 중앙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절하 되기도 하였다.

이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국력이란 사실도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문화'란 '내가 만들어가는 문화', '내 주변사람들의 문화'라기 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문화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중앙,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치우쳐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문화야말로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자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지역사, 지역문화,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내 고장을 제대로 알자'는 지역학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는 것이다. 충청학연구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청학연구부의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충남의 정체

성을 찾고,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와 그 활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지역사 및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부서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1996년 충남발전연구원에 '역사문화부'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역사문화부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의 보존·계승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연구(1996)를 시작으로 충남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였다.

충남지역 개발사업의 증가와 함께 역사문화부 내의 발굴기능이 강화되자 1999년 7월 역사문화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역사문화센터가 다시 (부설)충남역사문화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연구소 내에 충청학연구부와 문화재연구부

가 설치되었다.

충청학연구부와 맥을 같이하는 역사문화부 및 역사문화센터의 중요한 연구성과로는 태안정신 발굴 연구(1997), 조선시대 무과시험제도 고증연구(1997), 서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1997), 홍주관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1998), 「충남의 향교」·「충남의 서원·사우」연구 간행(1999),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참여(200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도 1997년 발간한 『朝鮮時代 武科 殿試儀 考證 研究』는 국·내외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충남의 향교』와 『충남의 서원·사우』는 조선시대 향촌 사회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향교·서원·사우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지역사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충청학연구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예산군과 아산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2001·2003), 충남 인물사 연구(2002), 예산의 효행과 우애에 관한 연구(2002), 충청감영과 관찰사 사료 전시 행사(2003), 등의 연구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다. 이중에서도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충남인물사 연구'는 충남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으로, 먼저 전근대 시기 100인의 인물을 선정하여 정리하였고, 앞으로 근현대 인물을 발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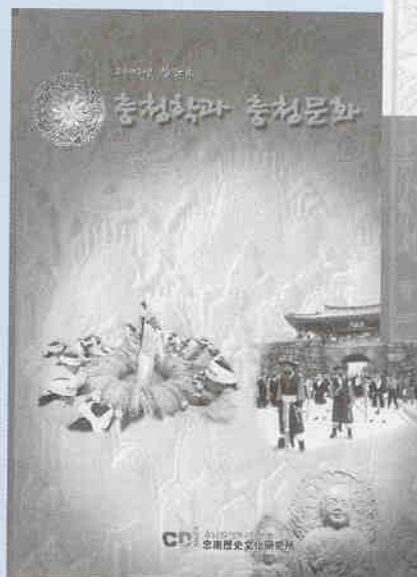
한편, 우리 부서는 문화재연구부와 함께 학술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충청지역 역사와 문화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2001년 12월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충청학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학·고고학·민속학·구비문학·인물사상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역민이 함께 '충청학'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후로 지금까지 2회의 심포지엄과 6회의 워크숍, 그리고 세 차례의 기타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충남의 역

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시도되었던 연구성과를 모아 2002년 12월에 연구지『충청학과 충청문화』창간호를 간행하였다. 창간호에는 충청학 관련 연구논문과, 기획특집으로 '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4편의 논문 등을 실었다. 연구지는 매년 간행할 예정이며,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충청학연구부는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충남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청지역의 미래상을 설계하는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홍제연)



충남발전연구원 2003년 1차 정기이사회 개최

- 지난해 3백23건 연구수행, 연구 질 제고에 주력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오제직)은 4월2일 도청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03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충발연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과제 11건, 수탁과제 1백13건, 디자인 홀닥터 12건 등 총3백23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01년 기본과제 11건, 현안과제 1백68건, 수탁과제 66건 등 총3백46건보다 23건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현안과제에서 55건이나 줄었는데 연구의 양보다 질 제고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수탁과제는 양에서 10건, 금액에서 20억원이 늘어 충발연이 지역연구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직 원장은 금년도 운영기조를 "도, 시·군정을 선도하는 '선진연구기관 정립의 해' 정하고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양보다 질적 연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수요자중심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대평 충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충남이 21세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충남으로 우뚝 설 수 있기 위한 충발연의 새로운 목표가 요구되고 있다"며 "충발연이 충남도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에 더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모두 통과 시켰으며,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중 10억원을 자체적립금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5억원은 2003년도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충남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워크숍

- 황인덕교수 등 3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 -

충남지역 구비문학에 관한 워크숍이 25일(금) 오후2시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민속학자, 향토연구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해준)와 한남대학교 한국어·학연구소(소장 김균태)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충남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학자간의 논의가 전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황인덕교수(충남대)가 구비문학 중 충남지역의 지명전설에 대해, 최운식교수(교원대)가 충남지역 인물전설을, 정희정강사(한남대)는 충남지역의 민요에 대한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된다.

또 이창식교수(세명대), 황의호교감(대전여고)등 5명의 토론자가 주제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에 나선다.

한편 이번 워크숍 개최 배경에 대해 이해준 소장(충남역사문화연구소)은 "충남지역 구비전승문화는 순수 학문연구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지역의 전통계승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토론의 장에서 제기될 지명·인물전설 및 민요의 활용방안을 지역특화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공주대와 연구협력 협약식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오제직)과 공주대(총장 최석원)은 4월 21일 「연구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양 연구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연구활동에 노력키로 했다.

본 원 춘계수련대회 개최

충발원은 지난 4월3일부터 1박 2일간 전직원 참가한 가운데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의 사기양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날 수련대회는 연구원 자아발전과 연구원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안면도 자연휴양림-삼봉해수욕장(사구)-예산수덕사에 대한 견학이 있었다.



열린 충남

| 제23호 2003년 여름호 |

-
- 발행인 / 오제직
 - 편집위원장 / 이해준
 - 편집위원 / 김정연, 권영현, 이인배, 임선빈, 송두범, 한무호
 - 표지디자인 / 이충훈
 - 편집간사 / 이길구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계룡출장소 3층)
전화 (042)841-9901 · 9454 / 팩스 (042)841-9902

• 디자인 · 인쇄 / 아름다운디자인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1221번지
전화 (042)488-2161 / 팩스 (042)488-2162

-
- 인 쇄 / 2003년 6월 9일
 - 발 행 / 2003년 6월 9일
-